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45

로마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로 마 서

Romans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23, 24)

*πάντες γὰρ ἥμαρτον καὶ ὑστεροῦνται τῆς δόξης τοῦ
θεοῦ, δικαιούμενοι δωρεὰν τῇ αὐτοῦ χάριτι διὰ τῆς
ἀπολυτρώσεως τῆ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로마서 차례

바울 서신 서론	〈20제〉 ... 319
로마서 서론	〈14제〉 ... 328
제 1 장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28제〉 ... 335
제 2 장 하나님의 심판 원리와 유대인의 죄	〈26제〉 ... 349
제 3 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20제〉 ... 360
제 4 장 칭의에 대한 구약의 실례(實例)	〈22제〉 ... 369
제 5 장 칭의(稱義)의 결과	〈24제〉 ... 379
제 6 장 죄에서 떠나라	〈30제〉 ... 388
제 7 장 죄와 율법 사이에서의 갈등	〈25제〉 ... 399
제 8 장 성령 안에 사는 삶의 축복	〈39제〉 ... 409

제 9 장	유대인의 구원 문제	〈30제〉	… 426
제 10 장	이스라엘의 불순종	〈19제〉	… 441
제 11 장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	〈22제〉	… 451
제 12 장	산 제사를 드리라	〈28제〉	… 464
제 13 장	국가와 사회 생활의 윤리	〈26제〉	… 476
제 14 장	성도의 교회 생활	〈21제〉	… 486
제 15 장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	〈30제〉	… 496
제 16 장	로마의 여러 성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인사	〈24제〉	… 509

로마서 특별 자료 차례

로마서 서론 〈연구 자료〉	바울의 사도성(使徒性)	334
----------------	--------------------	-----

제 1 장	〈연구 자료〉	계시(啓示)란 무엇인가?	348
제 3 장	〈연구 자료〉	죄의 보편성(普遍性)	368
제 4 장	〈본장의 요절〉	378
제 5 장	〈본장의 요절〉	387
제 6 장	〈본장의 요절〉	398
제 8 장	〈연구 자료〉	구원의 순서	424
제 9 장	〈연구 자료〉	하나님의 통치	439
제 10 장	〈연구 자료〉	바울이 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449
제 11 장	〈화보 자료〉	천사의 보살핌을 받는 엘리야.....	462
제 11 장	〈연구 자료〉	이스라엘의 회심(回心)	463
제 12 장	〈연구 자료〉	성령의 은사(恩賜)	474
제 14 장	〈연구 자료〉	음식물에 관한 기독교의 견해.....	495
제 16 장	〈화보 자료〉	마메르티눔 감옥의 라틴어 명판(銘板)	519

바울 서신 서론

1. ㉠ 바울 서신이 속해 있는 '서신서'란 신약의 어떤 책들을 말하는가?

- ㉠ (1) 서신서(書信書)는 신약 성경 중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책들 중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의 21권을 일컫는 명칭이다.
- (2) 이 성경들을 공식적으로 '서신서' (Epistles)라고 부르게 된 것은 A. 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정경이 확정된 이후 제롬(Jerome)이 자신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에 이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비롯되었다.
- (3) 이 책들은 신약 성경 전체 27권 중 21권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4복음서 및 사도행전에서 소개된 역사적 사실들을 개인의 내면적 고백으로 실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 ㉠ 신약 성경의 서신서와 관련하여 '서신' (書信)이라는 말과 '편지' (便紙)라는 말을 비교 설명하라.

- ㉠ (1) 신약 성경에서 '서신'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스토레>는 사실상 모두 '편지'라고 번역되어 있다(롬 16:22; 고전 16:3; 고후 3:3; 골 4:16).
- (2) 하지만 현대 학자들은 쓰여진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에피스토레>를 공적인 성격을 지닌 '서신' (epistle)과 사적인 성격을 지닌 '편지' (letter)로 구분한다.
- (3) 실제로 로마 시대의 편지 집록(便紙集錄)들은 비록 서신 양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내용적으로는 연설문, 철학 논문, 정치 소론(政治所論) 또는 도덕적 권고문 등으로 볼 수 있는 문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 (4) 이러한 종류의 문서들은 성격상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적인 편지들과는 달리 보다 더 광범위한 독자층을 위해 공표 또는 회람될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음이 확실하다.
- (5) 신약 성경의 서신들 역시 개인적이기 보다는 공적인 성격이 강하였으니만큼 '서신'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예컨대 극히 개인적인 편지라 할 수 있는 '빌레몬서'조차도 수신자에 '네 집에 있는 교회'를 포함시키고 있다.
- (6) 그렇다고 해서 신약의 서신서들이 모두 편지의 형식을 띤 신학 논문 혹은 설교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서신서들은 다만 실제로 보내어진 편지이면서도 신앙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에 모든 신앙인들에게 읽혀지는 공적 문서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7)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위에서 논의된 '서신'과 '편지'의 용어 구분이 어디까지나 학문적 입장에서 시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들을 다룰 때 반드시 그 두 용어를 구분해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3. ㉠ 서신서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라.

- ㉠ (1) 서신서는 전통적으로 바울 서신(로마서-히브리서 등 14권)과 공동 서신(야고보서-유다서 등 7권)으로 구분되었었다.
- (2) 하지만 최근에 바울 서신에 포함되었던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증됨에 따라 서신서를 바울 서신 13권, 히브리서, 공동 서신 7권 등 3부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구분법으로 되어 있다.
- (3) 한편 바울 서신은 서신의 내용상 유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다시 세분

(細分)된다. 교리 서신(롬-갈 등 4권), 옥중 서신(엡-골 등 3권), 재림 서신(살전·후 2권), 목회 서신(딤편-딛 등 3권), 개인 서신(몬1권)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개인 서신 빌레몬서는 옥에서 쓰여진 이유로 옥중 서신에 포함되기도 한다.

(4) 이상의 구분을 알기 쉽게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I	구분 II	책명
신약 서신서	바울 서신 (13)	교리 서신 (4)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옥중 서신 (3)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재림 서신 (2)	데살로니가전·후서
		목회 서신 (3)	디모테전·후서, 디도서
		개인 서신 (1)	빌레몬서
	히브리서 (1)		히브리서
	공동 서신 (7)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이·삼서, 유다서

참고, () 안은 권수

- (5) 한편 서신서들은 그 서신이 지니는 특징에 따라 ‘추천 서신’ (빌레몬서, 요한 이·삼서), ‘회람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답변 서신’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 (6) 이외에도 수신자들에 따라 분류해 보면 서신서는 ① 특정 교회를 수신자로 하는 서신 (9편-롬, 고전·후, 갈, 엡, 빌, 골, 살전·후) ②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 (6편-히, 약, 벧전·후, 요일, 유) ③ 개인에게 보낸 서신 (6편-몬, 딤편·후, 딛, 요이·삼) 등으로 나누어진다.

4. C 서신서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 A (1) 복음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한 사실적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면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해석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
- (2) 즉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교리, doctrine)를 밝히고 또 그 교리들이 현실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교훈, teaching)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참조, 답후 3:15-17).
- (3)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그 구성에 있어서 교리편과 교훈(혹은 생활)편으로 구분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컨대 로마서는 1-11장(교리)과 12-16장(교훈)으로, 갈라디아서는 1-4장(교리)과 5-6장(교훈)으로, 에베소서는 1-3장(교리)과 4-6장(교훈)으로 각각 확연히 구분되어진다.

5. C 바울 서신의 각 책들을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그것들과 관련된 사실들을 서술하라.

A

번호	서신명	저작연대	저작장소	수신인	비고
1	데살로니가전서	50년	고린도	데살로니가교회	고린도 체류 기간 (약 1년반, 행 18:11)
2	데살로니가후서	"	"	"	"
3	고린도전서	55년	에베소	고린도 교회	바울의 에베소 체류 말기
4	고린도후서	"	마게도나	"	고린도전서를 보낸 지 수개월 후
5	로마서	57, 58년	고린도	로마 교회	바울의 3차 전도

6	갈라디아서	56년	마게도냐	갈라디아교회	여행 도중 "
7	골로새서	62년	로마 옥중	골로새 교회	바울의 1차 투옥 기간 중
8	에베소서	"	"	에베소 교회	"
9	빌립보서	"	"	빌립보 교회	"
10	빌레몬서	"	"	빌레몬	"
11	디모데전서	63년	마게도냐	디모데	바울의 1차 석방 후 2차 투옥 전
12	디도서	66년	마게도냐, 니가볼리(?)	디도	바울의 2차 투옥 기간 중
13	디모데후서	"	로마 옥중	디모데	"

6. ㉠ 바울 서신이 수집된 역사적인 과정을 설명하라.

- ㉠ (1) 바울 서신들은 A. D. 50-66년 사이 약 16년간에 모두 쓰여졌지만 즉시로 정경으로 편입되어 읽혀진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점차적으로 수집되어진 결과, A. 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비로소 다른 신약 성경들과 함께 신약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 (2) 바울 서신은 신약의 다른 책들, 즉 복음서나 공동 서신들보다도 먼저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즉 A. D. 1세기말의 교부 문서인 '클레멘트의 제 1서신'에는 이미 고린도전·후서가 구약과 같이 영감된 글로 인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 (3) 한편 A. D. 2세기초의 교부 이그나티우스(Ignatius)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바울의 모든 서신'이란 말을 언급함으로써 바울의 많은 서신들을 수집하고 있었음을 암시하였다(참조, 뱀후 3:14, 15). 그가 수집하고 있었던 서신들은 살전, 고전, 롬, 골, 엡, 살후 등 6권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4) 그 후 A. D. 150년경 마르시온(Marcion)에 이르러 바울 서신은 10권(갈, 고전·후, 롬, 살전·후, 엡, 골, 빌, 몬)으로 수집되었고 A. D. 2세기말 이레니우스(Irenaeus)에 의하여 나머지 목회 서신 3권(딤후·후, 딤텔)이 추가됨으로써 13권의 바울 서신은 완비되어 갔다.
- (5) 마지막으로 A. D. 3세기에 정경 중의 한 권으로 대두된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에 포함되는가의 문제로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나 일단 바울 서신에 편입됨으로써 바울의 13서신 다음의 위치에 배치되었다.

7. ㉠ 신약 시대에 행해졌던 서신의 문학적 성격을 설명하라.

- ㉠ (1) 신약의 서신서들은 호머(Homer)가 활동하던 그리이스 문학 시대 초기인 B. C. 9세기부터 파피루스 문헌 시대로 일컬어지는 A. D. 1세기까지에 걸친 지중해 문화권의 오랜 전통적 의사 전달 양식인 서신 문학과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 (2) 이 서신 문학은 라틴 문학에 있어서 매우 전통적인 양식으로서 로마 시대의 풍자 문학 다음으로 세계 문학에 큰 공헌을 하였다.
- (3) 라틴 문학의 대가였던 키케로(Cicero)는 자신의 서신들을 예로 들어 서신의 문학적 형식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 ① 소식을 전하는 서신 형식 - 키케로의 현존하는 서신 중에서 아티쿠스(Atticus)에게 보낸 서신들이 여기에 속한다.

- ② 평이하고 정서적인 내용을 기술한 서신 형식
- ③ 심각하고 진지한 화제를 다루는 서신 형식- ②와 ③의 형식에 해당하는 서신들은 키케로의 서신집에서 많이 발견된다.
- (4) 하지만 키케로가 분류한 세 가지 서신 형식은 서로 중복되어 있어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플리니(Pliny)나 세네카(Seneca)의 서신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 (5) 이러한 양상은 신약의 서신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신약의 서신들은 서신 문학의 몇 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 서신 안에서 한 가지 이상의 장르적 특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8. **㉠ 바울이 교회를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한 ‘교회 서신’(The Church Epistles)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교회 서신은 7교회를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된 바울의 9서신(롬, 고전·후, 갈, 엡, 빌, 골, 살전·후)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 (2) 이 서신들은 ‘교리 서신’(롬, 고전·후, 갈), ‘옥중 서신’(엡, 빌, 골), ‘재림 서신’(살전·후)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 (3) 각 그룹에 속한 서신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요점을, 딤후 3:16에 소개된 성경의 용도를 따라 정리해 보도록 하자.
- (4) 우선 딤후 3:16(‘모든 성경은 ...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에 나타난 성경의 용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교훈(doctrine) : 계시된 진리에 대한 해설
 - ② 책망(reproof) : 도덕적 가르침으로부터 이탈된 것을 시정하기 위한
 - ③ 바르게 함(correction) : 교리적 가르침으로부터 이탈된 것을 시정하기 위한
 - ④ 교육(instruction) : 위의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말
- (5) 이에 따라 각 서신들의 중심 요점을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분류	중심요점
교리서신	로마서 · 교훈 -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칭의와 성화
	고린도서 · 책망 - 실제적 성화에 있어서의 실패
	갈라디아서 · 바르게 함 - 이신 득의(以信得義)에 대한 부인
옥중서신	에베소서 · 교훈 -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 머리와 몸의 관계
	빌립보서 · 책망 - 찬양과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인들은 서로 연합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재림서신	골로새서 · 바르게 함 -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초월성에 대한 부인
	데살로니가서 · 교훈 - 그리스도의 재림의 비밀, 공중에서 자기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신다 · 책망 - 거룩한 삶에 있어서의 실패 · 바르게 함 - 잠자는 자, 배교자 등에 관련된 잘못된 지식

- (6) 결론적으로 이상에 소개된 바울의 교회 서신들은 죄와 타락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롬 1:10-3:20) 그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런 천국에 이르게 되는 길을(살전 4:17, 18)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9. **㉠ ‘목회 서신’의 성격과 그 특징을 설명하라.**

- ㉠** (1) 목회 서신은 바울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두 목회자 디모테와 디도에게 보낸 디모테전·후서와 디도서를 일컫는 명칭이다.
- (2) 따라서 이 서신들에는 목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목회 생활의 귀중

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 (3) 특별히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에 관한 말씀들은(딤후전 3:1-16; 딤후 1:5-9) 이 서신들에서만 나타나고 있어 목회 서신의 성격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 (4) 또한 이 서신들에는 목회할 때에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거짓 교리'와 이단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타나 목회자로 하여금 바른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일깨워 준다(딤후전 1:3-11; 4:1-16; 딤후 3:1-17; 딤후 1:10-16; 3:8-11).
- (5) 한편 '예배'(딤후전 2:1-15), '전투적인 신앙'(딤후 2:1-16), '교회의 역할'(딤후 2:1-3:11) 등 교회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수록하고 있는 목회 서신은 비단 목회자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읽혀져야 할 책들이다.

10. **㉠ '추천 서신'이 지니고 있는 문학적 특징을 말하라.**

- ㉠** (1) '추천 서신'이란 라틴어로 <에피스토라 콤파멘다티시아>인데 이는 서신을 전하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그 사람을 받아들일도록 보증하기 위한 서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위와 같은 성격으로 서신을 보내는 관례는 신약 성경에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행 9:2; 22:5; 롬 16:1; 고전 16:3; 고후 3:1) 빌레몬서, 요한이·삼서 등은 그러한 서신의 대표적인 예이다.
- (3) 빌레몬서는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그의 옛 주인 빌레몬에게 추천하는 편지이고, 요한삼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하는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요한이서의 경우는 의견상 은폐가 되어 있지만 역시 추천 서신의 형식을 띠고 있다.
- (4) 성경 외에 추천 서신이라 볼 수 있는 서신들로서는 ① 풀리나가 그의 친구 사비니아누스(Sabinianus)에게 보낸 편지 ② 키케로가 법률가 친구 트레바티우스(Trebatius)를 율리아스 시이저에게 소개한 편지 ③ 호레이스(Horace)가 친구 셉티미우스(Septimius)를 티베리우스(Tiberius) 황제에게 추천한 편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5) 몬, 요이·삼 등의 문학적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4)에 열거한 추천 서신들을 참고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11. **㉠ '회람 서신' (回覽書信)에 해당하는 신약의 서신서들은 어떤 것들인가?**

- ㉠** (1) '회람 서신'이란 여러 사람들이 돌려 가며 읽도록 쓰여진 편지의 형식으로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고 로마서와 에베소서도 이 형식에 속한다.
- (2) 특별히 골로새서에는 편지 받는 자가 이 편지를 수 km 거리에 있는 라오디게아 회중들에게 전해 주어 그들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모두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명시되어 있다(골 4:16). 또한 골로새 성도들도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읽도록 부탁받고 있다.
- (3) 이와 같은 지시문은 A. D. 1세기의 비 성경 문헌으로 이루어진 '옥시린쿠스 파피루스'(Oxyrhynchus Papyrus)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에 회람 서신이 보편적인 서신 양식으로 통용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실례이다.
- (4)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등에는 골로새서와 같은 지시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 서신들이 심오하고 주의 깊게 성찰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아 여러 사람들에게 회람되었음이 분명하다.
- (5) 로마서의 경우 끝 부분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언급되고 있는 것은 회람 서신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이다(롬 16장).

12. **㉠ '고린도전·후서'와 '빌립보서'가 '답변의 서신'으로 불리우게 된 이유를 설명하라.**

- ㉠** (1) 바울 서신에 대한 현재의 분류가 절대 고정된 것이 아니라면 고전·후, 빌 등 3권의 서

신은 '답변서', 혹은 '칙답서'(勅答書)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 (2) 플리니(Pliny) 서신의 마지막 권에는 트라얀(Trajan) 황제가 쓴 이러한 종류의 많은 칙답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칙답서들은 질문 되어진 몇 가지 안전에 대한 통치자의 뜻을 공식적인 문체가 아닌 대화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 (3)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편지도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당시 그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점 - 즉 종파 분쟁(고전 1장), 도덕 문제(고전 5, 6장), 부활에 대한 논쟁(고전 15장), 헌금 문제(고후 8, 9장) 등 - 에 관해 하나의 답신으로 보내어졌던 칙답서임이 분명하다.
- (4) 또한 빌립보서 역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견해를 빌립보 교회에 알려 주기 위해 썼던 칙답서이다. 예를 들어 에바브로디도의 병에 대한 회신은(빌 2:26) 빌립보서가 지닌 칙답서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참조, 빌 1:26; 2:19; 3:2; 4:10).

13. **㉠**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 서신을 쓰는 일반적인 형식은 어떠했는가?

- ㉠** (1) 당시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은 그 서신이 쓰여지는 목적에 따라 정해졌다.
- (2) 서신의 목적은 대략 ① 교제를 지속하고 ② 정보를 제공하며 ③ 어떤 부탁을 하려는 데에 있었다.
- (3) 이러한 목적들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한 서신에 있어서도 혼합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위의 목적들과 특별히 관련되는 서신의 양식들을 차례로 다뤄보기로 한다.
- (4) 우선 교제의 지속에 관련된 부분들은 서신의 처음과 마지막에 쓰여지는 인사말과 기타 안부의 말들, 중재 및 감사의 말들, 기쁨이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말들, 이전의 좋은 관계를 기억나게 하는 말들을 포함한다(참조, 살전 1-3장; 몬 1:1-7; 요이 1:1-3, 12, 13; 요삼 1:4-6).
- (5) 다음, 정보의 제공이나 어떤 일을 요청하는 데에 있어서 서신들은 특별한 관용어를 동원하여 본론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 (6) 예를 들어 서신서에서 바울은 무엇을 소개하려 할 때에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롬 1:13), '...에 대하여는'(고전 7:1; 살전 4:9) 같은 상투어를 사용하였고, 무엇을 요청하려 할 때에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롬 12:1; 몬 1:8-10) 혹은 '가하리로다'(요삼 1:6) 같은 용어로서 용건을 말하고 있다.
- (7) 또한 설득을 목적으로 한 편지일 경우에는 법적, 토의적, 수사학적 색채가 매우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편지로는 플라톤, 소크라테스(Socrates), 데모스테네스들의 서한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 (8) A. D. 1세기의 서신들 중에서는 유대인을 위하여 헤롯 아그립바가 갈리굴라(Caligula) 총독에게 보냈던 청원 서신, 신약의 바울 서신 특별히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등이 그 모범을 제공한다.

14. **㉠** 바울 서신서의 발송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 ㉠** (1) 바울 서신의 발송인은 물론 1차적으로 편지의 저자인 바울이다. 하지만 서신서 서두에 소개되는 바에 의하면 바울 외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발송인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 (2) 그 바울 서신의 발송인들을 알기 쉽게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서신명	발송인
1	로마서	바울
2	고린도전서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
3	고린도후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4	갈라디아서	바울, 함께 있는 모든 형제

5	에베소서	바울
6	빌립보서	바울과 디모데
7	골로새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
8	데살로니가전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9	데살로니가후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10	디모데전서	바울
11	디모데후서	바울
12	디도서	바울
13	빌레몬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 (4) 이상을 종합해 보면 바울 서신에 바울 외에 다수의 발송인이 기록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5권의 바울 서신(롬, 엡, 딤후, 딤후, 딤후)은 저자 1인만을 발송인으로 하고 있지만 나머지 서신 7권은 바울 외의 발송인을 1, 2명씩 소개하고 있다.
- (5) 이러한 발송인들은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과 함께 있어서 그와 함께 복음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편지를 쓰는 데에 협력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6) 이러한 사실은 바울 서신들이 개인적으로 보낸 사신(私信)이면서 동시에 공적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15. ㉠ 고대의 서신서들이 그 수신인들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 (1) 그 이유는 당시 서신들은 오늘날처럼 공공 우편 기관을 통해 보내지지 않았고 신뢰할 만한 전달자를 통하여 인편(人便)으로 보내어졌기 때문이다. 전달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17을 참조하라.
- (2) 현재 카이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어떤 추천의 편지에는 수신인이 그냥 ‘필록세노스’(Philoxenos)라고만 언급되어 있다. 또 힐라리온(Hilarion)이 알리스(Alis)에게 원치 않았던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알려 주는 편지를 쓰면서도 다만 ‘힐라리온이 알리스에게 기별을 전합니다’라고 언급하였다.
- (3) 이러한 편지들과 동시대에 쓰여진 바울 서신도 그 초기의 사본들을 보면 ‘고린도인들에게’, ‘갈라디아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등 간략한 형태로 그 수신인들을 언급하고 있다.

16. ㉠ 서신서들의 전달 경로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고대의 서신들은 파피루스 종이에 쓰여져 접혀지거나 말아서 묶여졌으며 겉표지에는 흔히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도장이 찍혀진 채로 발송되었다.
- (2) 편지의 전달 경로에 대하여 구약에는 사자(使者)들이 도보 혹은 말을 사용하여 전달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나(에 3:13; 8:10) 신약은 전달 경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 (3) 성경 이외의 다른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우편 업무는 사적(私的)인 교신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유한 가문은 편지 전하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인들은 ‘타벨라리’라고 불리우는 우편 배달부를 사적으로 고용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 (4) 따라서 신약의 서신서들도 사적인 전달 경로에 의존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별히 서신서들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사이에 교신되었던 만큼 서신을 전할 사람이 교인들 중에서 선택되었을 것이다.
- (5) 그러한 전달자로 바사바 유다와 실라가 선택되어 안디옥으로 가는 편지를 전달한 바 있고(행 15:22),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의 전달자로(빌 2:25), 두기고는 골로새서의 전달자로(골 4:7, 8) 그리고 여집사 뵤뵤는 로마서의 전달자로(롬 16:1, 2) 각각 임명되었

던 것으로 나타난다.

17. **㉠** 서신서를 대신 쓰는 데 수고하였던 대서자(代書者)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 ㉠** (1) '대서자'란 신본은 파피루스를 사용하던 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인이었다.
- (2) 사실상 파피루스 위에 글씨를 쓴다는 것은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에게나 가능할 정도로 전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인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文盲)이었다는 사실도 대서자를 필요로 했던 하나의 이유가 된다.
- (3) 신약 서신서의 많은 편지들도 대서자들에 의해 쓰여졌다. 물론 이 대서자들은 단순한 직업적인 대서자가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서 특별히 선택된 일꾼들이었다.
- (4) 신약의 대서자로서 더디오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으며(롬 16:22) 실루아노는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였다(벧전 5:2). 또한 중세의 한 전승 자료는 사도 요한의 대서자로서 프로코루스(Prochorus)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
- (5) 한편 바울은 몇몇 편지를 대서자와 상관없이 혼자 썼는데 그러한 편지에서 그는 '친필로 썼다'는 말을 부기(附記)하여 대서자에 의해 쓰여진 편지와 구별하고 있다(고전 16:21; 골 4:18; 살후 3:17)

18. **㉠** 서신서들을 쓸 때 사용된 필기구는 어떤 것들이었는가?

- ㉠** (1) 서신서들이 쓰여질 당시 일반적인 필기구들은 먹(ink), 붓(pen) 그리고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 종이였다(요삼 1:13).
- (2) 우선 '먹'은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그을음이나 검은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고 나무진이나 기름을 혼합하여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든 먹은 상당히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다.
- (3) '붓'은 파피루스 갈대로 만들어졌다. 이 붓은 양피지에도 사용되었지만 섬유 조직이 보다 짧고 평행선으로 배열된 파피루스 종이에 주로 사용되었다.
- (4) 파피루스 종이는 표면이 보다 매끄러웠고 섬유 조직의 배열이 일정한 간격으로 쳐져 있어서 그것이 곧 선(線)의 역할을 했다. 또한 파피루스는 글을 다 쓴 후 적당하게 말아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보통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 파피루스로 이루어진 문서를 말한다.
- (5) 반면 양피지는 송아지나 새끼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보다 원시적인 종이로서 구약 시대에는 많이 사용되었으나 제조 과정이 번거롭고 휴대하기도 불편하였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점차적으로 파피루스 종이로써 대체되어졌다.
- (6) 신약 성경에서 양피지는 특별히 '가죽 종이'(헬, 펌브라나스)라고 불리어졌다(딤후 4:13).

19. **㉠** 바울 서신이 지니는 신학적·윤리적 가치를 말하라.

- ㉠** (1) 먼저 신학적인 면에서 바울 서신들은 기독교의 신론, 기독교론, 교회론을 위시하여 복음, 인간이 처한 상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언약의 완성, 역사의 종말 등 모든 신학적 제주체들을 망라하고 있는 신학 이론의 집성체라고 할 수 있다.
- (2)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데살로니가전·후서는 종말론적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교리서신(롬, 고전·후, 갈)은 구원론적이라 할 수 있으며 옥중 서신(엡, 빌, 골)은 기독교론적 신학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목회 서신(딤후·후, 딤편)은 교회와 가정 생활 전반에 걸친 목회학적 서신이며 빌레몬서는 기독교 신학의 실천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 (3) 이러한 바울 서신들에 비해서 공동 서신들은 비교적 실천적인 생활과 윤리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인상이 짙다. 즉 공동 서신은 신학적으로 말해 실천 신학적인 성격이 강하다

고 할 수 있다.

- (4) 이처럼 서신서들이 지니고 있는 신학 사상들은 고대로부터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바울 신학’ (Pauline theology) 은 신약 신학의 한 분야로서의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참조, ㉑ 17).

20. ㉑ 바울 신학의 주요 주제들을 설명하라.

- ㉑ (1) 바울의 서신들은 각기 고유한 역사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조직 신학의 논문집처럼 간주되거나 취급될 수는 없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 아래 수집되고 보존되어 온 그의 서신들은 오히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참된 신학의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
- (2) 이에 우리는 바울의 서신들을 연구 종합함으로써 ‘바울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데 그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3) 먼저 바울의 신학 사상은 독자성과 의존성을 갖는다. 바울은 세상의 어떤 자료를 통해 복음을 창출해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에 의존하여 복음을 받았다고 함으로써(롬 16:25, 26; 갈 1:1, 11, 12; 엡 3:2-10)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이 지니고 있는 독자성과 의존성을 강조했다(참조, 롬 2:16; 16:25).
- (4) 두번째로 바울 신학의 열쇠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 사상에서 발견되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헬, 엔 크리스투)라는 상용어로 대표되어지는 바울의 신학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갈 2:20).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 동의어와 합하여 바울 서신 중에 도합 172회나 나타난다.
- (5) 세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인간의 상태와 욕구를 논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개념으로 전개되어진 바울의 인간론은 롬 7장에서 자기 고백적인 표현을 통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졌다(참조, 롬 7:22; 8:10; 고전 5:5; 6:20; 7:34; 고후 7:1; 엡 3:16).
- (6) 바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죄의 상태에 빠져 있으며(롬 3:10)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며(갈 3:24)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딤후 3:15) 바울의 일관된 사상이다(참조, 엡 2:8). 여기에 바울 신학의 인죄론(人罪論)과 구원론이 있는 것이다.
- (7) 다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영적 유기체론(靈的有機體論)을 주장하며(롬 12:5; 고전 12:25-27; 엡 1:1; 빌 1:1)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종말론적 소망을 내다보고 있다(살전 4:15-17; 고전 15:12-58).
- (8) 결론적으로 바울은 예수의 구속 사역을 완성된 사실로 인정하는 한편 그 적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종결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을 대변하듯 ‘마라나타’(주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며(고전 16:22; 계 22:20) 재림 대망의 신앙으로 그의 신학을 결론짓고 있다.

로마서 서론

1. ㉠ 본서신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내외적(內外的)인 수많은 증거들은 본서신의 저자가 사도 바울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만큼 바울이 로마서를 저술했다는 것은 이론(異論)의 여지없이 분명하다는 말이다.
- (2) 그 증거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레니우스(Irenaeus, 활동기 182-188?)를 비롯한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 하나같이 본서신의 저자가 바울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 (3) 이탈리아의 로마 카톨릭 역사가였던 무라토리(Murator, 1672-1750)도 그의 유명한 저서 '무라토리 단편'(Muratorian Fragment)에서 로마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주장하였다.
- (4) 내적인 증거를 몇 가지 살펴보면, 3:20-24;4:3에 언급된 '칭의'(稱義)의 교리는 바울의 서신으로 알려진 갈2:16;3:6,11;딤후3:5-7에도 똑같이 언급되어 있다.
- (5) 그리고 12:5에서 묘사된 많은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울의 서신인 고전10:17;12:12-14,27;엡1:22,23;골2:19 등에도 일관성 있게 묘사되어 있다.
- (6) 또한 12:6-8에는 이 지체들이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재능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는데 고전12:15-26,28-31;엡4:11-16에서도 동일한 임무가 강조되어 있다.
- (7) 이처럼 본서신과 기타 바울 서신들 사이에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역시 본서신의 저자가 바울임을 암시해 준다. 더우기 본서신의 1장과 15장의 인사말이 다른 바울 서신서와 동일하다는 점은 본서신이 바울에 의해 씌어졌음을 명백히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내외적인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본서신의 저자로 바울 사도가 틀림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2. ㉠ 본서신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인물인가?

- ㉠ (1) '바울'이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으로 '작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한편 바울의 옛 이름인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서 '구하였다', '하나님께 청함을 받나'라는 뜻을 지녔다.
- (2) 바울은 베냐민 지파(빌3:5) 출신의 유대인으로 지중해 북동쪽에 근접한 길리기아(Gilicia)에 위치한 그리이스 문화의 중심지이며 대학 도시인 다소(Tarsus)에서 태어났다.
- (3) 성경에는 그의 집안에 대해 기록한 곳이 거의 없다. 그러나 제롬(Jerome)이 전해 주는 한 전승을 보면, 바울의 부모는 본래 갈릴리의 한 마을에 살았으며 B.C. 1세기 로마가 팔레스틴을 폐허로 만들던 어간에 다소로 피난하였다고 한다.
- (4) 이와 같이 이주민이었지만 그의 집안은 상당히 유복했음이 틀림없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행16:27,38;22:25-29)은 그의 집안이 상당한 재물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5) 따라서 어린 시절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하여 유명한 힐렐(Hillel)의 손자이자 당시 가장 뛰어난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Gamaliel)의 문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노동을 병행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아마도 그때 바울이 천막 짓는 기술을 배웠던

것 같다.

- (6) 이와 같이 유대 본토에서 엄격한 바리새파 교육을 받은 그는 청년이 되면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를 죽일 때 증인이 되었으며(행7:58),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박해의 손길을 뻗는 데 앞장서게 되었다.
- (7)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道上)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행9:1-19) 그때부터 그의 생애와 장래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 (8) 그 후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온갖 위험과 죽을 고비들을 넘기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그의 사상과 신학은 초대 교회 뿐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 (9) 또한 그는 최초의 선교사로 3회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방 지역 안디옥을 비롯한 여러 곳에 많은 교회를 설립하는 등 세계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다.
- (10)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독교 신학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였으며 본서신을 비롯한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상가였다고 입을 모은다. 실로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며 선교사였다.

3. **㉠** 본서신의 기록 장소와 기록 연대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바울이 본서신을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이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의 동쪽 항구인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 일군 뵤뵤(Phoebe)에게 본서신 전달의 책임을 맡겼던 것으로 보아 분명하다(롬16:12).
- (2) 뿐만 아니라 바울이 거주하였던 집주인인 가이오에 대한 언급(16:23)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암시하여 준다. 그 이유는 가이오가 바울의 고린도 전도 중에 회심한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고전1:14).
- (3) 또한 고린도 시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가 문안하는 내용이 언급된 것도 본서신의 고린도 저작설에 대한 좋은 증거라 할 수 있다(16:23). 딤후4:26에 의하면 그는 고린도에 거주하였으며, 1929년에 발견된 고린도의 비문에도 그가 그 지역 공회당의 관장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 (4) 한편 본서신의 기록 연대에 대하여는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전통적인 견해는 본서신의 기록 연대를 A.D. 57-58년경으로 보고 있다.
- (5) 바울은 52년 봄에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에 갔으며, 돌아오는 길에 안디옥에서 겨울을 지냈던 것 같다. 그 후 그는 53년 봄에 에베소로 가서 3년간의 목회를 시작하였다(행20:31).
- (6) 그 후 57년 말기에 그는 고린도에서 석 달을 보냈는데(행20:3), 아마 그때 본서신을 기록하였으리라고 본다. 그가 오순절까지는(A.D. 58년 봄)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힘썼으므로(행20:16) 본서신은 분명히 58년 초기까지 완성되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 (7)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들에 근거하여 볼 때 본서신의 기록 장소는 고린도이며, 그 기록 연대는 A.D. 57-58년경임이 확실하다.

4. **㉠** 본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 ㉠** (1) 가장 오래 된 사본들에는 본서신의 서두에 '로마인들에게' 라는 간단한 표제어가 붙어 있다.
- (2) 그러나 그러한 표제어를 바울이 직접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표제어는 2세기 중 어느 시기에 교회가 본서신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견해를 첨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3) 따라서 몇몇 사본들에는 이 표제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유로 내세워 흑자는 본서신을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회람 서신으로 보기도 한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견해는 본서신의 수신자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특히 본서신의 서두(1:8-15)와 결론 부분(15:14-33)에 있는 내용은 본서신이 어느 특정한 교회에 보내는 글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바, 그 교회가 로마 교회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5. ㉠ 로마 교회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로마 교회의 기원에 관하여 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세비우스(Eusebius)를 비롯한 몇몇 초대 교회 교부들은 베드로가 로마의 글라우디오(Claudius, A. D. 41-54) 황제의 통치 때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설립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2) 오히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행2:10) 예루살렘 순례자들의 일부가 로마에 거주하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3) 아니면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전도로 회심한 자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바울이 직접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설립했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다.
- (4)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본서신을 쓸 당시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일이 없고 보고에 의해서만 로마 교회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본서신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참조, 1:8,13).
- (5) 이 로마 교회는 약간의 유대인들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었고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바울이 본서신을 쓸 당시에 이 교회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실(1:8;15:23-29)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6. ㉠ 본서신이 기록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서신의 기록 동기와 목적은 함께 다루어져야 할 만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2) 바울은 그의 에베소 목회가 2년 이상 계속되고 그 성과가 주변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때, 자신의 선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 (3) 15:23에 근거해 볼 때 아마도 그는 오래 전부터 로마 전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다른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로마인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1:5,6,13-15), 그곳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싶어서 안타까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그가 본서신을 쓰게 된 일차적인 목적이 로마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방문을 미리 알아 준비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5) 그렇다면 그가 뵈뵈 편에 짧은 편지를 보내어도 되었을텐데 본서신처럼 장문의 글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변을 생각할 수 있다.
- (6) 첫째,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로마를 지나 스페인 지역까지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 활동의 기지로 삼으려는 기대를 가졌다고 가정하는 데서 본서신의 기록 목적을 찾을 수 있다.
- (7) 즉 바울은 먼저 로마 교인들에게 지난 20여년 간 전파해 온 복음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 복음을 이해시키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토록 준비시킬 목적으로 본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8) 둘째, 바울이 먼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진술한 후 결론 부분에서 그가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유대를 방문할 것인데 이때 안전하게 그의 일이 성사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아(15:30-32)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불길한 징조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는 데서 본서신의 기록 목적을 찾을 수 있다.

- (9) 즉 바울은 만일의 경우 자신이 죽게 될지라도 로마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을 바르게 계승하여 전해 준 그 복음을 로마 제국 끝까지 전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서신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 (10) 그런 의미에서 본서신은 그의 마지막 유언장이고, 로마 교회에 물려 주는 값진 유산이었으며, 동시에 로마 교회를 통하여 주를 믿을 전세계 신자들에게 물려 주는 영적인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7. ㉠ 본서신의 기록 양식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신약 성경은 그 기록된 양식에 따라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등으로 나뉘어진다. 본서는 그중에서 서신서에 속한다.
- (2) 이러한 사실은 본서의 내용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직접 본서를 ‘편지’(16:22)라 언급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모두 서신서에 해당된다(참조, 고전5:9; 골4:16; 살전5:27).
- (3) 일반적으로 서신(epistle)과 편지(letter)는 그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서신은 공적인 것으로 대부분 공식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후세까지 보존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반면, 편지는 개인적인 의사 전달의 방편으로서 사적이고 일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바울 서신만큼은 이러한 일반적인 법칙에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한 실례를 들면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빌레몬의 집에 모인 교회에게 보내는 ‘공적인 서신’이었기 때문이다.
- (5)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바울 서신들은 편지와 서신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문제들이 직접적이고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고상하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모든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잘 증명해 준다.
- (6) 그런데 바울 서신들 중 본서만큼은 논문적인 성격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독자들의 개인적인 요구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비교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편으로, 이러한 면에 치중한 고린도전서의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 (7) 그러나 이러한 성격적인 차이는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고, 또 자신이 직접 설립한 교회가 아니므로 그 교회 신자들의 형편을 세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8. ㉠ 본서신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 ㉠ (1) 본서신의 중심 주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다.
- (2)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란 인간의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엡2:8),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의미한다(3:24).
- (3) 바울은 이 구원의 교리가 실제적이며 필요한 것이고(1-3장), 성경적이며(4장), 열매 맺는 것(5-8장)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 후에, 이어서 9-11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의도되었고 그들 안에서 실현되었다는 의미에서 그 구원이 역사적임을 증명하였다.
- (4)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에도 참되며 미래에도 계속 그러하리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 (5) 이어서 12-16장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을 담고 있다. 환언하면 이들 결론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이웃과 동료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9. ㉠ 본서신과 16장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라.

- ㉠ (1) 일부 학자들은 16장이 원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냈던 서신의 일부인데 본서신이 한 권의 책으로 수집되면서 그 첨가 부분으로 본서신의 권말에 수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2) 그 증거로 그들은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전에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 인물 26명의 명단 (특히 행18:18,19에 언급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최근에 에베소 교회에 편입되었다)을 16장에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 (3) 그러나 자신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 교회에 편지하면서 서로간의 교분(交分)을 밝히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 (4) 그러므로 그러한 이유를 내세워 16장과 본서신을 분리시키며 서로간의 통일성을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 ㉠ 본서신의 정경성을 논하라.

- ㉠ (1) 고대의 권위 있는 사본들은 예외 없이 본서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경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 (2)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는 관계 없는 새로운 계시라고 보고 성경의 수정까지 시도했던 2세기경의 이단자 마르시온(Marcion)조차도 본서신의 정경성을 인정하였다.
- (3) A. D. 3세기경 성경의 위치들이 고정되지 않았던 때부터 본서신은 바울 서신의 첫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 (4) 이처럼 본서신이 그가 처음 쓴 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위치에 놓였다는 사실은 교회가 본서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잘 증거해 준다.

11. ㉠ 본서신에 언급된 핵심 용어들은 무엇인가?

- ㉠ (1) 본서신에 언급된 핵심 용어는 세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헬, 디카이오스네), '구속'(헬, 아폴루트로시스) 그리고 '화목 제물'(헬, 힐라스테리온)이다.
- (2) 첫째, '의'라는 단어의 헬라어 동사형은 <디카이오우>인데, 그것의 일반적인 의미는 '의롭다고 선언하다', '무죄를 선고하다'이다.
- (3) 이는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가리킨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3:24).
- (4) 둘째, 본서신에서 사용된 구속이라는 용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 (5) 구약 시대에는 이 단어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출을 의미하는 데에만 국한하여 사용되었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전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출하는 복음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 (6) 셋째, '화목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 (7) 그러나 이 화목 제물을 제공하신 주체자는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3:25) 제공하였다.
- (8)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

12. **㉠** 율법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간단하게 설명하라.

- ㉠** (1) 본서신을 자세히 읽어 보면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그는 율법이란 단어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양심에 호소하는 도덕률에 대한 전반적인 복종의 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 (3) 개종하기 전에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대단히 경외하였지만, 개종한 이후 부터는 그것이 어찌하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만 갖게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 (4) 그래서 그는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위한 복종의 강제 원리와 형벌의 위협하에서 나타난 율법 기능을 검토하게 되었다.
- (5) 그리하여 그는 율법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율법이 은혜의 섭리 아래서 행하여야 할 다른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즉 율법은 인간의 양심 속에서 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죄의식을 갖게 하며 속죄의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이다.
- (6) 율법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이러한 그의 견해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율법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많은 신앙적 손실이 뒤따르나(참조, 3:31) 율법을 바로 수용할 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 본서신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서문/ 1:1-15
- ①인사말/ 1:1-7
- ②감사와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 1:8-15
- (2) 기독교 교리의 기초/ 1:16-8:39
- ①복음의 주제 : 계시된 하나님의 의 / 1:16,17
- ②구원의 필요성 : 인류의 비참한 상태/ 1:18-3:20
- ㄱ. 이방 세계의 죄/ 1:18-32
- ㄴ. 도덕주의자의 죄/ 2:1-16
- ㄷ. 유대인의 죄/ 2:17-3:8
- ㄹ. 요약/ 3:9-20
- ③칭의 : 외롭다 함을 얻는 길/ 3:21-5:21
- ㄱ. 칭의의 정의/ 3:21-31
- ㄴ. 칭의의 실례/ 4:1-25
- ㄷ. 칭의의 결과/ 5:1-11
- ㄹ. 칭의의 보편적 적용/ 5:12-21
- ④성화 : 의에 이르는 길/ 6:1-8:39
- ㄱ. 죄로부터의 자유/ 6:1-23
- 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7:1-25
- ㄷ.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8:1-39
- (3)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 9:1-11:36
- ①이스라엘의 과거/ 9:1-5
- ②하나님의 선택의 경륜/ 9:6-29

- ③이스라엘의 현재/ 9:30-10:21
 - ④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11:1-32
 - ⑤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대한 찬양/ 11:33-36
 - (4) 그리스도인의 삶 : 의의 실천/ 12:1-15:13
 - ①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한 호소/ 12:1, 2
 - ②교회와 관련된 삶/ 12:3-8
 - ③사회와 관련된 삶/ 12:9-21
 - ④세상 권세와 관련된 삶/ 13:1-14
 - ⑤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 14:1-15:13
 - (5) 맺는 말/ 15:14-16:27
 - ①바울의 계획/ 15:14-33
 - ②개인적인 인사말/ 16:1-16
 - ③마지막 권면과 축복/ 16:17-27
14. **Q** 본서신의 중심 요절은 무엇인가?
A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1:17).

연구자료

바울의 사도성(使徒性). 우리는 대개 ‘사도’(apostle)라는 말을 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열 두 제자만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사도’라는 말의 의미가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참조, 본시리즈 11권 P. 155 연구 자료)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바울도 사도 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바울의 자증(自證)에 의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는 본서 첫머리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곧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擇定)함을 입은 자’로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갈1:1)로 말미암은 것임을 주장하였다.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행9:3-6,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바울은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고후11:5)고 단호히 자신의 사도성을 옹호하였다.

제 1 장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단락구분 1:7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말 / 8:15 바울의 감사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갈망 / 16:17 복음의 주제 / 16:32 이방인들이 저지른 잘못과 그 결과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6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7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8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9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 어떠한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갈 좋은 길 언기를 구하노라

11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12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3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할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
 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

자비한 자라

32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
 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울
 다 하느니라

1. ㉠ 복음이란 무엇인가?

- ㉠ (1) '복음'(福音)이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말한다(2-4절).
- (2)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이 이것을 위하여 사도(헬, 아포스톨로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본장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며, 이 복음(헬, 유양겔리온)을 구원과 연관시켜 본서 전체의 주제로 삼고 있다.
- (3) 다시 말해서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은 오직 이 복음, 즉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16절)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
- (4) 사도 바울이 본장 말미에서 이방 세계의 상황들을 묘사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를 베푸셨는지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 (5) 이로 보건대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 (6)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 앞에서 철저히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참조, 눅18:13,14;고후9:15).

2. ㉠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절)

- ㉠ (1) '종'(servant)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들로스>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사상적 배경이 있다.
- (2) 첫째는 구약적 배경이다. 구약에서 '종'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용어였다. 그것은 선지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며 그들을 가리키는 다른 명칭이었다(참조, 창26:24;민12:7;수24:29;삼하7:5;사20:3;렘7:25;암3:7).
- (3) 둘째는 신약적 배경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언급할 때 주로 '주'(헬, 퀴리 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것의 정확한 뜻은 '소유권자'나 '주인'이다. 따라서 이 단어의 반대어, 즉 소유권자에게 속한 소유물이 바로 '종'이다.
- (4) 바울은 예수가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은 그의 소유이며 종이라고 늘 생각했다. 이는 비단 바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앙의 고백이다.
- (5)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선지자의 후예라는 유대적이며 권위적이고 협의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후자처럼 헬라적이며 광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지을 수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후자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다.
- (6)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종의 의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여야 하며 또한 이 복종은 자

발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

- (7)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오늘날의 성도들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엡6:5-8). 그리고 이 삶은 단순한 의무 이행의 차원을 넘어서 감사와 기쁨의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참조, 신26:16;삼상15:22;롬6:17).

3. ㉠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은 무엇인가? (1절)

- ㉠ (1)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은 '사도'가 되는 것이었다.
 (2) 사도라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파송된 자' 또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 즉 '대사', '사절', '사자' 등의 의미가 있다.
 (3)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 즉 열 두 제자와 바울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참조, 11:13;마10:2;고후1:1,5).
 (4) 사도의 개념을 이와 같이 협의로 해석하는 이들 가운데 혹자는 사도를 12명으로 국한시켜 유다를 대신하여 세운 맛디아를 제외시키고 바울을 12명의 사도 안에 집어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제자들이 맛디아를 뽑은 것은 그들의 실수였고 후에 명령해서 바울을 실제 대리인으로 지명하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거의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참조, 행1:24).
 (5)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도는 복음 전도자, 영적 임무를 띠고 파견된 자,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자를 나타내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나바, 에바브로디도, 아볼로, 실루아노, 디모데 등이 사도로 불리웠다(참조, 행14:14;빌2:25;살전2:6).
 (6) 이와 같이 광의적인 해석 방법을 취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모두 '사도'의 소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소명 의식이 투철한 자만이 참으로 사도로서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참조, 막1:17;눅6:13;행22:21).

4. ㉠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擇定)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1절)

- ㉠ (1)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2)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쁜 소식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던 것이다.
 (3)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이 복음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도록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택정함을 입었다(11:13;갈1:15)고 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어떠한 계획과 목적이 있게 마련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창12:1-3)이나 모세(출3:10)를 부르신 데에도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고, 선지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때에도 반드시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사6:8,9;렘1:4,5).
 (5) 오늘날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세상적인 조건을 기준하여 차별을 두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귀중한 존재임을 기억한다면 약하고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참조, 사1:16,17).

5. ㉠ 바울은 복음의 역사성에 대해 어떠한 말을 하였는가? (2절)

- ㉠ (1)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임시 방편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해하였다.

- (2) 그러나 바울은 본절에서 복음의 역사성을 명백하게 밝혔다. 즉 복음은 즉흥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 (3) 이러한 약속은 예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예언의 경우에는 단지 장차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 미리 알려 주는 것이지만 약속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책임과 사람들의 응답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이다(참조, 4:13-25; 9:4; 15:8).
- (4) 창세 전에 이미 복음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 우리는 감사 드려야 한다. 독생자 외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참조, 고후9:13; 엡1:13), 나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빌1:27).

6. **㉠**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3,4절)

- ㉠** (1)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3절) 이는 그의 인성(人性)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에 특별히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메시아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참조, 삼하7:12; 시132:11; 사11:1; 눅1:32,33).
- (2)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4절). 사실상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다.
- (3)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神性)의 두 가지 성품을 가지신 우리의 주이시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과 무관한 존재가 되고 만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품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주재이기 때문이다(참조, 마12:39,40).

7. **㉠**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가? (5절)

- ㉠** (1)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를 '우리'라고 언급하고 있다.
- (2) 만약 본문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를 본서의 저자 바울과 그의 독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수신자들에게는 사도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 (3)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우리'라는 말을 일종의 문학적 표현으로 바울 사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당시 헬라인 저술가들이 '나'(헬, 에고) 대신에 복수어 <헤몬>을 자주 사용한 데 근거하고 있다.
- (4) 또 하나는 바울 뿐만 아니라 로마 성도들이 알고 있던 다른 사도들 모두를 포함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 (5) 이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본절 후반부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는 귀절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6) '모든 이방인'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이방인들에 국한시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역의 범위와 장(場)이 명백히 이방인이므로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가리킨다는 전자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한다.
- (7) 그러나 그것은 '모든 민족'(all the nations) 혹은 '모든 백성'(all peoples)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후자의 견해를 보다 확고히 해준다(참조, 마28:19).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시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 (8) 따라서 우리는 어느 견해를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가 사도들에게 국한된 말이라는 점이다.

8. **Q**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인가? (7절)

- A** (1)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다.
- (2)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참조, 롬31:3) 또한 그 사랑을 결코 멈추시지 않는다(8:3-39).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5:8).
- (3)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간파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자기 자녀에 대한 관심은 끊어질 수 없는 사실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8:29,30). 그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불변의 것이다.
- (4) 이러한 놀라운 사실은 피로운 인생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용기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늘 함께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담대하여질 수 있는 것이다(참조, 시23편).

9. **Q** '성도'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7절)

- A** (1)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기를 즐겨 하였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2) 첫번째 의미는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의도한 가장 근본적인 의미이다.
- (3) 이 의미에 대한 좋은 실례는 행19장에서 발견된다. 거기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켜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에게 날마다 강론한 것을 볼 수 있다(행19:9). 그런 다음에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 주고 가르칠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이 성도라는 말의 참된 의미이다.
- (4)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별이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구별은 죄악된 삶에서의 구별과 더불어 영적인 불결에서의 구별을 의미한다.
- (5) 두번째 의미는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정결함을 입었다는 뜻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곧 칭의(稱義)를 얻었다는 말이다.
- (6)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성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고 있다. 대신 역사상 있었던 훌륭한 '성자'(聖者)들을 성도라고 부른다. 이것은 성도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7)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발견하게 된다. 곧 성도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특권이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참조, 갈5:16,25;엡4:1;5:2,8;골1:10;살전2:12;요이1:6;요삼1:3,4).

10. **Q**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어떠한 축복을 기원하였는가? (7절)

- A** (1)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였다.
- (2) '은혜'는 본질적으로 '아무 공로 없이 호의의 배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

- 로 말하면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애(慈愛)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을 '내리 사랑'이란 말로 흔히 부른다.
- (3) 그리고 '평강'은 단순히 안식과 평온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연합', '분리가 있는 뒤에 오는 연합'이라는 의미이다. 즉 어떤 경쟁자와 더불어 다름이 있는 후에 함께 모이고 화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 (4) 이 두 단어는 기독교 교리 전체를 대변하여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요 평강은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5)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원천이요, 샘이요, 근원이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평강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처럼 은혜와 평강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6)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영속적이고 본질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결코 이러한 축복이 있을 수 없다.
- (7) 사실 우리는 바울이 기원한 이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사로서 허락하여 주셨다(참조, 8:32;엡2:8).
- (8)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생의 슬한 고난의 가시밭 길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참조, 5:11,12; 요14:27;16:33).

11. ㉠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는가? (8절)

- ㉠ (1)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점이다.
- (2)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심장부였으므로 언제나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붐비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소문이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온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이다.
- (3)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이 맺은 열매, 즉 복음 전파의 파급력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하여야 한다.
- (4) 그들은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으며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다.
- (5)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겨 준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생활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 교회가 사상 유례 없는 성장을 해 온 것은 기쁜 일이지만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6)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잠1:31;사3:10;렘32:19;암6:12;고후9:10;갈5:22,23;빌1:11;약3:17,18).

12. ㉠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는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9,10절)

- ㉠ (1) 그것은 바울 자신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또 자기가 로마를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방문하고자 하는 열의나 목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 (2) 사실 대부분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다는 것은 거의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더우기 그의 로마 방문 지역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될 만했다.

- (3) 이러한 여러 가지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바울은 강조하여 이 말을 하였던 것이다.
13. ㉠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9, 10절)
- ㉠ (1) 첫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기도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참조, 엡6:18; 살전5:17).
- (2) 둘째, 그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였다. 그가 그들과 특별한 친분이나 이해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것은 그가 로마 교인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증거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없다.
- (3) 셋째,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다. 즉 그의 기도는 이미 결정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다(참조, 약4:15).
- (4) 그 동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왔는지 스스로를 돌아켜 볼 필요가 있다. 혹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난 것이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고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벗어난 이기적인 기도를 결코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참조, 마6:7; 약4:3; 요일3:22; 5:14).
14. ㉠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 (11-15절)
- ㉠ (1)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자 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 (2) 첫째,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하였다(11절). 잘한다고 칭찬해 놓고 다시 그들에게 견고하기를 바란 것은 그들의 신앙이 위로 밀려 가지가 무성해질 뿐 아니라 아래로는 뿌리가 더욱 깊이 내려지기를 원했던 바울의 심정을 잘 보여 준다.
- (3) 특히 그들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는 만큼 더욱더 견고하게 서 있을 필요가 있음을 바울은 간파하였던 것이다.
- (4) 둘째, 서로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원했다(12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혼자서 성장할 수 없다. 서로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위로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법이다. 교인과 목회자, 교인과 교인 사이에 이러한 교제가 넘칠 때 개인과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참조, 잠11:14,25).
- (5) 셋째,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다(12절).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성장한다는 의미의 열매 맺음을 배제하지는 않지만(갈5:22,23), 그것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참조, 고전9:22).
- (6)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열매 맺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을 보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명백해진다(마9:36-38; 11:28; 요4:35; 7:37,38; 15:1-8). 만약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마3:10; 요15:2,6; 히4:8).
- (7) 마지막으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14,15절). 그들 모두에게 바울은 자신이 빛진 자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바울의 체무자(債務者) 의식은 우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 전파를 명하셨기 때문이며 둘째는 자신이 핍박자였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8) 그래서 바울 사도는 헬라인과 야만인 모두에게, 즉 유식한 자(지혜 있는 자)와 무식한 자(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나아가 로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이다(참조, 고전9:16). 이것은 그에게 부여된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열망이었다.

15. **㉠**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全能)하심에 대한 언급이라기 보다는 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바울 서신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인간을 죄가 유발시키는 다음의 것에서 건져 준다.	인간을 다음과 같은 상태로 옮겨 준다.
a. 범죄(엡1:7;골1:14)	a. 의로움(3:21-26;5:1)
b. 타락(6:6,17;7:21-25)	b. 거룩함(6:1-4;12:12)
c. 종의 멍에(7:24,25;갈5:1)	c. 자유함(갈5:1;고후3:17)
d. 형벌	d. 축복
① 하나님 없는 상태(엡2:12)	① 하나님과의 교제(엡2:3)
② 하나님의 진노(엡2:3)	② 하나님의 사랑(5:5)
③ 영원한 죽음(엡2:5,6)	③ 영생(엡2:15;골3:1)

- (4) 그러므로 구원받다는 것은 최악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상태를 소유하는 것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계속되며, 또한 그 속에는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화의 단계가 모두 포함된다.
- (5) 하나님의 구원은 종족, 민족, 연령, 성별, 사회 계급, 교육이나 문화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참조, 사45:22;요4:42;딤후1:15).
- (6) 혹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는 귀절이 유대인에 대한 우월성과 우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귀절은 역사상의 우선(priority)을 의미하지 본질적인 우선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7) 그리고 여기 언급된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인하여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히11:1) 그분의 영원하신 팔에 의지하는 것이다.
- (8) 따라서 복음은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며 자랑이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는 이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참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참조, 고전1:23,24).

16. **㉠** 복음의 주제를 간단하게 한 귀절로 말하라 (17절).

- ㉠** (1) 복음의 주제는 본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말씀,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한 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 (2)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주제는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그는 합2:4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 (3) 이는 구원의 조건이 다름아닌 '믿음'이라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만약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참조, 3:20).
- (4)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2:8,9).

- (5)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것이다(참조, 엡2:1-5; 딤후1:9).

17. **㉠** 본장의 후반부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8-32절)

- ㉠** (1) 16,17절에서 복음의 주제에 대하여 언급한 바울은 곧 이어서 복음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밝히는 데 본장의 후반부를 할애하고 있다.
- (2) 이러한 순서는 적절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될 때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인간들 중에서는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3)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율법의 행위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 (4) 환언하면 복음 안에 나타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며,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언급된 인류의 비참한 상태가 곧 구원받기 전의 내 모습임을 깨달아 더 이상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참조, 3:10,19,23;6:1,2).

18. **㉠**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하여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시는가? (18절)

- ㉠** (1)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신다.
- (2)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불의로 반응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키고자 노력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킨다(참조, 2:15; 시14:1; 53:1; 73:11).
- (3) 한 걸음 더 나아가 특별 계시의 수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게 될 때 여전히 항복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말하기도 한다(참조, 막6:20,26,27).
- (4) 이러한 자들이 저지르는 죄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곧 '경건치 않음'(렐, 아세베이아)과 '불의'(렐, 아디키아)이다.
- (5) 전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부족에서 오는 죄이고, 후자는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롭지 못한 행위로, 십계명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요소들은 모두 인간 타락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 (6)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택한 자니인 우리에게서도 이런 죄의 양상이 자주 나타나는 데 있다. 물론 아직 성화(聖化)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늘 범죄의 가능성은 존재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매일 매순간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다(참조, 6:6; 엡4:22-32; 골2:11; 3:9,10; 히12:4).

19. **㉠**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8절)

- ㉠** (1)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 계속적이고도 불변한 반응을 의미한다.
- (2)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의분'(indignation)이다. 그런데 혹자는 복수심 같은 인간적 분노와 이것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 잘못이다.
- (3) 왜냐하면 인간적 분노는 그 기준이 자신의 감정에 있으며, 성질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나, 하나님의 진노는 기질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심판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참조, 13:4,5).

- (4) 이와 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근본적인 근거는 그분의 공의에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적 분노와는 전혀 다른 의로운 분노인 것이다(참조, 9:22; 요3:36; 엡5:6; 골3:6; 살전1:10).
- (5) 따라서 우리는 삶 속에서 자주 품게 되는 인간적인 분노를 모두 버려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타내야 할 분노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에 대한 정당한 의분이지 자신의 자존심에 근거한 감정적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참조, 창31:36; 출32:19; 사14:1,19; 삼상11:6; 15:16-31; 20:34; 막3:5).
- (6) 설혹 인간적인 분노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지라도 분한 마음을 오래 품어서는 안 되며(엡4:26) 노하기를 더디 해야 한다(잠14:17).

20. ㉠ 인간들이 자신들의 저지른 죄를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19, 20절)

- ㉠ (1) 피조물된 인간이 진리를 대적하는 죄를 변명할 수 없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다.
- (2)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인간들로 하여금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자연 만물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셨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변명할 수 없다. 이것을 흔히 신학적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한다.
- (3) 이러한 일반 계시는 진리를 거스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있음을 명백히 보여 준다. 그러나 일반 계시 그 자체만으로 인간 구원을 성취할 수는 없다. 일반 계시가 보여 주는 하나님의 실재는 극히 부분적이며 미미하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일반 계시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도 주어 졌다. 그러므로 진리를 거스리며 대적하는 자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는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21. ㉠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21-23절)

- ㉠ (1)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였다.
- (2)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에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몰랐다.
- (3)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여'졌는데 이것은 그 마음에 진리가 없고 거짓으로만 가득 차 있어 공허하며 무익하다는 의미이다.
- (4) 또한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비뚤어져서 바른 추론(推論)을 하지 못하며 그들의 정서조차 정상적이지 못하므로 그 생활에 기쁨과 평화가 없고 그들의 의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준행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 (5) 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수(禽獸)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 (6) 이것은 앞절의 결과로 생긴 종교적 타락과 부패 상태를 보다 세밀하게 묘사한 것이다. 이방 민족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 (7) 이 우상 숭배는 바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비록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우상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잡고 있다. 인본주의는 교묘

하게 인간 숭배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입시켰고, 메카니즘(machanism)은 우리에게 물질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이외의 것이 있으면 그것은 모두 우상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 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겠다(참조, 고전10:14,18-22; 요일5:21).

22. **㉠** 인간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한가? (24, 25절)

- ㉠** (1)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욱되게 하셨다.
- (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버려두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이러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참조, 사19:22; 고전5:5; 딤후1:20; 뱀전3:20).
- (3) 그러나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시어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 당하도록 놓아두셨다는 뜻이다(참조, 살후2:3-12).
- (4)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다. 차라리 징계는 이보다 더 슬픈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갈파(喝破)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私生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히12:7,8).
- (6) 한편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지 않으면 인간들은 영적으로 욱적으로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참조, 롬3:23).

23. **㉠**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과는 달리 바울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였는가? (25절)

- ㉠** (1) 인간들의 더러운 죄악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바울 사도는 돌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 (2) 이 귀절은 하나님의 성호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송영귀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귀절을 단순히 관습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 (3) 오히려 이전에는 혹독한 핍박자였던 자신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섬기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는 억제할 수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왔던 그의 신앙의 절규라고 할 수 있다.
- (4) 비록 많은 피조물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우리는 모두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 깊이 확신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참조, 9:5; 11:36; 16:25-27; 고후1:3; 9:15; 11:31; 엡1:3; 3:20,21).

24. **㉠** 사람들이 저지른 ‘부끄러운 욕심’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26, 27절)

- ㉠** (1) 사람들이 저지른 ‘부끄러운 욕심’이란 한 마디로 성적 타락을 말한다.
- (2) 앞에서 먼저 영적 타락을 언급한 뒤에 도덕적 타락을 언급한 순서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와 더불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 (3) 여기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쓴다는 말은 부부간에 허용된 성 행위를 불의하게 사용한다는 뜻이다. 특별히 여기서는 방탕한 동성애(同性愛) 행위 또는 남색(男色)을 비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참조, 창19:4-9; 레18:22; 20:13; 신23:17,18; 사19:22-24; 왕상14:22; 고전6:9,10; 엡4:19; 딤후1:10; 뱀후2:6; 유1:7).

- (4) 그렇다고 성적인 본능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 성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의 지배를 받아 방종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성 행위가 오직 부부사이에 허용된 것일 뿐(창2:24;마19:5;막10:7,8;고전6:16;엡5:31) 그 밖의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 (5) 이러한 성적 타락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당한 보응을 하신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6:7,8).

25. ㉠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28절)

- ㉠ (1)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 (2)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만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는 커녕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자의 본성이기도 하다.
- (3) 이러한 자들의 관심은 영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쾌락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 (4) 그러나 죄의 흑암 속에서 빛되신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속에는 내세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비참한 종국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참조, 시37:35,36;잠15:26;16:4;21:12;딤후4:14).
- (5)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 지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꺼이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참조, 사43:1;요15:1-6).

26. ㉠ 하나님은 당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보응을 하셨는가? (28-31절)

- ㉠ (1)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셨는데, 곧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 (2)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력이 마비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양심에 거리낌도 없이 온갖 부도덕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 (3) 29절 이하에 열거된 많은 악의 목록에서 어떤 조직적인 분류를 찾아내 보려는 시도는 인위적이므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도 바울은 단지 자기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관찰해서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나열한 것 뿐이다.
- (4) 여기서 우리는 ① 사도 바울이 인간 성품의 타락을 하나님께 대한 배교로 규정지었다는 사실과, ② 그가 이런 도덕적 상태에 내린 평가가 대단히 심각했다는 사실과, ③ 인간의 타락이 초래하는 구체적인 양상에 관해 폭 넓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7. ㉠ 사도 바울이 언급한 죄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29-31절).

- A (1) 사도 바울은 여기서 총 21가지의 죄악을 언급하였는데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2)

번호	죄의 목록	의 미
1	불 의	대인관계(對人關係)에 있어서 의롭지 못한 행위 바르지 못
2	추 악	한 일 행하기를 즐기는 마음

3	탐 욕	보다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열망. 이 단어는 이따금 엡5:3에서와 같이 성적인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회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을 주장하는 데에 적용되기도 한다
4	악 의	남을 해하고자 하는 의롭지 못한 마음
5	시 기	자기가 몹시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때 느끼는 예민한 불쾌감
6	살 인	악의나 시기가 유발시킨 결과. 아벨을 살해한 가인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창4:1-8; 요일3:12). 또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으려 한 자들의 경우도 그러하다(마27:18; 막15:10)
7	분 쟁	싸우기를 좋아하는 기질과 그에 따른 결과를 의미한다
8	사기(詐欺)	교활함과 배반함
9	악 독	양심, 원한,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열망
10	수군수군하는 자	비밀리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
11	비방하는 자	공개적으로 타인을 욕하는 사람
12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무시하는 자
13	능욕하는 자	자신만이 대단한 존재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무가치한 듯이 남을 경멸하는 자
14	교만한 자	자신을 과대 평가하여 타인 뿐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자
15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를 '자랑하는 자'이다(고전13:4)
16	악을 도모하는 자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중상 모략하는 일에 쾌감을 느끼는 자
17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불효자(참조, 출20:12; 레19:3; 잠20:20; 엡6:2)
18	우매(愚昧)한 자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
19	배약(背約)하는 자	약속을 멋대로 파기하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자로 신뢰 할 수 없는 자(시73:15; 78:57; 119:158)
20	무정(無情)한 자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
21	무자비한 자	자비롭지 못한 사람, 잔인한 사람, 냉혹한 사람을 의미하는 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와 제사장, 레위인 등이 모두 이 부류에 속한다(눅10:30-37)

(3)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도 무장하고 하나님을 신뢰와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막14:38; 요4:24; 엡6:10-18; 벧전4:7).

28. **Q** 사도 바울은 부패한 이방 세계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가? (32절)
- A** (1)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옹다 하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렸다.
- (2) 먼저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정하심'은 앞 귀절에 언급된 대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참조, **Q**20).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를 변호하고 정당화하며 범

죄하도록 부추겼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왜냐하면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면서 지은 죄,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약4:7) 지은 죄는 더 큰 형벌을 받기 때문이다.

- (4) 이러한 바울의 결론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깨우쳐 주는 동시에 믿음을 통한 구원[以信得救]의 당위성을 밝혀 주고 있다.
- (5)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부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9:15; 살전2:13).

연구자료

계시(啓示)란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신학자들이나 목사들로부터 기독교와 유대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啓示)에 입각한 종교라는 말을 듣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계시' (revelation)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연이나 인간의 양심 또는 성경이나 그밖의 특수한 매개체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 및 인간을 위하여 가지고 계시는 자신의 계획을 알려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방법 또는 매개체에 의해 '자연 계시' (natural revelation)와 '초자연적 계시' (supernatural revelation)로 구분된다. 여기서 '자연 계시'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양심(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참조, 19, 20절)을 뜻한다. 그리고 '초자연적 계시'란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 직접적인 현현(顯現) 또는 성경 등과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뜻한다(참조, 마1:18-24). 둘째, 전달되는 계시 내용에 따라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와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일반 계시'란 하나님 자신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 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20절). 그러나 '특별 계시'란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요3:16, 17). 한편 이상과 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란 말을 교호적(交互的)으로 쓸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제 2 장 하나님의 심판 원리와 유대인의 죄

답락구분 1-4 바울이 유대인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다 / 5-11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설명하다 / 12-16 율법과 그에 대한 유대인의 책임에 대하여 말하다 / 17-20 율법에 대하여 가지는 유대인의 긍지 / 21-24 행함이 없는 유대인의 잘못들을 지적하다 / 25-29 참유대인에 대하여 정의하다

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11 이는 하나님께서 의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17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18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19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1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22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23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5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26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28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1. **㉠** 바울이 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1) 바울은 본장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동일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2) 그래서 본장의 논리 전개 방식이 1:18-32과 상당히 유사하다. 바울의 고발은 처음에는 폭넓게 진술되고 있으며,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에 대하여 전혀 암시를 주지 않고 있다(참조, 1절; 1:18).
- (3) 그러나 우리는 그 묘사가 점차로 전개되면서, 전장에서 이방인들이 초점의 대상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본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고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뚜렷이 느끼게 된다.
- (4)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며 할례도 받았으므로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17-20절). 그러나 바울은 행함이 있는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율법과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갈파(喝破)하였다(25-29절).
- (5)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존재들이므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12, 16절).
- (6)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3:20, 23; 6:23).
- (7)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3:9-12).

2. **㉠**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보응을 받게 되는가? (1-3절)

- ㉠** (1) 그는 자기가 남을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판단, 즉 정죄함을 받게 된다.
- (2) 이 말의 뜻은 고후5:10에 잘 표현되어 있다. 즉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 (3)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영적 교만의 죄를 범하였다. 그 한 예로 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였으며 심지어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던 것이다.
- (4) 그 주된 이유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 역시 부도덕하고 사악한 것은 마찬가지로였으므로 비록 우상 숭배자들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22절).
- (5) 사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많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지나치리 만큼 관대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을 깨닫는 자들은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이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7:3; 눅6:42).

3. **㉠**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4절)

- ㉠** (1) 유대인들이 그들을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인내하심을 멸시했던 사실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알 수 있다.
- (2) 그런데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적은 결코 유대인으로 하여금 자기 만측에 빠지게 하려는 데 있지 않았고 다만 그들로 회개케 하시려는 데 있었다.
- (3) 여기서 '회개'란 잘못을 깨닫고 통회 자복한 뒤,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참조, 행2:37, 38; 8:22; 9:35).
- (4)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으므로 이방인들처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 (5) 한편 '멸시한다'는 말은 어떤 것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는 것이며 그것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에는 조소와 경멸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 (6)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은혜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대로 평가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계시를 배척해 왔던 유대인의 불신앙을 다루고 있음이 분명하다.
- (7)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회개 시키려고 애쓰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오만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피려야 하겠다(참조, 뱀후3:9).

4. ㉠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그것은 그들이 앞절에서 언급된 죄악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죄를 범하는 것은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죄악의 길로 치달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에게 진노를 쌓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참조, 신32:34; 욥14:17; 겔8:17).
- (4)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제될 수는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범죄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시145:9) 공의로우시며(시89:14) 악을 미워하시는 분(시5:5,6)이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하며, 설혹 범죄하였을지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행8:22).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참조, 요8:33-44; 9:39-41; 살후1:8,9).

5. ㉠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무엇인가? (6-8절)

- ㉠ (1)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 (2)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집행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면, 이것은 아무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본 서신의 주제와 모순된다는 오해를 낳기 쉽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각각 '그 행한 대로'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전반에 흐르는 사상이다(전11:9; 12:14; 마16:27; 25:31-46; 요5:28,29; 고전3:12-15; 엡6:8; 계2:23; 11:18; 20:12,13).
- (4) 그러나 우리는 구약(율법) 시대의 '행위'와 신약(복음) 시대의 '행위'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 (5) 즉 율법 시대의 행위는 바로 구원의 조건이긴 하지만 행위가 구원의 원인은 될 수 없다. 율법 시대에도 구원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엡2:8) 반면에 복음 시대의 행위는 구원의 결과이다. 따라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외적인 증거로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참조, 약2:17,18,22,26).
- (6) 한편 교회 내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는 행위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7절)을 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배척하고 불의를 따른다'(8절).
- (7)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며(요15:1-8),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롬6:3-23), 끝까지 인내하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벧후1:5-11).

6. **㉠**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누구인가? (9-11절)

- ㉠** (1)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나 그렇지 못한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2) 이것은 ‘각 사람의 영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나님께서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등의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 (3)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지만 이방인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였으므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심판의 대상에서 자신들을 제외시켰다.
- (4)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잘못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좋은 증거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11절).
- (5) 즉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인 특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이다(참조, 대상29:17; 잠16:2; 히4:12).
- (6)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진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한다. 그 첫째는 선민이라고 뽑내며 자랑하던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 특권을 누리지못하던 이방인이다(골3:11).
- (7)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즉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적절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참조, 행10:34,35; 골3:24; 계7:15).

7. **㉠**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하시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困苦)를 주신다.
- (2) 여기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라는 말은 보편성(普遍性)을 강조해서 언급한 말이므로 ‘영’이 환난과 곤고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영(Soul)이라는 말은 흔히 사람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많이 쓰인다(참조, 13:1; 행2:41,43; 3:23).
- (3) 그리고 ‘환난’은 외적인 육체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한 형태로 언급되어 있다(참조, 창3:16,17; 레26:14-20; 신8:23; 대하33:12; 벧전1:5-8).
- (4) 또한 ‘곤고’는 내적인 마음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평강이 상실된 상태인데 이는 하나님께 범죄하거나(대하28:19-22) 불순종함으로(사22:12-14) 주어지는 결과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내적, 외적 고통이 주어질 때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아 우리의 잘못이 원인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없다(참조, 사57:15; 겔18:31; 마5:4; 눅15:7,10; 행11:18).

8. **㉠**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보응을 하시는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축복을 내려 주신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는 세상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활 후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과 존귀와 동일하기 때문이다(요17:22; 고후3:18; 골1:27; 딤후2:10; 히2:9,10).
- (3) 그리고 ‘평강’은 육신의 안락이나 감정의 평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변화된 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참평화를 의미한다(참조, 레26:6; 사51:7-10; 요14:27; 16:33; 눅24:36; 행2:28; 롬8:6; 살후3:16).

- (4)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들이 행하는 선행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신자가 믿음으로 받게 된 구원을 확증해 줄 뿐이다(6:22). 따라서 선행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참조, 엠2:8-10).
- (5) 그러므로 성도들이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풍성한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 늘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참조, 호10:12; 고전3:13-15; 갈6:7-10; 딤후2:21; 3:17).

9. **㉠**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2절)

- ㉠** (1) 본 귀절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판단을 받으리라는 명제(6-11절)를 보다 분명하게 확정 짓는 말이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데에 관심을 두신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 (3) 비록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일지라도 자연 계시나 양심의 법대로 온전히 살면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받지 않지만 유대인일지라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참조, 1장 **㉠** 20, 21).
- (4)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지 살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8:4; 살전2:10; 살후3:7; 딤후2:7, 8).

10. **㉠**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가? (13절)

- ㉠** (1)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 (2)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얻는 칭의와 율법의 행위로 얻는 칭의 사이를 대조하기 위하여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 (3) 오히려 이것은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들과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대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마7:24-29).
- (4) 그러므로 이것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복음을 듣는 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일에 더욱더 정진해야 하기 때문이다(참조, **㉠** 9).
- (5) 사실상 성도들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에 대하여 헌신으로 응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참조, 6:13, 19; 14:17; 고전6:9; 벧후3:13; 히12:23).

11. **㉠**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일지라도 범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14, 15절)

- ㉠** (1) 사람이 율법을 모르고 죄를 범하든 알고 범하든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12절) 자칫하면 불공평한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
- (2)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바울은 여기서 분명한 이유를 밝혀 놓았다. 즉 이방인이 비록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는데 그것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이다.

- (3) 바울이 여기서 율법의 기본적 요구 사항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사실 때문이다(창1:26-28).
- (4) 따라서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범죄했을 때는 변명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참조, 1장 20).

12. ㉠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16절)

- ㉠ (1)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 (2) 즉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고 내면적인 동기와 목적 그리고 비밀리에 행한 것들도 역시 심판하신다는 말이다.
- (3) 그런데 그날에는 숨은 봉사가 보상을 받을 것이요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 처벌을 받으며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참조, 행10:34).
- (4) 또한 하나님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므로'(시139:12) 어두움 가운데서 행해진 것 밝히 드러나게 행해진 것을 모두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저지르는 은밀한 죄악까지도 지체 없이 회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참조, 전11:9; 마12:36; 고전4:5).

13. ㉠ '유대인'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라(17절).

- ㉠ (1)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왕하16:6에서이다.
- (2) 포로 시대 이후 팔레스틴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비롯한 여러 지파가 섞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불리웠다.
- (3) 이 명칭은 그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던 그들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참조, 스후8:3; 갈2:15; 계2:9; 3:9).
- (4) 여기서 사용된 '유대인'이라는 명칭도 이러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14. ㉠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17-24절)

- ㉠ (1)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는 실로 대단하였다(17-20절).
- (2) 사실 그러한 축복은 유대인들만 누리던 특권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축복에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 (3) 특히 바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지나친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책임과 의무에는 무관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21-24절).
- (4) 그것은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말씀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막7:6).
- (5)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성도임을 자랑만 하고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다(참조, 약1:22-25).

15. ㉠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7절)

- ㉠ (1) 원래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율법을 자신의 생활과 행동의 규범으로 삼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 (2)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지극히 올바른 일이다. 그것은 '여호

와의 율법을 즐거워'(시1:2) 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일치하는 것이다(참조, 시119편).

- (3)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말하며 생각한 것은 그들이 단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도감과 우월감을 느낄 뿐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발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참조, 미3:11; 요5:45).
- (4) 그것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여 책망한 말 속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21-24절). 만일 그들이 율법을 진심으로 의지했다면 그들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 (5)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참조, 약2:26),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참조, 막7:6; 딤후3:15-17).

16. ㉠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7절)

- ㉠ (1)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교제를 자랑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이방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신을 섬기며 그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의미이다.
- (2) 그런데 더럽고 부패한 인간들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참조, 신7:6-8).
- (3) 그러나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 (4) 그리하여 영적으로 교만해진 그들의 신앙은 형식주의로 흘렀고, 그들은 이방 민족들을 짐승과 같이 취급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내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참조, 눅18:9-14).
- (5)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어떤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참조, 엡2:7-10).

17. ㉠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는가? (18절)

- ㉠ (1)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결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 (2) 이처럼 주권적이고 절대적이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일 뿐이다.
- (3) 그 한 예로 바울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개종하기 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 선 자였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참조, 행9:1-5; 빌3:6).
- (4) 또한 하나님의 율법은 죄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다(3:19,20).
- (5)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말

숨은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며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낱알이 비추어 준다.

- (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3:16,17).

18. ㉠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어떤 자로 자처하였는가? (19, 20절)

- ㉠ (1)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었다.
- (2) 그들이 그렇게 자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라는 귀절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했던 것이다.
- (3) 여기에 언급된 '소경', '어두움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등은 모두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없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표현은 적절하다(참조, 사42:6,19; 고전3:1; 열4:14; 히5:13).
- (4) 그러나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가르치는 자로 자처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소유했고 그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 (5)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마15:14).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불신자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특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임을 맡은 목회자나 교사들은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참조, 마23:15-24; 눅6:39).

19. ㉠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 유대인들을 책망하였는가? (21-23절)

- ㉠ (1) 그는 율법을 소유한 데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실천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죄악된 모순성을 책망하였다.
- (2)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21절)는 질문은 바로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순을 잘 지적한 것이다(참조, 마23:3).
- (3)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세 가지 구체적인 죄목, 즉 도적질, 간음, 우상의 제물을 훔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하던 것으로 유대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릇된 특권 개념으로 말미암은 자기 만족에서 떠나게 할 목적으로 언급되었다(참조, 시50:16-18).
- (4) 한편 사도 바울의 책망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훈을 준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자신의 행위로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이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다(참조, 마23:34).
- (5) 또 하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보여 준다(참조, 3:10-16).
- (6)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여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견지해야만 한다.

20. ㉠ '신사(神社) 물건'을 도적질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22절)

- ㉠ (1) 신사 물건 도적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학자들간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 (2) 하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거나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진 성물을 도적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이고, 또 하나는 문자 그대로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도적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 (3) 전자의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 말기의 종교적 타락을 그 증거로 내세운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십일조와 헌물'을 속이고 도적질하여(말3:8,9) 착복하고 자기들 멋대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 (4) 또 한 가지의 증거로 성경의 어디에도 유대인들이 이방 신전에 바쳐진 물건을 도적질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내세우기도 한다.
- (5) 그러나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만일 유대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훔치는 것과 유사한 일들을 전혀 행하지 않았거나 행할 위험조차 없었다면 신7:25에서 그토록 엄격하게 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6) 더우기 행19:37에서 에베소의 서기장이 분노하는 무리들 앞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극구 변호하여 그들이 '전각의 물건'을 훔친 일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신전의 성물을 훔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전혀 없는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7) 게다가 본 서신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상의 도시인 로마로 보내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후자의 견해처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8)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견해는 각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으므로 어느 견해가 옳다고 쉽게 말할 수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21. **㉠** 유대인들의 범죄가 하나님의 이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24절)

- ㉠** (1) 유대인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았다.
- (2)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사52:5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인용 형식은 70인역(LXX)과 유사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이사야서의 직접적인 표현을 바울이 간접적인 말로 번역한 것뿐이다.
- (3) 그런데 이 양자는 문맥상으로 볼 때 그 의미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사52:5은 한 민족이 정복당하거나 추방당하면 그 신(神)도 똑같이 정복당하는 것이라는 당시 이방인들의 사상을 고려하고 있다. 즉 정복당한 민족의 신은 무능한 신으로 낙인 찍혀 모욕을 받았던 것이다(참조, 겔36:20-23).
- (4) 그러나 본절은 그러한 의미에서 인용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민족의 신이 악하면 그 백성들 역시 그들의 신을 닮아 악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유대인들이 사악(邪惡)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하나님 역시 그러한 존재임을 대변한다고 이방인들은 생각하였다는 뜻이다.
- (5) 그런데 이 두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즉 두 경우 모두 유대인들이 빛된 삶을 살지 못한 결과라는 점이다.
- (6)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정복당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도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은 것도 유대인들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이다.
- (7)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칭송의 대상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수치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계의 현실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겠다(참조, 눅22:65; 딤후전1:13,20).

22. **㉠**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5절)

- A** (1)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양피(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인데,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상징으로 출산 후 8일만에 행하는 종교적 의식의 하나였다(창17:10-14).
- (2) 그런데 할례는 이스라엘의 어린이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부리는 종들도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이라도 유허절을 지키기 원할 때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다(출12:48,49).
- (3) 한편 이 의식은 고대 세계에서 널리 행해졌는데 결코 히브리인들만의 고유한 의식은 아니었다. 바벨론인과 앓시리아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셈족 사람들과 이집트인들 가운데서도 행하여졌다.
- (4) 고대 히브리인들과 인접해서 살던 민족 중에 오직 블레셋 사람들만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히브리인들은 그들을 '무할례자'로 부르며 경멸하였다(참조, 사14:3;15:18;삼상14:6;17:26,36;삼하1:20;대상10:4).
- (5) 그러나 비록 할례 예식이 여러 이방 민족들 사이에게 실시된 보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던 할례는 그 의미하는 바가 달랐다. 즉 할례는 몸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형성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참조, 창17:10-14).
- (6) 이 육체적인 할례가 주는 상징적 의미는 신약 시대의 '세례'와 그 의미가 같은데, 그것은 바로 '중생'을 의미한다(참조, 신10:16;30:6;렘4:4).
- (7)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았으며(갈6:13)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다는(행15:1)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 (8) 이것은 마치 현재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의 직급을 내세워 자랑하는 폐단과도 비슷하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요3:5,8;엡2:4,5) 항상 겸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갈6:14;약4:16).

23. C 율법 준수와 할례와의 관계성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바는 무엇인가?(25절)

- A** (1) 바울 사도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각각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2) 즉 이방인들이 받지 못한 할례를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율법 준수가 뒤따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사실상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고 악하여 하나님을 늘 대적하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할례와 율법 준수의 관계성을 통하여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1:17;3:21-24;5:1).

24. C '만약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25절)

- A** (1) 할례는 이미 앞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의 언약에 대한 표이며 보증이다.
- (2) 그러므로 이것을 떠나서 약속과 은혜와 언약의 특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며 어리석은 일이다.
- (3) 또한 율법 준수는 언약을 지키는 행위와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할례·무할례가 되게 만드는 것은 언약의 규정에 불성실한 것이며 그것을 구약적 용어

말하면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 (4) 환언하면 본 귀절은 할례가 지닌 의미와 관련해서 언약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의무가 무시되고 파괴될 때 할례는 무할례가 되며 유대인이라는 외적인 표는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린다.
- (5) 따라서 본 귀절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을 때 유대인으로서의 지위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오히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보다도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며, 동시에 더 밝은 빛을 받고도 죄를 지은 까닭에 그만큼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참조, 렘9:25,26;엡2:11,12).
- (6)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 준수를 통한 성실한 신앙 자세를 갖출 때에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주일에 한 번만의 예배로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자위하지 말고 날마다 주의 계명을 실천하는 살아 있는 신앙인의 상(像)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5. ㉠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무할례자로부터 판단을 받는가? (27절)

- ㉠ (1) 의문(儀文)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무할례자로부터 판단을 받는다.
- (2) 물론 이방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고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외적인 특권을 누리는 유대인일지라도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경멸하고 판단하던 이방인들(무할례자들)보다 더 못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 (3)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외적인 조건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범법자(犯法者)로 고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 (4)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성도라는 외적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그 증거가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마3:10;21:19;요15:2;히6:8).

26. ㉠ 참 유대인은 누구이며 참 할례는 무엇인가? (28, 29절)

- ㉠ (1) 참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裏面的) 유대인'이며, 참할례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이다.
- (2)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란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일 뿐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을 말한다. 반면에 '이면적 유대인'이란 사람의 은밀한 생각과 삶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대인을 가리킨다(시139:1-6;롬2:16;히4:13).
- (3)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란 율법의 의문(儀文)에 따라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말한다.
- (4) 그러나 '마음에 하는 할례'란 마음속의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즉 마음을 새롭고 정결하게 하는 것(참조, 레26:41;신10:6;렘4:4;9:26;겔44:7)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롬7:6;고후3:6,18;갈5:16-23).
- (5) 이와 같이 '표면적' 유대인이나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외적인 형식들이 나쁘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 (6)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마음을 정결케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신10:16;30:6).

제 3 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단락구분 1-2 유대인들의 특권 / 3-4 하나님의 신실성(信實性) / 5-8 하나님의 공의성(公義性) / 9-18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 19-20 율법으로는 정의를 받지 못한다 / 21-26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다 / 27-31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1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2 법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3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4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 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니라 함과 같으니라

5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6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9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요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16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1. ㉠ 사도 바울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강조하였는가?

- ㉠ (1) 그는 1:18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하늘로 쫓아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본장에서 그는 일련의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전인류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증명하였다.
- (2)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음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9-20절).
- (3) 그렇다면 죄인된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던 바울은 21절 이하에서 다시 본서신의 주제로 돌아간다(참조, 1:16,17).
- (4) 그는 ‘하나님의 한 의(義)’(21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강조하였다(26절).
- (5) 이는 실로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전인류에 대한 복음이 아닐 수 없다. 바울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1:18-3:20까지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인류의 죄악을 지적하고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인류의 운명을 묘사하였던 것이다.
- (6) 오늘날 성도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헤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참조, 26절;8:32).

2. ㉠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은 무엇인가? (1,2절)

- ㉠ (1)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참조, 시147:20;사5:5,6; 암3:2,3;마22:1-8;눅13:6;14:16,17,24),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점이다.
- (2)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로기아>인데 이는 본래 신탁(神託)이라는 뜻을 지닌 말로 여기서는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
- (3)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그것은 그들이 그 말씀의 관리자이며 전달자라는 뜻이다.
- (4) 이처럼 모든 민족들을 대신하여 유일하게 말씀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모든 민족 가운데 그보다 더 높은 지위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째가는 행복이 아닐 수 없다(참조, 신4:8;33:3;시142:20).
- (5) 이제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열심히 증거해야 하겠다(참조, 마28:19,20;행1:8).

3. ㉠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할 수 있는가? (3, 4절)

- ㉠ (1) 유대인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결코 폐할 수 없다.
- (2)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유대인들이 그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박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폐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3)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다(참조, 시116:11;119:9,160;렘10:10).

- (4)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보다 확고히 증명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의 말을 부가적으로 인용하여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였다.
- (5)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의 시인 시51:4을 인용한 것으로 문맥상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다.
- (6) 그러나 바울이 이 인용귀를 통하여 논증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혹 심판을 받으시는 일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이며, 그분은 반드시 승소(勝訴)하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 (7)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이다(참조, 시117:2).

4. ㉠ 도덕 폐기론자(道德廢棄論者)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무엇인가?(5-8절)

- ㉡ (1) 도덕 폐기론자들의 주장은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그들의 죄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분께 영광이 된다면 그들이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2) 혹자는 바울의 주장이 도덕 폐기론자들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비방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도덕 폐기론자들의 주장과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 (3) 즉 만일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거나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던 것이다.
- (4) 따라서 그들은 심지어 선(善)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5) 그러나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참으로 단호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며(시89:14; 사30:18; 행17:31; 벰전2:23), 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참조, 6: 12).
- (6)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불의한 수단을 합리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일각에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비일 비재(非一非再)하게 발견하는데 심지어 종교계에서조차 그러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 (7)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결과 못지 않게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아울러 기억해야 한다(참조, 살후2:12; 딤후2:19; 벰후2:13; 요일1:9).

5. ㉠ 바울은 전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9-18절)

- ㉡ (1) 바울은 본서1:18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 (2) 즉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에게(1:18-32), 유대인에게(2:1-3:8), 그리고 전인류에게 나타난다는 말이다(3:9-20).
- (3)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부분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인류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세계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한다.
- (4) 특히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인류가 갖고 있는 죄의 보편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다(10절-시14:3; 11절-시14:2; 53:3; 12절-시14:3; 53:4; 13절-시5:9; 13:4; 140:3; 14절-시10:7; 17절-사59:8; 18절-시36:1).
- (5) 한편 이 부분에서 비유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몸의 지체들, 즉 목구멍과 혀와 입술(13절), 입(14절), 발(15절), 눈(18절) 등은 인간의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표현들이다.

- (6)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전존재(全存在)가 죄의 영향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롬3:23).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요일1:9).

6. **Q** 유대인의 우월성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무엇인가? (9절)

- A** (1)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 모든 민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특권을 누려 왔다(1, 2절).
 (2)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죄(定罪)를 피할 수 있는가?
 (3) 이에 대해 바울은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단호하게 대답한다(참조, 2:1-29).
 (4)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사망과 저주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다(마8:11,12).
 (5)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벧전4:17).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더욱더 준엄하신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7:1-23).

7. **Q** 악인이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가? (18절)

- A** (1)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지 못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하나님으로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신(神) 인식을 바로 한 자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신앙이다(고후7:1; 골3:22).
 (3)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시36:1)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시14:1)고 한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요 타락의 원천이다(비교, 잠1:7).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신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삶의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히12:28; 벧전2:17).

8. **Q** 율법과 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19, 20절)

- A** (1)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9절).
 (2)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시143:2).
 (3)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참조, 눅11:46,52; 요7:19; 갈6:13).
 (4) 그렇다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가?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갈3:19).
 (5) 즉 율법은 인간의 죄를 낱알이 하나님께 고발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이 두려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참조, 롬7:24).
 (6) 이렇게 볼 때 율법은 인간의 죄를 폭로할 뿐이지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행13:39; 딤후전1:9,10).

(7)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명백히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1:29-31; 갈5:19-2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식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신다(시51:17).

9. **㉠** 바울은 성경이 요구하는 바에 대한 유대인의 실패가 어떻게 나머지 인류를 심판 아래 둘 수 있다고 유추하는가? (19절)

- ㉠** (1) 유대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나(창12:1-3), 온 인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자신의 사명(출19:6)을 잘 감당치 못했다(참조, 사30; 렘3:11; 겔2:3).
- (2) 이와 같은 유대 민족의 실패는 온 인류의 실패가 된다. 즉 만일 다른 민족들이, 유대 민족이 누린 것과 똑같은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유대 민족과 비슷하게 실패하였을 것이다.
- (3) 왜냐하면 그들의 인간적 본성 역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보다는 죄악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1:18-32; 욥15:16; 시52:3).
- (4)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인간은 이 사실에 대해 입을 열어 변명할 수가 없으며(참조, 계3:17) 다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뿐이다(참조, 사54:5,6).

10. **㉠**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며,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21, 22절)

- ㉠** (1) 하나님의 의(義)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리킨다.
- (2) 이 의는 '율법의 의', 즉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상과 반대가 된다(2:4).
- (3) 또한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21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구약)과 선지자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에 대해 예언하였음을 의미한다(참조, 단9:24; 합2:4; 행10:43).
- (4) 한편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인듯이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23, 24절).
- (5) 위에서 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되는 이 의(義)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시119:137; 145:17).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타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참조, 잠20:6; 30:12).
- (6) 그러나 비록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타인을 정죄하며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실제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 내세우는 '의'는 자기 도취에 불과할 뿐이다.

11. **㉠** 바울의 인간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23절).

- ㉠** (1) 바울은 본절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밝히고 있다(참조, 갈3:22).
- (2)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이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벽을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이며 복음주의 신학의 기본 원리이다(참조, 시53:3; 요일1:8).
- (3) 그러나 이와 달리 로마 카톨릭 교회(Roman Catholic Church)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아직도 인간에게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품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선한 자질을 부단히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4) 이러한 주장은 '만물이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되는 자연 신학(自然神學)의 발상(發想)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특별 계시에 모순되는 비성경적인 이론이다.

- (5)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과소 평가하는 이러한 주장은 참으로 위협스러운 자유주의적 사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성도들은 마땅히 이같이 그릇된 교리를 경계하며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11:4; 골2:8-23).

12. ㉠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23절)

- ㉠ (1) 이 귀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 그 해석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첫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인간의 생활의 원리는 그 어느 누구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속한 것이기에 모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다(W. H. Thomas).
- (3) 두번째 모든 사람이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 (참조, 2:7; 5:2; 8:18,30; 고전15:43; 고후4:17; 골1:27; 3:4; 딤후2:10)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Ridderbos).
- (4) 그 다음 세번째 해석은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C. Hodge, J. Denny, C. R. Erdmann, R. C. Renski, R. Knox).
- (5) 마지막으로 네번째 해석은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1:27)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Murray, Harrison, Van Leeuwen-Jacobs, U. Wilckens).
- (6) 그런데 본절의 전후 문맥을 볼 때 마지막 해석이 가장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창3장)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참조, 20:18,21; 민4:15; 17:13).

13.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 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4절)

- ㉠ (1) '구속'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폴뤼트로시스>는 '속전(贖錢)을 지불하여 해방시킨다'는 뜻이다(눅21:28; 고전1:30; 엡1:7,14; 4:30; 골1:14; 히9:15; 11:35).
- (2) 원래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9절; 사53:6).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5:8; 벰전2:24).
- (3)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일컬었다.
- (4) 이와 같은 은혜는 결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베풀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시138:2; 사63:7).

14. ㉠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가? (24절)

- ㉠ (1)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오>는 원래 '무죄를 선언하다'라는 뜻을 지닌 법률 용어이다(Living Bible, declares not guilty).
- (2) 구약 시대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법정에 출두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졌다(출23:7; 신25:1).
- (3)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 (4)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기 위한 근거를 죄인들 안에서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내신다.
- (5) 즉 하나님은 당신의 엄청난 은혜로 악한 자를 선한 사람인 양 취급하신다(참조, 호6:6).
- (6)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을 매우 놀라게 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악한 사람을 선한 사

람같이 여긴다는 것은 부정한 재판관이나 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이다(참조, 출23:7; 잠17:15).

- (7)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다(마9:13).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 주신다(사1:18; 요일1:9).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엡1:7; 2:5-10).

15. ㉠ '화목 제물'이란 말을 구약의 제사와 관련시켜 설명하라 (25절).

- ㉠ (1) '화목 제물'로 번역된 헬라어 <힐라스테리온>은 '속죄소' (출25:17-22; 히9:5) 또는 '속죄물' (요일2:2; 4:10)이란 의미를 지닌다.
- (2)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음을 말하고 있는 본절에서 후자 곧 '속죄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IV, a sacrifice of atonement).
- (3) 한편 레16:14-16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번씩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각각 속죄소의 주변과 그 위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贖)하였다.
- (4) 이와 같이 구약의 제사 의식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 동물의 피를 뿌렸듯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물이 드려져야 했다(히9:13-22).
- (5)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바로 그 속죄물이 되게 하셨다(빌2:8; 뱀전2:21-25).
- (6) 자신의 피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이제는 우리가 회개와 사랑을 보일 때임을 깨우치신다(요일3:16-19).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16. ㉠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25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기 때문이다.
- (2) 즉 하나님은 죄인들을 즉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다.
- (3)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하셨다(엡2:16; 골1:20).
- (4) 이상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일4:8) 우리 죄를 속하려 예수를 속죄물로 삼으셨고, 동시에 의로우시기 때문에(1:17; 10:3)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허용하신 것이다.
- (5)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자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즉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징벌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같은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 하여 지나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잠3:12; 히12:5:8).

17. ㉠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26절)

- ㉠ (1)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23절) 특별히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참조, 5:1; 갈2:16).
- (2) 이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의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

넘게서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참조, 창15:6).

- (3)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사53:4-12; 마20:28)에 있다.
- (4) 즉 우리는 우리의 죄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1:17; 갈3:11).
- (5) 그러므로 만일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참조, 욕32:1; 눅10:29; 18:9) 그들은 의로운 자이기능커녕 죄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후10:12).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들은 비록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였을 때일지라도 오히려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눅18:9-14절).

18. ㉠ 사람은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가? (27, 28절)

- ㉠ (1)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갈3:11).
- (2) 즉 사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으며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10:9,10; 빌3:9).
- (3) 하지만 이러한 칭의의 원리도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가 없었다(참조, 10:1-3).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는 때 비로소 의롭게 되는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사58:2; 행15:5).
- (4)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러한 전통적 사고는 자신이 성취한 공로나 업적을 자랑하려는 동기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릇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5)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며 또 지킬 수도 없다(1:31,32; 사24:5; 히8:9).
-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외시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교리들을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참조, 딤후3:9-11).

19. ㉠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라 (29, 30절).

- ㉠ (1)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면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을 기회를 갖지 못한 셈이 되며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 (2)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가?
- (3) 결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유대인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단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참조, 4:9-12; 창22:18; 사45:22).
- (4)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選民)이자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참조, 요4:9; 행10:28).
- (5)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기만이 구원받은 자인듯이 어떤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도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10:13; 딤후2:4; 벧후3:9).

20. ㉠ 율법과 믿음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31절)

- ㉠ (1)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다고 말하였다(27,28절).

- (2)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 (3) 바울은 이에 대해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답변하면서 율법과 믿음이 상호 대립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참조, 갈3:21).
- (4) 즉 인간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요구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8:3,4;갈5:18;히7:27,28).
- (5)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도를 핑계로 결코 율법이나 도덕률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율법은 믿음을 통해 비로소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마5:17, 18).

연구자료

죄의 보편성(普遍性)

바울은 본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9절). 그는 그 같은 주장의 근거로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시14:1-3;53:1-3 말씀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 이처럼 인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까닭을 아담의 범죄에서 찾을 수 있다. 전인류의 시조(始祖)이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함에 있어서 전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창2:16, 17)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그 죄책(罪責)은 결국 모든 인간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인간들에게는 죄의 대가로 선포된 하나님의 형벌인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 이 같은 죽음은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 없이 임하는 것으로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5:14) 갓난아이에게조차 임한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책을 전가받은 인간들은 그 인간성이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은 바울이 본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7:18, 19)라고 고백하였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에 누구나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상과 같은 죄의 보편성으로 인해 죽음만이 기약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구원의 방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요3:16).

제 4 장 칭의에 대한 구약의 실례 (實例)

단락구분 1-5 아브라함의 실례 / 6-8 다윗의 실례 / 9-12 할레와 무관한 칭의 / 13-17 율법과 무관한 칭의 / 18-25 모든 신자의 모범인 아브라함의 믿음

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나와 하나님 앞에서 는 없느니라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삿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7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9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 혹 무할례자에게도노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10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나 무할례시나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11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 도니라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 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15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신은 이시니라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3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1) 바울은 전장(前章)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펼친바 있다(3:20,22,25-28, 30).

(2) 이제 본장에서 그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이 진리를 확증한다.

- (3) 특히 바울은 본장 전체에 걸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이신 득의(以信得義)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 (4) 그 이유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참조, 마3:9).
- (5) 하지만 본장에 나타난 바울의 명백한 논증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칭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이신 득의'만이 신·구약의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도 증명되었다.

2. **㉠**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 (1, 2절)

- ㉠** (1) 유대교의 랍비들과 그 제자들은 아브라함을 당대의 유일한 의인으로 간주하였다(구약·외경, 집회서44:20,21).
- (2) 더 나아가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된 이유가 그의 의로움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 (3)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면서 그의 의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사실을 천명함으로 유대인들의 그릇된 칭의론(稱義論)을 반박하고 있다.
- (4) 즉 바울은 아브라함의 칭의가 그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3:27,28).
- (5)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행함이나 공력(功力)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이다(요1:12;엡2:8).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성도들은 신앙 생활 중 이루어지는 선행과 공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어떤 것으로도 자고(自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참조, 고전15:10; 고후12:7-9).

3. **㉠**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는 말씀의 구약적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라(3절).

- ㉠** (1) 본절 말씀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창15:6의 인용이다.
- (2) 아브라함은 창15:6에 기록된 일이 발생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본토와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있었다(창12:1-5).
- (3)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다. 그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後嗣)가 될 것이니이다'(창15:3)라고 항변하였다.
- (4) 즉 아브라함은 그때 자녀가 없었으므로 자기 집에서 양육된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기업을 잇게 될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창15:2).
- (5)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발견된 누지 점토판(Nuzi tablets)에 의하면 당시 자녀가 없는 부부는 양자(養子)를 입양시켜 노년기에 도움을 받고 또 자기들의 장례를 잘 치르게 하였다고 한다. 아브라함의 종:엘리에셀은 이러한 풍습에 따른 양자로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후사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 (6) 한편 아브라함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세어 보라고 하셨으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고령의 나이였지만(창12:4) 그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하였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선언

하신 근거가 되었다(창15:4-6).

- (7) 이상에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신약 시대 성도들의 믿음과 동일하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렸던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하신 일을 믿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요8:56; 딤후2:13; 히6:18).

4. **㉠** 바울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4, 5절)

- ㉠** (1) 바울은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 생활의 평범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2) 즉 일하는 자는 그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고 말한다(참조, 례19:13; 마10:10).
- (3) 다시 말해 고용주가 노동의 대가를 치르는 행위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있어서 보수는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이며 고용주는 노동자에 대해서 빚진 채무자와 같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사람이 행함으로 인해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되며 그 의(義)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없다.
- (5) 그러므로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인들, 특히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이 끝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 (6) 오늘날 신앙인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겸손한 인격을 연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첩경(捷徑)이다(참조, 미6:8; 롬12:3; 벰전5:5).

5. **㉠**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라(5절).

- ㉠** (1)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재판관은 악인을 정죄(定罪)하고 의인을 의롭다 해야만 했다(신25:1).
- (2) 그러나 하나님이 재판관이실 경우 '경건치 않은 자'가 의롭다고 판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 (3) 즉 인간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3:28).
- (4) 그런데 여기서 '여기시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기제타이>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게 '인정한다'는 의미이다(공동 번역).
- (5)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한 행위가 없을지라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은혜인 것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에 의해 얻으려 해서 안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의무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다(참조, 엡3:17-19).

6. **㉠** 믿음과 의(義)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5절)

- ㉠** (1) '믿음' 그 자체는 의가 아니다.
- (2)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하

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는다(갈2:16; 빌3:9).

- (3)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과 칭의(稱義)의 근거는 아니지만 그것들의 수단이라고는 할 수 있다(10:9,10).
- (4)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란 사람이 소유하고 싶을 때 갖고 그렇지 않을 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엡2:8).
- (5)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훌륭하다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며(고전10:12) 다만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찾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롬12:3).

7. **㉠** 바울은 6-8절에서 이신 득의(以信得義)의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 누구를 예로 들고 있는가?

- ㉠** (1)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예증하기 위해 구약의 대표적 인물인 아브라함의 예를 인용하였다(1-5절).
- (2) 이제 바울은 이 부분에서 다시 그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구약 인물로서 다윗을 예로 들고 있다.
- (3) 다윗은 이스라엘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달리 모세 율법이 적용되던 시대의 인물이었다(삼상16:12,13; 대상28:4).
- (4) 그러므로 그 당시 의로운 사람으로 칭송받던 다윗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죄를 범했지만(삼하11:1-17)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의 기록은 이신 득의의 진리를 더욱더 확고하게 뒷받침해 준다.
- (5)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바울은 구약의 말씀들을 예리하게 통찰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힘있게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탁월한 성경관을 본받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골3:16).

8. **㉠** 다윗의 실례를 말하고 있는 6-8절의 구약적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6-8절은 다윗이 기록한 시32:12의 인용문이다.
- (2) 그런데 이 인용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참조, 행13:22).
- (3)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케 하는 연약한 면도 있었다.
- (4) 즉 다윗은 자기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간음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흥계를 꾸며서 우리아를 전사시키는 교사죄(敎唆罪)까지 범하였던 것이다(삼하11:1-27).
- (5) 그러나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즉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참회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다(삼하12:7-13).
- (6) 그때 다윗은 자기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시를 읊었는데 그것이 시51편이며, 이 부분에 인용된 시32편은 시51편의 후편으로 회개 후에 오는 사죄(赦罪)의 축복을 노래한 시이다.

9. **㉠** 다윗은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6-8절)

- ㉠** (1)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행복'(6절)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카리스모스>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축복'을 뜻하는 말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암시한다(KJV, NIV, the blessedness).
- (2)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행복 가운데 으뜸가는 것은 무엇인

가?

- (3) 다윗에 의하면 그것은 사람이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赦)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일이라고 한다.
- (4) 실제 다윗은 밋세바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그 자신이 회개하였을 때 죄 사함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였다(참조, ㉠8).
- (5) 위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람의 참된 행복이란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속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참조, 엠1:7; 골1:14).
- (6)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축복받은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로 축복받은 자의 기쁨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고전10:31; 살전5:18).

10. ㉠ '할례'를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시켜서 설명하라(9-12절).

- ㉠ (1) '할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몰로트>이고 헬리어는 <페리토메>이다. 이는 남성 생식기의 끝 부분을 덮고 있는 표피를 인위적으로 잘라 내는 것을 뜻한다(KJV, RSV, circumcision).
- (2)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의 이 할례는 보다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창17:10-14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들의 종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할례를 '언약의 표징(表徵)'으로 삼으셨다.
- (3) 즉 할례는 ①'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가 되고'(창17:7), ②'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고'(창17:4), ③'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창17:8)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나타내는 표였다.
- (4) 따라서 할례는 ①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하고, ②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와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③그들로 하여금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④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상기시킨다는 등의 여러 의미를 갖는다.
- (5) 그 후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사이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참조, 사14:3; 삼상17:26).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뜻하는 상징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할례를 통하여 자신들의 선민 의식(選民意識)을 선명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 (6)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는 신체적인 할례는 받았지만 그 할례 행위의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따라서 신10:16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강조하였으며, 선지자 예레미야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렘4:4)고 외쳤다. 이처럼 할례가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고 외적인 할례 행위 자체가 어떤 특권을 주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을 때 할례의 의미는 무너졌고 할례의 잘못된 인식은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과감히 지적되었던 것이다.
- (7) 한편 신약 시대에 이르러 할례의 문제는 초대 교회에서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으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할례의 시행 여부가 문제되었던 것이다.
- (8) 즉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행15:1)는 주장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오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게 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의 일부는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율법의 명예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행15:10), 그 회의의 의장인 야고보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행15:20)고 이방인들에게 요구할 것만을 주장하였다. 그 후 토의 결과 예루살렘 회의는 구원받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 (9) 위에서 볼 때 할례 의식은 원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의 표시이며, 동시에 자신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상징적인 행위이지(행7:8) 구원받은 자의 증거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표시가 될 뿐이지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참조, 2:28,29).
- (10)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세례의 무가치성을 주장하여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세례를 받지 않겠노라는 사람이 있다. 이는 세례가 지닌 영적인 의미를 간과한 것으로서 이 세례를 통하여 더 이상 나와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공적인 다짐의 귀중성을 모르고 한 말이다. 예수께서도 분명 승천하시기 전에 세례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다(참조, 마28:19).

11. ㉠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와 무관한 이유는 무엇인가? (9, 10절)

- ㉠ (1)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일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 (2) 신앙과 할례와 관련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유대인들의 커다란 관심사였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복음 증거를 위해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문제들이었다(참조, 갈5:1-12).
- (3)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율법의 행위나 할례 의식도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 뿐 아니라 초대 교회 가운데에도 편만해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행15:5;갈6:12,13).
- (4) 그리하여 이제 바울은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일은 그가 할례받은 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일어났음을 강조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와 무관함을 입증한다.
- (5)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후 14년이 지나서야 할례를 받았다(창15:1-6;16:16;17:9-27).
- (6) 이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이 할례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가? (11, 12절)

- ㉠ (1)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유대인들)의 조상이다.
- (2) 그러나 영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써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공동 번역)이 된다.
- (3)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갈3:7-9).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창12:1-3).

13. ㉠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11절)

- Ⓐ (1) 구약의 족장 아브라함은 무할레시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나(창15:6)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하였다(창17장).
- (2)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그가 의롭게 된 것을 확증하는 하나의 표징으로써 할례를 받았던 것이다.
- (3) 따라서 이 할례는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에 대한 예표(豫表)가 된다(골2:11-15).
- (4)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써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표시이기 때문이다(벧전3:21).
- (5) 당신은 세례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만큼 당신의 세례는 무의미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자랑거리로 생각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촉진제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14. Ⓒ '아브라함의 무할레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2절)
- Ⓐ (1) 이들은 본래 유대교인들이었나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공동 번역, '그저 할례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전에 보여 준 믿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
- (2) 그런데 이들, 즉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할례 의식이나 율법의 행함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다(참조, 행15:5).
- (3) 특히 그들 가운데에는 그릇된 교리로써 복음의 진리를 왜곡(歪曲)하며 당파를 조성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꾀했던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왔다(참조, 행20:30; 고후11:22,23; 갈2:4).
- (4)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계속하여 죄의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람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권면했던 바울의 말과 같이 '썩어져 가는 구슬(舊罫)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엡4:22-24).
15. Ⓒ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후사(後嗣)'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3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뜻하고 있다.
- (2)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창12:7;13:14,15,17;15:7,18-21;17:8).
- (3) 둘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것이다(창13:16;15:5;18:18).
- (4) 셋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다(창22:18; 갈3:16,29).
- (5) 이렇게 볼 때 이 말은 장차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까지를 함축하는 포괄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갈3:9,14).
16. Ⓒ 원어(原語)로 본 '언약'의 뜻은 무엇인가? (13절)
- Ⓐ (1) 헬라어에서 '언약'을 의미하는 말은 <히포스타시스>와 <에팡겔리아> 두 가지이다.

- (2) 전자(前者)는 조건부로 주어진 약속을 의미하며 후자(後者)는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약속을 뜻한다.
- (3) 본절의 ‘언약’은 후자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의미한다(20절; 행7:17; 고후1:20; 갈3:22).
- (4)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구약’(옛 언약)과 ‘신약’(새 언약)이라는 말에서 ‘언약’(Testament)은 이 하나님의 언약 <에팡겔리아>를 번역한 것이다.
- (5) 한편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조건적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한번 인간과 약속을 맺으셨을 때 그 약속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 없이 결코 폐기되지 아니하며(참조, 수23:5-15), 정한 때에 어김없이 지켜진다는 사실(21절; 왕상8:56; 행7:6,17; 갈4:4; 히6:12-20)을 가리킨다.

17. ㉠ ‘율법’과 ‘약속’ 및 ‘약속’과 ‘믿음’과의 관계를 설명하라(13-16절)

- ㉠ (1)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며 지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창12:1-3).
- (2)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참조, 히11:8).
- (3)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다.
- (4)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갈3:9).
- (5)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이 명하는 모든 일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 (6) 왜냐하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또 아무도 율법을 전혀 범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1:31,32; 사24:5; 렘11:10; 호6:7; 히8:9).
- (7) 오히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며(3:20) 범죄한 인간에게 진노의 심판을 일깨울 뿐이다.
- (8)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우리 자신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함으로써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빌4:9).

18. ㉠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5절)

- ㉠ (1) 여기서 ‘범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보시스>는 <하마르티아>와는 다른 뜻이다.
- (2) 즉 <하마르티아>는 인간의 전존재(全存在)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다는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반면 <파라보시스>는 율법 사항의 각 조목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뜻한다(KJV, RSV, transgression).
- (3)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는 말씀은 역으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위법(違法) 행위가 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 (4)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준에 놓고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죄들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3:23; 시14:3). 이러한 죄들 가운데 어떤 것은 사회적으로 위법 행위가 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성도들이 행동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 비추어 보아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자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깊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시51:7-15; 사6:5).

19. ㉠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7-25절)

- ㉠ (1) 바울은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족장 아브라함을 그 모형으로 제시하였다(1-16절).
- (2) 이제 바울은 이 부분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 (3) 즉 당시 아브라함은 매우 늙었고 그의 아내 사라 역시 태(胎)의 문이 닫힌 상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후사를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굳게 믿었다는 것이다(18-21절).
- (4)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기뻐하셨으며 그것을 의(義)로 여기셨다(22절).
- (5) 이 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23,24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이다(25절).
- (6)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노쇠한 몸으로 자녀를 낳으리라는 사실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신앙보다 더욱 위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브라함처럼 불임증의 여인으로 하여금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는 고사하고 일상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작은 문제조차 하나님 앞에 말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참조, 갈3:1-6).

20. ㉠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7절)

- ㉠ (1) 첫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 (2) 하나님께서는 성적(性的)으로 출산(出産)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출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21:1-3)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하신 분이시다(참조, 렘32:17,27; 딤후전6:15).
- (3) 둘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여기서 '부르시는'으로 번역된 헬라이어 <칼룬토스>는 '존재하게 하다',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 (4) 성적으로 죽은 자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의 출생을 알리신 하나님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지시하시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창15:5)고 선언하시고 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창17:5)고 하심으로써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모든 약속들을 지키셨다.
- (5)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참조, 사12:2; 25:9; 렘3:23).

21. ㉠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신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18-2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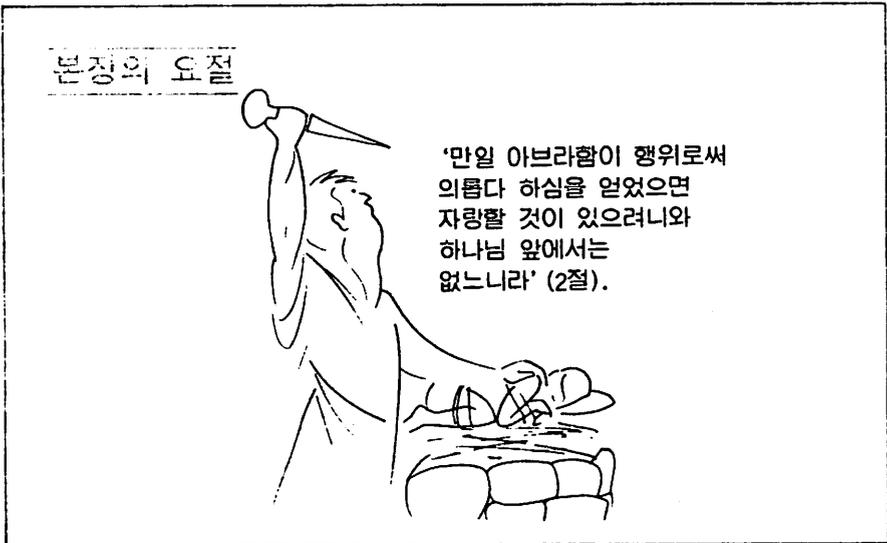
- ㉠ (1) 하나님께서는 무자(無子)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자녀 주실 것을 약속하신바 있다(창15:4,5).
- (2)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오래도록 자녀를 갖지 못했다(창16:16,17; 24,25).
- (3)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이 부부가 신체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

셨던 것이다. 그런 연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셨다.

- (4) 즉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어서야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리라'(창17:16,17)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 (5)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때였다.
- (6)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생식(生殖) 능력이 없어진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19-21절).
- (7) 이러한 사실은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자신과 집안 식구의 할례를 기꺼이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창17:23-27).
- (8) 이상에서 우리는 상식과 이성과 현실을 초월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연하게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절망적인 현실에 처한다 할지라도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참조, 시40:1; 잠20:22; 마6:10; 행1:4).

22. **㉠**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가? (23-25절)

- ㉠** (1)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오늘날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말한다.
- (2) 즉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죽은 태(胎)에서 이삭을 낳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처럼(히11:17-19) 오늘날의 성도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8:34)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참조, 행13:39).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갈3:8,9).



제 5 장 칭의(稱義)의 결과

단락구분 1-5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화평과 기쁨, 인내와 소망의 생활을 하게 된다 / 6-11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화해와 구원의 약속에 대해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된다 / 12-14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죄와 죽음 / 15-21 예수 그리스도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義)와 영생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 다만 이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5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1 이 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6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롭이니라

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 율법이 가집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말하라.

- ㉠ (1) 전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예증한 바울은 이제 본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1-11절).

- (2) 특히 본장은 이러한 사실이 아담의 죄로 시작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로운 사건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12-21절).
- (3)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화평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본장은 6-8장에서 언급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생활, 즉 성화(聖化)의 생활에 대한 메시지의 서언(序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 (4) 그런데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기독교의 교리가 단순히 화석(化石)처럼 굳어 버린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살아있는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명 그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며 또한 발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은 무엇인가? (1,2절)

- ㉠**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첫째 가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 (2) 여기서 '화평'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양심의 평정(平靜)을 뜻한다(참조, 14:17; 요20:21,26; 엡2:14; 골1:20).
 - (3) 두번째의 축복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이다. 여기서 '들어감을 얻었으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사고겐>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뜻과(KJV, have access) '인도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지닌다(RSV, NIV, have gained access).
 - (4) 이렇게 볼 때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안내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 (5) 따라서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도 없다(참조, 4:15; 5:10; 8:7; 사48:22). 이것이 오늘날 죄악 가운데 싸여 있는 현대인들이 끊이지 않는 번민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 비극적 운명에서 벗어나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을 믿는 것이다(마11:28-30; 고전1:3; 고후1:2; 갈1:3).

3. **㉠**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2-4절)

- ㉠** (1) 그들의 생애는 언제나 영광스럽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참된 신자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뒤따르는 법이다(요15:19; 16:33).
- (2) 그런데 이 환난(韃, 슬립시스)은 경제적인 압박, 신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갈등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3) 한편 이러한 모든 환난들이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런 것들임에 틀림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鍊鍛)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 (4) 여기서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모네>는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시련과 시험들을 이겨 내는 것을 뜻하며, '연단'으로 번역된 헬라어 <도키메>는 금속을 타오르는 용광로에 집어 넣어 모든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5)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들은 시시각각으로 닥쳐 오는 시련들을 정면으로 대항하여 이겨 낼 때 정금(精金) 같은 신앙을 소유하며 구원의 소망을 굳게 할 수 있다(욥23:10).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고난들을 최후 승리의 계기로 삼고 이를 즐겨워하며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참조, 8:18; 마5:11,12; 행5:41; 고후12:10; 골1:24).

4. **㉠**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을 부끄럽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A** (1)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소망이 어떤 상황 아래서도 변치 않으며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증하시기 때문이다.
- (2) 하지만 이러한 소망과는 달리 인간이 흔히 갖는 세상적인 소망은 확실한 보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잠시 유지되다가 사라져 버린다(참조, 시94:11; 고전3:20).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실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다.
- (3)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성도들은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다. 이 소망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그것처럼 먼지나 재로 변해 버리는 허구나 망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잠14:32; 행24:15; 히6:18,9; 벧전1:3,4).
5. **Q** '기약(期約)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A** (1) 본절에 '기약'으로 번역된 헬라이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때를 의미한다(참조, 갈4:4; 6:9,10; 엡1:10).
- (2)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 사망의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때를 정하시고 독생자(獨生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던 것이다(막1:15; 딤후2:6; 딤후1:3; 히9:26).
- (3) 이렇게 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하신 날에 죄인들을 위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못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다(마27:32-44; 벧전2:21-25).
- (4)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갑자기 발생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기약'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이다.
- (5)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셨는가를 보여 준다.
- (6)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구원을 기약하여 주신다 당신이 믿음으로 인해 어떠한 고난과 시험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켜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딤후4:17,18).
6. **Q** '의인'과 '선인'은 각각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7, 8절)
- A** (1) '의인'(헬, 디카이오스)은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7절). 이는 8절에 기록된 '죄인'과 대조된다.
- (2) '선인'(헬, 아가도스)은 사랑이 많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또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는 6절에 언급된 '경건치 않은 자'와 대조된다.
- (3)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같은 이들을 위해서는 극히 소수일지라도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나(참조, 삼상18:1-3; 요15:13)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4) 그런데 예수께서는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참조, 요15:15).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 (5)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타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각적이며 이기적인 사랑(헬, 에로스)도, 본능적인 골육간의 사랑(헬, 스토르게)도, 이웃과 친구에 대한 사랑(헬, 필리아)도 아닌 십자가의 사랑 곧 헌신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헬, 아가페)이다(참조, 요3:16; 요일4:10).
7. **Q**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구원을 받는가? (9, 10절)
- A** (1) 그들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엡2:8) 현재에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으며

(고전1:18) 최후의 심판 때에도 구원을 받게 된다(히9:28).

- (2) 다시 말해 참된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며(히2:14,15) 또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도 구원을 받게 된다(살전1:9,10;5:8-10).
- (3)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하늘 처소를 예비하신 후 그곳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약속(요14:2,3)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다.
- (4)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및 재림으로 인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다(엡1:3-6;히7:23-25).

8. **㉠**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하여 화목하게 되었는가? (10, 11절)

- ㉠** (1)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창3장) 이후 계속하여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이 죄악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여 정면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가 되는 것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1:18-32).
-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원수 된 우리 인간을 영원히 정죄(定罪)하시고 멸망하도록 버려두지는 않으셨다.
- (3) 오히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케 하는 자로 보내셨고(엡2:11-18)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다.
- (4) 여기서 '화목'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탈라젠>은 '구속'(KJV, atonement) 또는 하나님과의 '화해'(RSV, NIV, reconciliation)를 뜻한다.
- (5) 이처럼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후5:18,19). 그러므로 이제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 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화목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이다(참조, 마28:19;골1:23).

9. **㉠** 아담이 금단의 실과를 따 먹은 사실이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다(창2:7,8).
- (2)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주셨다(창2:17).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금지 조항을 주신 것은 인간의 도덕적 품성이 발휘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즉 인간은 이 단 하나의 금지 조항을 어길 수도 있었고 그것에 순종할 수도 있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자동으로 조작되는 인형(automaton)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택의 권리가 있는 자유 의지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던 것이다(참조, 창1:27).
- (4)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금단의 과실을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금지 사항을 어겼다(창3:6).
- (5)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금지된 실과를 따 먹은 사실이 범죄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실과를 먹은 사실 자체 때문이 아니라 유혹자인 뱀은 믿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며 반역했기 때문이다(참조, 딤후2:14).
- (6) 이와 같이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순간(창3:5) 죄가 그의 인격 안에 거하게 되었고 동시에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창2:17;3:22-24).
- (7)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 그것이 곧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실함과 겸손함을 나타내야 한다.

10. **㉠**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죽음을 초래케 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라(12절).

- A** (1) 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온 인류에게 사망이 임한 것은 단순히 인류가 혈통적으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또한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만도 아니다.
- (2) 오히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이 온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다(고전15:22).
- (3)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담은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인류라는 공동체에 연합된 한 부분이었던 점이다. 아담이 인류의 한 부분이었기에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범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죄는 그의 죄임과 동시에 인류의 죄가 되었던 것이다.
- (4) 이러한 정죄의 원리는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였을 때 아담 한 사람이, 전리품을 모두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의 일부를 취하는 죄를 지은 대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이 성 정복에 실패한 사실(수7:1-5)에서도 나타난다. 즉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를,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민족의 죄로 간주하셨던 것이다(수7:11).
- (5)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은 홀로 고립되었거나 소외된 존재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그 속한 사회나 공동체를 떠나서는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를 떠난 성도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다.
- (6)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의 참여를 통해 우리 성도는 인간 관계를 배우며 또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터득하기 때문이다.

11. **㉠** 우리가 아담과 관련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2, 14절)

- A** (1)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삼하14:14; 욥30:23; 전3:20; 히9:27). 그러면 이 죽음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이 태어난 후 짓게 되는 범죄 행위들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참조, 9:11).
- (2) 오히려 그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초래되는 것이다(참조, **㉠** 10). 즉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통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형벌을 선언받은 것이다(12절).
- (3) 결국 이러한 사실은 우리 인류가 원죄와 형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담과 하나의 공동체 관계에 있음을 잘 보여 준다(참조, 고전15:22).

12. **㉠** 바울은 모든 사람의 죽음이 아담이 지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어떻게 입증하고 있는가? (12-14절)

- A** (1) 죄를 죄로 성립시키는 것은 율법이며(4:15) 이 율법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John Calvin).
- (2) 그런데 아담은 금단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김으로써 최초의 범죄자가 되었다(창3:6). 그리고 그는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다(창5:9).
- (3)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없던 시기가 있었다. 즉 아담의 타락 이후 모세 시대 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범죄했으나 율법을 갖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적인 의미에서 자신들의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13절).
- (4)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아담과 똑같이 죽음이 임했다(14절).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모든 사람의 죽음이 아담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고전15:22).
- (5)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율법’에 의해서만 죄를 심판하시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판에 쓴 율법(2:12-15)에 의해서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죄를 죄로서 꿰뚫어 보시는 것이다(참조, 욥14:16; 눅18:9-14).

- (6)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지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처할 수는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할 삶의 모습은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 사는 소극적인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생활이다(참조, 골1:27; 3:12-16).

13. **㉠**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表象)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표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튀포스>는 '전형'(RSV, type) 또는 '모형'(NIV, pattern)을 뜻하는 말이다.
- (2) 따라서 본문 말씀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고전15:45은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 (3) 즉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대비된다.
- ① 아담은 타락한 자의 대표자인 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은 의인의 대표자이다.
 - ② 아담은 땅에서 왔으나(창2:7)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하늘나라의 주인이시다(고전 15:47).
 - ③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났으나(창3:6,23) 예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갈보리 동산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마27:32-50).
- (4) 그런데 모든 인생은 타락한 자의 대표자인 '아담 안에'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담 안에' 머무는 비극적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에서 발견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중생(重生)의 길이다(요3:3-7).

14. **㉠** 15-17절에 있는 아담과 그리스도가 서로 관련되는 대조적인 내용을 비교 설명하라.

- ㉠** (1) 첫째, 아담의 범죄는 결과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조를 이룬다(15절). 아담의 죄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는 15절 중간에 있는 '더욱'이라는 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담의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해 주는 풍성한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요10:10).
- (2) 둘째, 아담의 범죄는 법률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조를 이룬다(16절). 즉 아담의 죄는 정죄(定罪)를 가져 왔으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죄인들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던 것이다.
- (3) 셋째,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순종 사이에는 두 가지의 다스림이 대조를 이룬다(17절).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이 인간 위에 왕노릇하였으나(14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 (4) 이처럼 명암(明暗)이 교차하는 인류의 두 대표자 사이에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각각 자기 자신이 전에는 사망 아래 놓인 죄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 안에서 왕이 되었음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참조, 갈5:1).

15. **㉠**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5절)

- ㉠** (1)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지니는 효력은 아담이 지은 죄의 효력보다 더 우월하고 확고하며 영원하다는 의미이다.

- (2) 이와 같이 은혜의 행위가 죄의 행위보다 우월한 것은, 범죄한 아담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나(창3:22-24) 은혜의 주(主)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神)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이다(빌2:5-11).
- (3) 이러한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사는 아담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정죄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죄를 초월하여 더 큰 은혜의 선물을 얻을 정도로 우월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죄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담대하게 최악의 세력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사와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눠 주며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8:32; 딤펴전4:7,14; 딤후1:6).

16. ㉠ '선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며, '은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5-17절)

- ㉠ (1) 여기서 '선물'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레아>는 인간 사이에서 교환되는 보통의 선물(헬, 도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높고 귀한 선물을 의미한다.
- (2) 즉 이 선물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이다(요1:14;3:16).
- (3) 이렇게 볼 때 이 선물은 곧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헬, 카리스)라고 할 수 있다.
- (4)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적인 표현인 것이다(참조, 요4:10;엡2:8;3:7;약1:17).
- (5) 그런데 오늘날 물질주의에 만연된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마저도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들은 경전을 이익의 재료로 삼기도 한다(딤펴전6:5).
- (6)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바로 이해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며 또한 부요한 자라는 사실로 인해 참된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참조, 고전1:5;고후6:10;8:9;계2:9).

17. ㉠ '의(義)의 선물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17절)

- ㉠ (1) '의의 선물'은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뜻한다(참조, 3:28;행13:39;고전6:11).
- (2) 그런데 이러한 선물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갈2:16).
- (3) 즉 이 선물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인간에게 부여되는 것이다(3:24).
- (4)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의의 선물'을 받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왕노릇하게 된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다(참조, 고후5:21).

18. ㉠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세상을 정죄하신 하나님 처사는 정당한가? (18, 19절)

- A (1) 이러한 질문은 흔히 회의론자들이 잘 제기한다. 결론부터 말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처사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 (2) 그 이유는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시험하셨다고 가정을 해도 그 결과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인간들 모두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창3:6).

- (3) 왜냐하면 우리들 인간은 그 본성이 아담과 동일하기 때문이다(참조,엡2:3). 따라서 인간은 그가 아무리 의를 행하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인간 중에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4)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연합된 상태에서 정죄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고전 15:45)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 ㉠ 원어로 본 ‘범죄’의 뜻을 설명하라(18절).

- ㉠ (1)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6,17).
- (2)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담을 시험하셨는데 아담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였다(참조,㉠9).
- (3) 본문은 아담의 이 실패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행위로 ‘범죄’라고 일컫는다.
- (4) 그런데 이 ‘범죄’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프토마토스>는 ‘일정한 선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RSV, NIV, trespass).
- (5) 즉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디까지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담은 그 지정된 한계를 넘어가기로 결심했던 것이다(창3:5,6).
- (6) 이처럼 아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갖고 있다. 그 경계선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선을 잘 알면서도 곧잘 넘어서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20. ㉠ ‘의(義)의 한 행동’이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18절)

- ㉠ (1) ‘의의 한 행동’은 십자가상에서의 의로운 사역, 즉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통과 언덕 위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신 사건을 가리킨다(참조,마27:32-44). 이 사건이 19절에서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빌2:5-11).
- (2)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사건은 ‘칭의’(稱義)를 가능케 하였다.
- (3)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사람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3:24).
- (4) 또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가능케 하였다.
- (5) 이렇게 볼 때 ‘의의 한 행동’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갖는 영향력을 상쇄할 뿐만 아니라 실로 아담이 누렸던 축복 이상의 것을 인간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요10:10).
- (6) 이와 같은 ‘의의 한 행동’으로 구속함을 얻고 크신 은혜를 부여받은 우리들은 그 행동이 가져다 주는 축복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 주위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1. ㉠ ‘율법이 가입(加入)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20절)

- ㉠ (1) 본절에서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입하였다’(NIV, added)라고 기록된 것은 율법이 ‘범죄한 아담’과 ‘죄인들에게 무죄 선교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와의 사이에서 인간에게 부여됨을 나타낸다.
- (2) 즉 율법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사이에 살았던 모세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참조, 10:4).
- (3) 이와 같은 사실은,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일시적인 역할을 하다가 그리스

도가 오신 후 그 사명을 마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갈3:19).

- (4) 다시 말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몽학 선생(蒙學先生)의 역할을 하였지만(갈3:24) 그리스도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주(內住)하시는 성령께서 율법을 대신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일깨워 주시며 책망하신다(요16:8).

22. ㉠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20절)

- ㉠ (1) 율법의 기능은 첫째, 인간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이다.
 (2) 둘째,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낼 뿐 아니라 죄를 죄로서 성립시킨다(4:15).
 (3) 인간은 이와 같은 율법의 기능 때문에 죄를 느끼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된다(3:20; 7:7). 그러나 율법만 가지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없다.
 (4)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사회 문제들 가운데서도 발견된다. 즉 사회의 여러 가지 범죄들로 인하여 수많은 법들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들만 가지고서는 범죄에 대한 근본 해결이 불가능하다. 현재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다(참조, 13:8,10; 마22:20; 골3:14).

23. ㉠ 죄의식과 은혜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라 (20절).

- ㉠ (1)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시36:12). 그러나 율법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발당하게 된다(7:9).
 (2) 이때 그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며,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람을 용납하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요1:12; 엡2:1-5).
 (3)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이다. 즉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넓고 깊다(참조, 고후9:8,14,15).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해야 할 것이다(사1:18; 요일1:9).

24. ㉠ 아담과 그리스도가 각각 '한 사람'으로 표현된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12-21절)

- ㉠ (1) 이 부분에서 아담은 범죄와 죽음의 세계의 우두머리인 '한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 세계의 주인이신 '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2) 이렇게 아담과 그리스도가 각각 '한 사람'으로 표현된 것은 인류의 조상이 아담 '한 사람'이며, 인간 모두가 그 아담으로 인한 죄인이라는 사실(3:23)과 아울러 인류가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나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임을 암시하는 것이다(요17:3; 행4:12).
 (3) 그런데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나 합리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고전1:18).
 (4)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1:21). 어떠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가까이할 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요14:6).

본장의 요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3,4절).

제 6 장 죄에서 떠나라

단락구분 1-5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 / 6-11 성도를 주관하지 못할 죄의 권세 / 12-14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 15-18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성도 / 19-23 영생을 얻은 성도의 생략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믿으라

10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20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21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1. ㉠ 본장의 내용에서 강조하는 바는 무엇인가?

- ㉠ (1) 본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화(聖化)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 (2) 즉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으며 영생을 얻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축복된 삶을 탐욕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참조, 갈5:13).
- (3) 결론적으로 본장은 성도들이 이전처럼 죄의 종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갈5:16-26).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더 이상 죄와 세상의 영향 아래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삶의 표준에 따라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생(生)을 추구해 가야 한다(참조, 갈2:20).

2. **㉠**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도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1-14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으며, 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 (2)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은 대속적(代贖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의 전형적(典型的)인 사건이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고후5:14).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5:12-19). 그런데 이 연합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던 인간이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4)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는 죄가 들어와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8,9,11-13절).

3. **㉠** 칭의론(稱義論)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한 한 많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1,2절)

- ㉠** (1) 이러한 질문이 사도 바울은 전장(前章)의 결론 부분 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5:20)라고 말한 사실에서 유래한다.
- (2) 즉 본서신의 독자인 로마 교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여 이 말씀을 죄를 허용하는 면허장과 같이 여기고 그와 같이 질문한 것이다.
- (3)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그럴 수 없느니라’(2절)고 잘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들이 계속 죄를 지을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 (4)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성도들이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계속해서 안 된다는 사실이다.
- (5) 우리는 이 부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악용하여 죄를 짓기 위한 구실을 만들며 또 그 죄를 합리화하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실로 어리석고 비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혹시 우리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는가? 만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한 일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될 것이다(참조, 삼상15:13).

4. **㉠** ‘세례’란 무엇인가? (3, 4절)

- ㉠** (1) 세례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
- (2) 먼저 물 세례는 성례전(聖禮典)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몸을 물로 씻는 행위이며, 이는 새 계약의 은혜와 구원을 상징하고 이를 보증한다(마28:19).
- (3) 그런데 이 세례가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참조, 고전12:13; 갈3:27,28; 골2:11,12).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세례받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뜻이다(참조, 고전10:2).
- (4) 그 다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

지는 '성령의 채우심'을 말한다(참조, 행2:3).

(5) 이 세례는 오순절 이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다(행1:5;2:5;4:8,31;19:2;고전12:13).

(6)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세례'는 위에서 소개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 바울은 세례의 비유를 들어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생동적인 연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4.5절)

- ㉡** (1) 바울은 비록 잠깐 동안의 일이지만 세례를 받을 때 물 속에 몸을 잠그는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葬事)되는 일로 묘사한다.
- (2) 여기서 '장사된다' 함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맺어지는 아담과의 관계에 의해 지배되던 옛 사람(6절;엡4:22;골3:9)의 종말을 상징하는 말이다.
- (3)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하기 이전의 거둔다지 못한 본성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의미한다(참조, 갈5:24;골2:12).
- (4) 또한 바울은 세례를 받을 때 물 속에 잠기었던 몸이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 생명의 길을 걸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 (5) 이렇게 볼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옛 생활에 대하여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를 회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갈2:20). 이와 같이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 성도들은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살 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정상이다(참조, 고후5:17).

6. **㉠** '아버지의 영광'을 부활과 관련시켜서 설명하라(4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 (2) 여기서 영광(헬, 독사)은 단순히 내적이고 잠정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자 피조물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전능과 완전성'(창18:1;32:7;19:26;눅1:37)을 가리킨다.
- (3)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영광은 종말론적인 견지에서 볼 때 만민을 부활시켜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이 성취됨으로써 밝히 드러나게 된다(요5:28,29;행24:15;계20:13).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몸'(빌3:21)으로 변화되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살전4:14;벧전1:13).

7. **㉠**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4.5절)

- ㉡** (1)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참조, 14:8).
- (2)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신 것처럼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5절;고전15:22).
- (3)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것처럼 미래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은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골3:13).
- (4) 하지만 이 부활의 능력을 현재의 삶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금요일과 부활한 날 사이에 머무르고 만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분이었지만 아깝게 고난을 당하다 목숨을 잃은 성인(聖人)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출애굽을 하여 자유를 얻었으나 약속의 땅이며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참조, 민14:26-35).

8. ㉠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6절)

- ㉠ (1) 이 말은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합하여 졌다는 뜻이다.
- (2) 동시에 이 말은 우리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낡은 질서에서 떠나 의와 평안이 있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도 된다(참조, 갈2:19,20).
- (3)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더 이상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생활하는 삶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씀이다(참조, 고후4:11;골2:20;딤후2:11).

9. ㉠ '옛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

- ㉠ (1) '옛 사람'은 세례를 받기 이전의 사람, 그리스도와 만나기 이전의 사람, 거듭나기 이전의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던 사람을 의미한다(고전15:22;골3:9).
- (2) 이 '옛 사람'에 반대되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 의(義)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엡2:15;4:24).
- (3)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후5:17).
- (4)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옛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참조, 7:18).
- (5) 그러므로 성도들이 계속 새 사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모습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한다(골3:9,10).

10. ㉠ '죄의 몸'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6절)

- ㉠ (1) '죄의 몸'을 '죄 많은 몸'(RSV, sinful body)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 (2) 왜냐하면 '몸'(헬, 소마)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몸은 죄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수도 있는 중립적인 것이다(참조, 롬19:26;요일4:2).
- (3) 그렇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헬, 카르디아)이다(막7:21-23).
- (4) 이렇게 볼 때 '죄의 몸'이란 '죄가 지배하는 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참조, 빌3:21;골2:11).
- (5)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정(情)과 욕심을 못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죄의 병기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갈5:24). 성도들이 늘 깨어 있는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성도의 생활을 통제하지 못한다(5:21;요일5:1-4).

11. ㉠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절)

- ㉠ (1) 스코틀랜드에서는 처형을 당한 사람을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법적인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 (2) 이와 마찬가지로 본절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이어 <데디카이 타이>는 법적으로 해방 선언을 받아 자유롭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 (3) 즉 본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죄가 더 이상 그를 고발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 (4) 이러한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써 이미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한다(5:15-1).
- (5) 그런데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본질을 해석하기를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것으로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을 받는다'라고 한다.
- (6)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에 자기의 죄를 책임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마12:36;벘후2:10).

12. **㉠**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8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행2:23,24;10:39-41;고전15:4).
- (2) 이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사건으로서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역사적 사실이다(롬10:9,10).
- (3) 사실상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참조, 고전15:42-44;빌3:21).
- (4) 이러한 의미에서 부활 신앙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今生)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전15:19) 할 수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살전4:14)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할 것이다.

13. **㉠**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9절)

- ㉠** (1) 여기서 '사망'(헬, 다나토스)은 형벌의 집행자로 묘사되고 있다.
- (2)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3:23) 그 죄의 대가로 사망 가운데 넘기워질 수밖에 없다(5:12).
- (3) 그런데 인간과 같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요1:14)께서 죽으신 것은 인간과 같이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 아니다.
- (4)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자신을 죽음에 넘겨 주셨던 것이다(요10:18;엡5:2;벘전3:18).
- (5)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으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행2:24;계1:18).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 즉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의해 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참조, 요11:25,26).

14. **㉠** 성도가 죄와 하나님에 대하여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10, 11절)

- ㉠** (1)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희생 제사(sacrifice)를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 했다(참조, 레16:11,14-20;17:11). 따라서 이러한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요 율법의 행위로서 죄 사함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히10:3-9).
- (2)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贖罪)를 이루사 완전한 제사를 드려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대신 그의 피가 죄를 씻는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전6:11;히10:12,10).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에 대하여는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
- (4) 반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자신을 산 자로 여겨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처럼(창15:6) 자신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해야 한다는 뜻이다.

- (5) 그러나 이러한 확신이 없이 계속하여 죄를 짓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이다. 참된 성도는 죄를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이다(갈2:19).

15. ㉠ 원어로 볼 때 '여길지어다'의 뜻은 무엇인가? (11절)

- ㉠ (1) '여길지어다'로 번역된 헬라어 <로기조마이>는 단순히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개인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것으로 믿는다'는 뜻이다.
 (2)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는 타락한 인간의 지성과 감정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3)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현실 생활 속에서 인정하고 믿으며 긍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그 말씀이 자신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잠3:6).

16. ㉠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실제적인 것으로 '여길지어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11절)

- ㉠ (1)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명령하였다.
 (2)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여기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최소한 세 가지가 있다.
 (3) 첫째, 그것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명령이다(참조, 1: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계신다. 또한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는 거짓됨이 없을 뿐 아니라 절대 권위를 내포하고 있다(참조, 민23:19). 그러므로 그 말씀은 결코 하찮은 것으로 다루어지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4) 둘째, 그 명령은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건전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굳게 믿은 것은 행동으로 표면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약2:26).
 (5) 셋째, 진리의 말씀을 현실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며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참조, 수 24:15,16).
 (6) 이상과 같은 근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라고 권면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과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지배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참조, 시37:5; 잠16:3).

17. ㉠ 죄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2절)

- ㉠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2)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본질의 '너희 죽을 몸'이란 말은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참조, 시49:12; 사64:6).
 (3) 그렇다면 성도들은 계속되는 죄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4) 성도는 죄의 유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유혹에 빠지기를 거부해야 한다. 즉 성도들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참조, 요일3:7-9).

- (5) 그런데 이와 같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얻기 위하여선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이다. 성도는 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약함을 담당해 주신다는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참조, 12:16; 왕상 3:6-14; 눅18:13,14).

18. ㉠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13절)

- ㉠ (1)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지체를 불의의 병기(兵器)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의(義)를 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2) 이것은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
- (3) 즉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주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고전3:16,17). 그것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철저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사실은 본절에 '드리라'로 번역된 헬라이어 <파라스테사테>가 자기 자신을 '넘겨 준다' 또는 '양도한다'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KJV, RSV, yield).
- (4)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어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출12:31-33) 다윗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셨으며(삼상17:32-54)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행9:15).
- (5)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일군을 부르신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사6:8).

19. ㉠ 죄가 성도들을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 (1)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치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참조, 갈4:8).
- (2)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로 고백한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게 된다.
- (3) 그 이유는 성도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 (4) 즉 성도들은 굳건한 믿음을 기초로 하여 죄를 폭로함으로써 저주와 죽음을 선포하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게 되며,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죄악된 생활을 다스리는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갈2:19,20).
- (5) 한편 이와 같은 은혜의 생활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참조, 갈5:6; 요일5:4).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은혜 안에 거해야 할 것이다(12:3).

20. ㉠ 15-23절의 중심 논제는 무엇인가?

- ㉠ (1) 바울은 14절에서 성도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2) 즉 인간을 죄에 속박시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는 율법에서 벗어날 때 죄는 더 이상 인간을 엮매지 못한다고 하였다.
- (3) 이제 바울은 여기서 그 같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반대자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한다.
- (4) 그 문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율법을 마음대로 범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자유 방임적인 사상으로부터 제기되는 질문이다(15절).
- (5) 바울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면서 죄에서 해방된 자는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15절).

(6) 더 나아가 바울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의의 종이 되는 또 다른 구속의 상태에 있게 됨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교훈한다(16-23절).

21. ㉠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의 본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15, 16절).

㉠ (1)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이다.

(2) 즉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한 주인은 '죄'며 다른 한 주인은 '의'인 것이다(마6:24). 그런데 사람이 이 두 주인 중 어느 주인을 섬기든지 그 주인은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여기서 '종'에 해당하는 헬라어 <들로스>가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노예'를 뜻한다는 것은 그 같은 사실을 잘 말해 준다(RSV, NIV, slave).

(3)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종인가? 물론 '의의 종'이다.

(4) 그리스도인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종살이(5:12;8:13)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의의 종인 것이다.

(5) 더우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단순히 죄에서의 해방에 그치는 주인 없는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이 자유의 의미는 이전 주인의 지배를 벗어나서 새 주인을 섬기며 사는 것, 즉 새 주인에게 순종하며 사는 생활이다(11절).

(6)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방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7)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교회 내에서 그리고 개인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참조, 마10:8; 행20:35; 벧전4:10).

22. ㉠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는가? (17-22절)

㉠ (1) 당시 로마 교회는 대부분의 이방인과 극소수의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참조, 서론 ㉠ 5).

(2) 그러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죄의 종' 상태에 있었다(19-23절).

(3)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옛 생활을 버리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22절). 본질의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표현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나타내 준다.

(4) 따라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당시 여러 교회로부터 커다란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었으며(1:8;15:23-29),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보내는 본서신에서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5) 이처럼 성도들이 훌륭하게 신앙 생활을 한다는 사실은 자신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목회자에게는 더없는 기쁨이 된다(참조, 엡1:15,16; 빌1:3-5; 골1:3-5).

23. ㉠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17절)

㉠ (1) '교훈의 본'(헬, 루폰 디다케스)은 바울 서신에 있어서는 보통 '교리의 본'(NIV, form of doctrine)을 가리킨다(참조, 고전10:6; 빌3:17; 살전1:7; 살후3:9; 딤후4:12; 딤후2:7).

(2) 그러나 본질에서 '교훈의 본'이란 '그리스도의 법'(갈6:2) 곧 복음의 진리를 의미한다.

(3) 이렇게 볼 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란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전해 받은 복음의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는 예수의 생애를 목격한 바 있는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초대 교회 당시 한결같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 그 골격을 이룬다(참조, 1-5절; 고전15:3,4).

- (5) 한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바울이 아니었다(참조, 1:8,13).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론 ㉠ 5를 참조하라.
- (6) 그렇지만 누가 전하였든지간에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다. 즉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계14:6) 오직 하나인 것이다(갈1:7).
- (7)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오늘날 여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전하는 성경적 복음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 옛날 바울의 교훈을 받아 행하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처럼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4. ㉠ 기독교의 교훈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18절)

- ㉠ (1) 기독교의 표준적인 교훈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용어는 ‘하나님의 의’(헬, 디카이오쉬네 데우)이다.
- (2) 이 ‘하나님의 의’는 본서신의 주제임과 동시에(1:16,17)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 (3) 이와 같이 기독교의 핵심 용어가 되는 ‘하나님의 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참조, 요일1:2; 시71:2).
- (4) 즉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롭지 못하며 또한 스스로 의로와질 수도 없다(3:10-18; 시14:1, 2; 53:12).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실 뿐이다(참조, 3:23).
- (5) 그러므로 인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3:20).
- (6)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 주셨으니 그분께서는 믿음 가진 자를 의롭다 여기심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칭의에 대한 유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참조, 창15:6; 갈3:6).
- (7)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얻은 의도 궁극적으로는 인간 자신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3:24).
- (8)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여(실제로 믿음이 있는 자는 자랑하지도 않으며 무례히 행치도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참조, 마15:1-9; 눅7:36-50; 16:14,15).

25. ㉠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8절)

- ㉠ (1)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義)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여기서 혹자는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간에 모두 종살이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 (3) 그러나 이 두 형태의 예속 상태는 현격한 차이를 지닌다.
- (4) 즉 죄의 종살이는 가혹하고 혹독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23절; 5:12), 하나님의 의에 따라 순종하는 생활은 즐겁고 만족스러우며 생명과 평화에 이르게 한다(22절; 수1:8; 약1:25).
- (5)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성도들은 다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다시 죄의 종이 된다면 그는 마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함과 거북함을 겪어야만 할 것이다(참조, 잠26:11; 갈3:1-3; 딤후4:1-8; 벧후2:20-22).

26. ㉠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는 무슨 뜻인가? (19절)

- ㉠ (1) 이 말은 ‘너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비유로 말한다’는 의미이다(RSV,

NIV, I put this in human terms because you are weak in your natural selves).

- (2) 즉 '본성이 약하다'는 말은 인간적인 비유나 예화가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다.
- (3)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는 '죄의 종'과 '의의 종'을 대조하면서 성화(聖化)의 생활을 교리적으로 설명하였으나(15-18절), 이것이 본서신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되기 어려우므로 본절에서부터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취했던 죄악된 생활과 그 이후의 거듭난 생활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그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다.
- (4) 한편 바울은 이곳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때 종종 인간적인 비유를 잘 들었다(참조, 3:5; 고전9:8; 갈3:15).
- (5) 이와 같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생활의 이모저모를 이용하여 신령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깊이 스며 들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참조, 신6:11:18; 골3:16).
- (6) 사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거하며 또한 삶에 적용되어야 할 진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특별히 강단에서의 설교도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논리와 말의 잔치가 아니라 삶에 적용되고 또한 비뚤어진 생을 바로 잡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27. ㉠ 옛 생활의 특징은 무엇인가? (19절)

㉠ (1) 그것은 부정과 불법이다.

- (2) 여기서 '불법'(헬, 아노미아)이란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죄의 지배를 받는 인격체가 생활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말한다(참조, 갈5:19-21; 뱀전 4:1-5).
- (3) 특히 바울 당시 로마에 성행하던 불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육체의 정욕에 관련된 범죄들이었다.
- (4) 그 예를 들면 당시 로마에서는 부모들이 원치 않는 여자 아이들은 매일 밤 많은 수가 광장에 내버려졌다. 그리고 그 아기들 대부분은 매음굴을 경영하는 사람들에 의해 데려가 키워지고 종내는 그들의 하수인이나 창녀가 되고 말았다.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그 창녀들이 매일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그들의 혈육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정과 간음을 자연스럽게 행하였다(Martyr Justin).
- (5)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불법은 계속해서 또 다른 불법을 낳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법칙이다.
- (6) 처음으로 나쁜 일을 할 때는 망서리거나 겁을 낸다. 그러나 두번째로 그런 일을 할 때는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면 오히려 그 악한 일을 쾌락과 같이 즐기게 된다. 그리하여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면 수많은 다른 죄들이 생기게 되고 또 확산, 심화되어 가게 되는 것이다(참조, 약1:15).

28. ㉠ 새 생활의 특징은 무엇인가? (18절)

- ㉠ (1) 새 생활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보여 주는 생활의 특징은 '거룩함'이다.
- (2) 이 '거룩함'은 일찌기 구약 시대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표준이었다(레19:2).
- (3) 특별히 본절의 '거룩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기아스모스>는 시제상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헬라어에 있어서 '아스모스'(asmos)로 끝나는 단어는 어떤 일이 완성된 상태에 있음을 말하지 않고 진행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나타낸다.
- (4) 따라서 '거룩함' 곧 '성화'(聖化)는 하나의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 (5) 그러므로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만 한다(갈5:22,23;살전4:3-7).

29. ㉠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자유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라 (20, 21절).

- ㉠ (1) 그리스도를 알기 전,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는 의(義)에 대하여 자유롭다.
 (2) 그러나 이 자유는 참자유가 아니라 단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유이다.
 (3) 일단 죄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은 점점 더 죄의 굴레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며 결국은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된다(참조, 고후6:14-16).
 (4) 그 한 예로 눅15:11-24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 준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자유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렸고 그리하여 집을 떠나 먼 곳에서 일시적으로는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난 그의 자유는 다만 그를 또 다른 노예 상태로 이끌어 가는 결과를 가져 왔을 뿐이었다. 즉 그는 그릇된 욕망의 유혹에 빠져 마침내는 그 노예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참된 자유를 발견한 것은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순종했을 때였다.
 (5) 위의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포기한 자유는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익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며 다만 쓰라린 죄의 흔적만 남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그러므로 우리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죄된 행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21절;벧전1:14,15).

30. ㉠ 죄의 생활과 거룩한 생활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21-23절)

- ㉠ (1) 죄의 지배를 받는 생활은 결국에 가서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곧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잠8:36;약1:15;5:20;계21:8).
 (2) 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막10:29,30;갈6:8).
 (3)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망은 선물이 아니라 죄악된 행실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 임하는 것이나 영생(永生)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영생은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인 노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4) 이러한 사실은 이 부분(23절)에 '샅'으로 번역된 헬라어 <요소니아>가 '은사'(헬, 카리스마)와는 대조적으로 군대에서 병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품삷'을 뜻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KJV, RSV, wages).
 (5)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사망과 저주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빌3:13,14;딤후6:12,19). 그러나 승리의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항상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극기(克己)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전9:24-27).

본장의 요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8절).

제 7 장 죄와 율법 사이에서의 갈등

단락구분 1-6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 / 7-9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의 사역 / 10-13 죄의 악함을 보여 주는 율법의 사역 / 14 율법은 근본적으로 성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 / 15-20 율법은 성도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할 능력이 없다 / 21-24 율법은 성도를 자유롭게 해방할 수 없다 / 25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승리

1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3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7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나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9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13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14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6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0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히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말하라.

㉠ (1) 본장에서 바울은 성도가 죄와 율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 (2) 우선 본장의 서두에서 그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1-6절).
- (3) 그 다음 성도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며, 죄를 폭로하는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아직도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의 실존(實存)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다(7-24절).
- (4)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구원을 받으며,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한다(25절).

2. **㉠** 바울이 본장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라.

- ㉠** (1) 바울은 전장(前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濫用)하여 계속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생활을 정당화하려는 반율법주의자(Antinomianist)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반박하였다.
- (2) 이제 본장에서 바울은 건전한 신앙 생활을 저해(沮害)하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문제의 대두(擡頭)를 염두에 두고 있다.
- (3) 즉 '우리는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 (4) 이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문제에 대해 바울은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할 뿐이다'라고 명백히 답변하고 있다.
- (5)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율법론을 포함하고 있는 본장을 읽음으로써 율법과 관련된 제문제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얻을 수 있다.

3. **㉠**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 ㉠** (1) 율법주의란 인간이 율법의 각 조항들을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거룩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다(참조, 사58:2; 마15:1-9).
- (2) 따라서 이러한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행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의 목록표에 의해서 신앙을 측정한다(참조, 마23:23; 눅18:11).
- (3) 그런데 율법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일상 생활의 구체적인 죄들은 보면서도 그 죄들의 근원이 되는 본원적인 죄는 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즉 율법주의는 외면적인 면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나 그 내적인 모습은 간과해 버리고 만다(참조, 잠30:12; 고후10:12).
- (4) 이것은 율법의 참된 근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연유(緣由)한다.
- (5)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13:8,10; 마22:37-40). 이 같은 사랑의 정신을 망각한 율법의 준행은 다만 외식(外飾)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다(렘2:35; 눅16:15).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수23:6; 대상22:12; 잠28:7), 율법주의에 빠진 나머지 율법의 준수 여하에 따라 타인을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참조, 마7:21; 막7:6).

4. **㉠** 바울은 1-6절에서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 ㉠** (1) 바울은 이 부분에서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결혼법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2) 즉 유대인 결혼법에 의하면 남편은 살아 있는 동안만 그의 아내를 구속할 수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자유롭게 되므로 다른 남편을 맞이할 수 있다(23절).
- (3) 그런데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의 결혼에서는 자유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의 새로운 혼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1,4,5절).

5. ㉠ 바울이 특별히 결혼법의 예화를 들어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그 이유는 본서신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2) 여기서 ‘법’(헬, 노모스)은 ‘세속 법’(世俗法)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William Barclay),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K. Barret, W. Gutbrod).
 (3) 어느 경우이든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4) 즉 그들은 로마 제국의 입법 및 행정의 중심지인 로마에 거주했으므로 일반 법률에 매우 친숙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들 중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기독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열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1:8;6:17,18) 구약의 율법에도 친숙했을 것이다.
 (5) 이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미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유익하다.

6. ㉠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主官)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1절)

- ㉠ (1) 이 말은 ‘사망(死亡)은 모든 계약을 말소시킨다’는 법적인 원리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2) 즉 이 말은 ‘율법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의미이다(공동 번역).
 (3) 이렇게 볼 때 ‘죽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4) 이와 같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동안은 언제나 율법에 의해 구속되지만 사람이 죽으면 율법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사상이었다.
 (5)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하나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거역한 채로 육체의 생을 끝마쳤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악에 대한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오해의 여지를 지니고 있는 점이다.
 (6) 그러나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의 준엄하신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참조, 대하7:19-22; 호4:6; 암2:4).
 (7) 이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은 율법에 의해 정죄(定罪)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10:9; 고전15:2; 딤후3:15).

7. ㉠ 유대 사회에 있어서 결혼한 여자의 위치에 대해 설명하라(2, 3절).

- ㉠ (1)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한 남자와 결혼한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 있을 동안만 결혼 관계에 의해 그 남편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다.
 (2) 이러한 배경에서 2절의 ‘남편 있는 여인’에 해당하는 헬라이어 <휘판드로스>는 로마인의 아내가 아닌 유대인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로서 단순히 ‘결혼한 여자’를 뜻하지 않고 ‘남자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3) 그런데 유대인의 아내는 그 남편에게 이혼을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혼이란 오직 남자들에게만 허용된 특권이었기 때문이다.
 (4) 이처럼 혼인법(the law of marriage)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유대인 여자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그녀의 남편이 죽는 경우뿐이다(2절).
 (5) 여기서 바울은 옛 율법을 떠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남편이 죽은 유대 여자’에 비유하여 ‘성도는 영적으로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죽고 새 남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참조, 마25:1-13).
 (6)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갈5:22,23)를 맺는 새 생활이 요구될 뿐이다.

8. ㉠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 (1) 이 말은 우리가 법이 없는 생활을 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성도가 예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율법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2) 그렇다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참조, 삼상17:45; 계12:11).
- (3)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율법에 의지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
- (4) 그 결과 죄에 속한 옛 생활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으나 은혜에 속한 새로운 생활 안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참조, 8:4).

9. ㉠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무엇을 뜻하는가? (5절)

- ㉠ (1) 여기서 '육신'에 해당하는 헬라어 <사투스>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1:3), 둘째, 표면적인 육신(2:28), 셋째, 인간 전체 곧 '은 육신'(3:20), 넷째, 도덕적 또는 지적 연약성(6:19) 등이다.
- (2)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에서 새롭게 첨가하는 의미는 그의 서신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사상으로서 '죄된 옛 본성'을 뜻한다.
- (3)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죄에 물든 본성에 지배될 때'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NIV, controlled by our sinful nature).
- (4) 그러므로 죄에 물든 옛 본성에 지배되는 생활은 육신의 정욕을 좇아 사는 생활이며 그 결말은 영원한 사망이다(갈5:19-21).
- (5)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의 운명이다. 당신(나)의 주위에 이러한 사람은 없는가? 그에게 예수를 전하라(10:14,15; 사61:1,2; 행17:3; 고전1:23; 골1:28; 딤후4:2).

10.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6절)

- ㉠ (1)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문(儀文)의 묵은 것으로'가 아닌 '영(靈)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 (2) 여기서 '의문'으로 번역된 헬라어 <그람마>는 '글로 기록된 법조문'(RSV, NIV, the written code) 곧 '율법'을 의미한다(2:29; 고후3:6).
- (3)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힘을 부여하지 못하며 또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참조, 3:20; 5:20; 갈3:19).
- (4) 그러나 율법에 대한 복종과는 달리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으며 구원을 받게 된다(참조, 요4:23,24).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생활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지는 영적인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다(참조, 요16:13).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의 권위 아래 매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려 그의 지배를 받음으로 참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갈5:1).

11. ㉠ 7-25절의 개요를 말하라.

- ㉠ (1) 바울은 '율법이 죄냐?'는 질문으로 이 부분을 시작한다.
- (2)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본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죄에

서의 해방이 곧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바울의 주장(5절;3:20;4:15;5:13,20;6:14)을 죄와 율법을 동일시한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우려를 일소하기 위해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7절) 율법과 죄의 상관 관계를 밝히고 있다.
- (4) 즉 바울에 의하면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결코 죄와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이다(참조,3:20).
- (5) 특히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실제적인 체험을 실례로 들고 있다(7-13절).
- (6) 아울러 바울 자신의 이러한 개인적인 언급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려 하였으나 그 자신 안에서 여전히 죄가 활동함으로써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영적인 투쟁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묘사로 확대되고 있다(14-25절).

12. ㉠ 바울은 율법에 의하여 죄 의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7절)

- ㉠ (1) 율법은 우리 자신의 내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밝히는 거울과 같다(약1:22-25).
- (2)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하여 십계명 가운데 살인이나 간음 또는 도둑질이 아니라 ‘탐내지 말라’는 열번째 계명을 예로 들고 있다(참조, 신5:21).
- (3) 바울이 이와 같이 열번째 계명을 실례로 사용한 이유는 다른 아홉 계명들이 인간의 외적인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반해 이 열번째 계명만은 인간의 내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즉 열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달리 인간의 보다 근본적인 죄를 다루고 있다(참조, 마 5:28). 인간이 만일 탐심을 가지게 되면 그 탐심으로 인해 인간은 거짓말, 도둑질, 살인 등 계명에 의해 금지된 다른 모든 죄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 (5) 이러한 사실은 막10:17-27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의 경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 (6) 즉 그 청년은 외적으로는 매우 도덕적이었으나 자신의 내면적인 죄를 느낀 적은 없었다. 즉 그는 실로 간음을 범치 않았으며, 누구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거짓 증거하거나, 부모들에게 불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십계명 중 마지막 계명이 금하고 있는 ‘탐심’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다.
- (7) 그런데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자 그는 크게 슬퍼하며 가버렸다. 이것은 그가 여전히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를 거부하였음을 보여 준다.
- (8) 이와 같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 가운데 하나이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탐심을 갖지 않았더라면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울무와 정욕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이 탐욕을 버림으로써 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참조, 딤후6:9-12).

13. ㉠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貪心)을 이루었나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 (1) 이 말은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죄에 물든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그 율법의 가르침에 저항하려고 한다는 의미이다(참조, 고전15:56).
- (2) 즉 인간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그 악한 본성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려 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죄를 짓고자 하는 탐심에 사로잡힌다는 것이다.
- (3)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실례으로써 설명되어질 수 있다.
- (4) 어린아이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이 그 아이가 이제까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행동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정원의 화단 앞에 ‘꽃을 따지 말라’는 꽃말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흔히 고의적으로 정원의 꽃을 따다. 이러한 행동은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주의나 표지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 (5) 이와 같이 욕망을 억압하면 그것은 무의식(無意識) 중에 욕구 불만으로 바뀌고 그 불만은 어떤 지시나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표면화되든지 아니면 정상시의 생활 속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시킨다.
- (6) 이러한 양상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며, 아울러 인간이 규율과 규칙들에 의거하여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법적인 제재(制裁) 사항들은 다만 죄를 더욱 일깨워 주며 그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참조, 8:7; 갈4:8-11).

14. ㉠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과 관련하여 회심하기 이전과 회심한 후의 바울의 생애를 간략하게 비교 설명하라. (9-11절).

- ㉠ (1) 바울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었으며(행23:6) 그 종파의 규례에 매우 엄격히 순종하는 생활을 하였다(행26:5).
- (2) 바울은 빌3:6에서 그 자신의 이러한 옛 모습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義)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하였다.
- (3) 그러나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추구했던 율법의 준수는 실로 그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지 못하였다(9절).
- (4) 그 당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들을 열렬히 핍박했던 점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해 준다(참조, 행7:58; 8:1,9; 1-3; 22:20).
- (5)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道)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행 9:1-19)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즉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하나도 의롭지 않은 존재이며 오히려 죽음과 저주의 선고를 받아야 할 절망적인 처지에 있음을 자각했던 것이다(10,11절).
- (6)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참회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참조, 딤후전1:12-16).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품었던 죄가 율법이나 계명에 의해 새롭게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행3:19; 8:22).

15. ㉠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10-14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며(참조, 신6:5; 수22:5)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생명에 이르게’ 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신28:1-14; 시31:23).
- (2) 특히 후자의 사실은 레18:5에 잘 나타나 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 (3)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거룩하며’, 그 목적이 인간의 축복을 위한 것이기에 ‘선하다’(12,14절; 딤후전1:8).
- (4)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참된 의미를 망각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사망에 빠지게 되었다(3:23).
- (5) 이와 같이 인간이 사망과 저주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은 죄를 폭로하는 율법과 계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다(11,13절).

16. ㉠ 인간이 사망과 저주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이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위 문제(Q15)의 결론이 주는 실제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 ㉠ (1)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된 생각과 죄를 돌아보기 보다는 주변의 상황과 조건에 책임을 돌려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참조, 3:12; 출32:24; 삼상13:12; 15:21).
- (2)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욕구 불만을 충족하기 위해 죄 의식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법(法)까지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 (3)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은 선한 목적과 의도를 지닌 법의 이상(理想)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17. ㉠ 율법은 죄를 드러냄과 동시에 죄의 어머함을 보여 주는가? (13절)
- ㉠ (1) 율법은 죄의 악함을 보여 준다.
- (2) 사실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와 같은 것이 있음을 알지라도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지는 못한다(참조, 사5:20; 습1:12; 말2:17).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 이러한 죄의 본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3)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도 때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실수' 또는 '연약함'이라는 말로 핑계를 댈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며 또한 그 죄를 짓는 인간의 사악함을 일깨워 주신다(사29:15; 30:1; 겔8:12).
- (5) 따라서 성도들은 율법을 통하여 죄가 얼마나 악한 것들인가를 실감할 때마다 더욱 그 죄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기를 다짐해야 할 것이다(참조, 욥10:14; 시32:5; 38:18).
18. ㉠ '율법은 신령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4절)
- ㉠ (1) 이 말은 율법이 영(靈)이신 하나님(요4:24)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신령하다는 의미이며 아울러 율법이 '영적인 것'(공동 번역)임을 알려 준다.
- (2) 여기서 율법이 '영적이다'라고 함은 그것이 인간의 외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 곧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다루고 있다는 뜻이다.
- (3) 그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은 인간의 외적인 행위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참조, 출19:1-24:18).
- (4) 그러나 신명기에서 선지자 모세가 다시 율법을 재론(再論)할 때에는 그 율법은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영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영적인 면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신10:12,13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한편 신명기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거듭 나오고 있는데 이 사실은 율법이 인간의 내면적인 영역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신4:37; 6:4-6; 10:12; 11:1; 30:6-20).
- (5) 뿐만 아니라 본서신 13:10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율법이 단순히 인간의 외적인 행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인간 상호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면을 다루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좋은 예이다.
- (6) 따라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율법을 대할 때 그것이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율법으로부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 ㉠ 14-25절에서 나오는 '나'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 ㉠ (1) 고대 세계에서 1인칭 '나'(헬, 예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수사학적(修辭學的)인 용어로 잘 사용되었다. 오늘날 유대교의 율법 선생인 랍

비들도 1인칭 '나'를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W. G. Kummel).

- (2) 바로 그와 같은 유대적인 용법을 사용하여 바울은 이 부분에서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하나인 자기 자신과 죄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나'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 (3) 다시 말해 이 부분에 등장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다.
- (4)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와 달리 이 부분의 '나'라는 대명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Donald M. Davis, Anders Nygren, Bengel).
- (5)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14절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표현은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는 점.
 - ② 18절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열매들인 선행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와는 정반대의 형편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점.
 - ③ 24절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표현은 중생(重生)을 체험한 뒤에 누리게 되는 기쁨과 자유함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
- (6) 그러나 우리는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위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Augustine, J. Calvin, Luther).
 - ① 15절에 죄를 미워한다는 표현이 나옴.
 - ② 15-21절에 묘사된 사람은 죄를 싫어하는 반면 선행을 원하고 있음.
 - ③ 22절의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는 표현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묘사하고 있음.
 - ④ 24절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절규는 거듭난 사람이 회개한 후에도 여전히 죄가 남아 있다는 사실(참조, 갈5:16-18)에 대해 괴로와 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임.
 - ⑤ 25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리의 응답임(참조, 고전15:57).
- (7) 그러므로 이제 이 부분을 읽는 성도들은 이 '나'라는 대명사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읽으면서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것임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 ㉠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본절에 '육신에'로 번역된 헬라어 <사르키코스>는 단순히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는 <사룩스>와는 달리 '육적(肉的)인 것'이라는 뜻을 지닌다(KJV, RSV, carnal).
- (2) 이렇게 볼 때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는 말씀은 '나의 본성은 육적이다'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 (3) 그런데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음을 시사한다(참조, 히12:4; 벰전 2:11).
- (4)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율법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면 전혀 죄와 무관한, 거룩하고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는 율법에 거스려 대항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참조, 시51:5; 마15:19,20).
- (5)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참조, 요5:14; 8:11; 고전15:

34). 우리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가운데 죄악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잠28:13; 갈1:18,25).

21. ㉠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5, 18절)

- ㉠ (1) 그리스도인은 옛 죄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새롭게 살려고 결심을 할 때가 있다.
- (2)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가? 그는 자신의 모든 의지력과 힘을 다하여 그 결심을 부분적으로 성취하는 듯하다가 다시 실패하는 수가 많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가리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15절).
- (3) 이 말은 바울이 실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고 비록 그가 순종을 한다 해도 여전히 악이 그와 함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18절).
- (4)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5) 그 이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옛 본성'(엡4:22; 골3:9)이 있으며, 이 본성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6)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본성을 제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주장하시도록 내맡겨야 한다(참조, 시143:10).

22. ㉠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원하는 바,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16, 17, 19, 20절)

- ㉠ (1) 그 이유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기인하지 않는다. 바울은 율법이 올바른 행동,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을 가르치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16절).
- (2)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선행을 하지 못한 까닭이 율법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시와 같은 잘못된 태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 때문에 율법에 반대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말인가?
- (3) 바울은 그 이유를 그리스도인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는 죄의 권세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17, 20절).
- (4) 여기서 바울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있는 데 대해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실제적인 범죄자, 즉 인간의 내부 안에 거하고 있는 죄를 지적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죄는 아담의 타락(창3:6) 이후 모든 인간이 지니게 된 본원적인 죄를 말한다(참조, 5장 ㉠9, 10, 11).
- (5) 이와 같이 육신의 욕망과 죄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죄의 지배를 받아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 (6)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다(8:9,11; 요14:17; 고전3:16).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욕망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요16:13; 갈5:16-23).

23. ㉠ 21-24절은 무엇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가?

- ㉠ (1) 이 부분은 성도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속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2) 이는 성도의 이중 생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뜻 사이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 (3) 그런데 이러 영적 싸움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이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반면 그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역사(役事)하시기 때문에 일어난다(갈5:16,17).

- (4) 성도가 이러한 영적 투쟁에 있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뿐이다(히10:22).
- (5) 여기서 성령을 좇아 행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은유, 절제가 나타나는 생활을 실천한다는 것이다(갈5:18-23).

24. **㉠** 바울은 죄로 인해 고민하는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3, 24절)

- ㉠** (1) 그는 '성도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만(22절; 시119:35) 결코 율법으로부터는 죄를 정복하는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 (2) 그런데 여기서 '죄의 법'이란 육체를 통하여 성도의 전인격(全人格)을 점령하며, 악을 성취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 (3) 이와 같이 죄의 법에 사로잡힌 성도는 피곤하고 실의와 좌절에 빠지게 되어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참조, 시31:10;40:12).
- (4) 바울은 성도의 이러한 상태를 염두에 두고 '오호라 나는 곤고(困苦)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라고 탄식하였다(24절). 여기서 '곤고한'에 해당하는 헬리어 <탈라이포로스>는 전쟁에서 패전하여 적의 포로로 잡힌 병사가 매우 지쳐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로서 '비참한'이라는 뜻을 지닌다(KJV, RSV, wretched).
- (5)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힘을 다하여 선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그 자신이 온전히 선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커다란 실망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때 그는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외치는 신앙적 자세를 나타내야 한다(시25:5;27:14;호12:6).
- (6)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신의 무능을 시인하면서 오로지 당신의 힘과 은총에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런 자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사10:31;렘29:13;33:3).

25. **㉠** 성도가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25절)

- ㉠** (1) 그 길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참조, 시37:3-7).
- (2) 인간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타락하였기 때문에(3:23) 자력(自力)으로 죄를 억제하고 선을 행할 수 없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죄를 극복하며 스스로 의로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사30:15;눅19:14;벧후2:10).
- (4) 그러나 자기 의지를 꺾고 전폭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으며 죄악의 모든 세력을 꺾어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참조, 딤후2:11,12).
- (5)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악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이다(요16:33;골2:13-15).
- (6)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법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잠3:6).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준비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외면적인 생활에 있어서 참된 기도와 예배와 전도를 실천하며 의의 길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시1:1-3;5:8).

제 8 장 성령 안에 사는 삶의 축복

단락구분 1-4 성령 안에 사는 성도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된다 / 5-11 율체를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차이 / 12-17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성령의 역사 / 18-25 성도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해야 한다 / 26-27 성도의 연합함을 도우시는 성령 / 28-30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예정 / 31-34 구원을 확신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 35-39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4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19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3 이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합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3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말하라.

- ㉠ (1) 본장은 일명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우는 갈라디아서 5장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 (2) 그런데 본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네 가지 영적 자유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 (3)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1-4절).
- (4) 둘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며 우리는 그 영의 뜻대로 생활함으로써 '패배'로부터 해방되었다(5-17절).
- (5) 셋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실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18-30절).
- (6) 넷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위한 중재(仲裁)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므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31-39절).
- (7) 한편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생활이 승리의 생활임을 말하고 있는 본장에는 특별히 '성령'이란 단어가 19회나 나온다(2,4-6,9-11,13-16,26,27절).
- (8) 이것은 성도가 참자유를 누리며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役事)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참조,고후3:17).

2. ㉠ 바울이 본장 서두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1절)

- ㉠ (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다.
- (2) 이러한 내용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3:20의 기록과 연결된다.
- (3) 그런데 여기서 '정죄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타크리마>는 심판의 결과에서 나오는 '유죄 판결'(KJV, RSV, condemnation)을 가리킨다.
- (4) 이렇게 볼 때 본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뜻이 된다.
- (5)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잘못이 없다'거나 '실패를 하지 않는다'거나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도 실수를 범하고 실패도 하며 죄를 짓는다(참조, 창 12:11-19;20:2-18;삼하11:1-27;요18:10,11).

- (6)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범죄 때문에 일시적인 고통은 당하지만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벧전2:24).
- (7)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요1:28;17:12).
- (8)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러한 축복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도들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온 행동이라 할 수 있다(참조, 마7:1-4).

3. **Q** '성령의 법'을 '죄의 법'과 대조시켜 설명하라 (2절).

- A** (1) '성령의 법'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생활에 언제나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법을 말한다(참조, 히9:14).
- (2) 반면 '죄의 법'은 죄가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하여 악을 따르게 하며,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을 말한다(참조, 7:23,24).
- (3) 그런데 성도는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에 따라 생활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은 '죄의 법'보다 그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이다(요8:34-36).

4. **Q** 율법이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A** (1) 율법은 인간에게 어떤 사항들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을 정죄(定罪)한다(4:15). 그러나 이제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 없다.
- (2)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이다(벧전2:24). 즉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율법이 할 수 없는 용서와 죄 사함을 주셨다.
- (3) 다시 말해 율법은 인간을 정죄는 하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극복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무능력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또 당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요1:12).
- (4) 성도들은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원인이 율법을 지켜 행한 데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사실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저러한 일을 하라'는 율법적인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복음적인 말을 해야 할 것이다(참조, 행20:24).

5. **Q**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A** (1)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의미이다.
- (2)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표현을, 예수의 인성(人性)을 부정하는 문귀로 이해하는 것이다.
- (3) 만일 이 문귀를 그와 같이 이해한다면 예수는 참사람이 아니라 단지 외적으로만 사람의 형체를 입고 왔다는 가현설적(假現說的)인 이단 사상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참조, 요일4:2,3; 요이1:7).
- (4) 그렇다면 이 문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무엇인가?

(5) 우리가 이 문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 증거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성경의 내증(內證)을 잘 알아야 한다.

- 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1:14).
- ②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갈4:4).
- ③ ‘오히려 자기 형체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빌2:7).
- ④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펴전2:5).
- 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딤펴전3:16).

(6) 위에서 볼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는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참사람이었으나 죄인은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7)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똑같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며, 반대로 이 일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成肉身)하셨다는 사실은 영을 분별하는 시금석(試金石)이 된다(요일4:1-6).

6. **㉠** 바울은 신자의 삶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4절)

- ㉠** (1) 그 목적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 (2) 율법은 본래 흠이 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시였지만(7:12)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했을 때에 늘 실패하였다(7:14-24). 즉 자만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과장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최소화하고자 하나,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보려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므로 마침내 절망하게 되는 것이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를 의지하는 자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셨다.
- (4) 즉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므로 의로운 율법(시 19:7; 119:142)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하셨다.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 많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따라 살 때에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빌2:13).
- (6)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려는 것은 무리하고 어리석은 일이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7. **㉠**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의 차이를 설명하라(5-8절).

- ㉠** (1)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다(참조 9절).
- (2) 둘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중심을 두고 살지만(갈5:19-21; 뱀후2:10-22)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뜻에 따라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갈5:22-25). 그런데 이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좋은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다는 뜻이거나 성도는 결코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 (3) 셋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으며 그 결과 그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설령 그가 도덕적이며 종교

적인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결핍되어 있다(요일5:12).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체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요3:36).

- (4) 네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에게는 평강(平康)이 없지만(7절; 사48:22)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5:1).
- (5) 다섯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기심(利己心)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만 찾아 다닌다(8절; 요5:44). 그러나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전10:31)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참조, 히12:28).
- (6) 이상에서 볼 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7)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삶은 그 근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도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참조, 갈5:6).

8. **㉠**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어떻게 정의(定義)하고 있는가? (9절)

- ㉠** (1)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자기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2)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 (3)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다(참조, 고전6:9, 20).
- (4)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성령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애3:40; 엡5:15-17).

9. **㉠**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 ㉠** (1)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성도의 영적 상태를 언급하고 있다.
- (2) 우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본질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3) 먼저 성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범죄(창3:6)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참조, 창2:17).
- (4) 그 다음으로 성도는 비록 한번은 죽게 되어 있지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이다(고후4:12; 골2:12).
- (5) 이와 같이 성도란 존재는 죽음과 삶이 교차되는 상태에 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성도는 자기의 본분에 맞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 (6) 성도여, 당신은 죽은 몸을 가지고 생활할 것인가? 아니면 산 영을 가지고 생활할 것인가?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죽은 몸이 추구하는 죄에게 이끌리지 말고 산 영이 추구하는 의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참조, 6:12-14; 벧후1:5-7).

10. **㉠** 성도의 부활은 어떤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 (11절)

- ㉠** (1)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진다.
- (2)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1:4). 즉 하나

남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써 어느 피조물도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예수의 몸에 행하시어 예수를 부활시키셨던 것이다(참조, 행2:23,24;3:14,15;4:33;10:39-41;13:10;17:2,3). 하나님께서는 이 같이 성도들도 부활시키실 것이다.

- (3)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부활의 영이 당신(나)의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나)은 이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참조, 히2:14,15). 왜냐하면 성도가 죽는 것은 불신자들처럼 멸망하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죽는 것이기 때문이다.

11. ㉠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2절)

- ㉠ (1)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제 언급할 내용들이 앞절들(1-11절)에서 밝혀진 영적 원리들에 근거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즉 사도 바울은 성도들 안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想起)시키면서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성도가 다짐해야 할 삶의 자세를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다.

12. ㉠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가 다짐해야 할 삶의 자세'란 어떤 것인가? (12절)

- ㉠ (1)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를 '빚진 자'(debtors)로 묘사한다. 이 '빚진 자'란 표현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성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창6:5, 6, 12; 욥15:14-16; 시51:5; 렘17:9; 눅11:4).
- (2) 즉 성도는 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을지라도 아직 죄의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단계까지는 들어서지 못한 상태에 있다.
- (3) 그러므로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성도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정욕은 계속하여 도전해 온다(참조, 요일2:16).
- (4)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항상 그 육신의 도전을 직시하고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사는' 죄의 생활을 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 (5)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도가 죄의 생활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항상 육신의 도전에 대처하는 삶의 자세를 갖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 (6) 사실 성도라 자처하는 우리들의 생활 중에는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지나친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들은 자신도 모른 사이에 육신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는 혹 우리 육신이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에 이르는 비결이다(참조, 고후4:16-18).

13. ㉠ 어떻게 하면 생명을 누리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13절)

- ㉠ (1)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된다.
- (2)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육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육신의 죄성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그런데 바울은 다른 곳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3:5)고 엄중히 명령한 바 있는데 이도 역시 본절과 같은 의미의 표현이다.
- (4) 특별히 본절 말씀에서 동사만 빼내서 생각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살면...죽을 것이로되...죽으면 살리니.' 이것은 일찌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역설적인 생사관(生死觀)과도 일맥 상통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16:25).
- (5) 우리는 생활 가운데 바로 이러한 영적 원리를 잘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즉 육신의

정욕을 물리칠 때 비록 일시적으로는 고통과 희생이 뒤따를지라도 ‘죽으면 살리라’ 하신 영적 원리를 기억하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예5:16; 요11:25, 26).

14. **㉠** 바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14절)

- ㉠** (1) 교회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다(마7:21).
- (2)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다(참조, 요1:12,13).
- (3)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다(참조, 12:12). 예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마7:21)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
- (4) 성도로 자처하는 자들은 형식적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기에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참조, 엡5:15-17).

15. **㉠** 성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 (1) 그 이유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養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 (2)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두려움을 느끼는 노예로 만드는 영’(NIV, a spirit that makes you a slave to fear)이란 뜻으로 이는 실제로 이러한 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가상적(假想的) 표현이다.
- (3) 이러한 양자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양자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된 대역 죄인(大逆罪人)이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법적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다(5:8-10; 엡2:1-3).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감히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 (4) 여기서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란 뜻을 지닌 아람어로서 특별히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하셨던 말이다(막14:36). 본절에서 바울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와 같은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함이다(갈4:6).
- (5)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의 신분을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깊은 의미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6:9).

16. **㉠**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16, 17절)

- ㉠** (1) 위에서(15절) 언급한 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요1:12; 계3:20)는 친히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받는다(갈4:6).
- (2)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후사(後嗣) 곧 상속자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는 하나의 명예적 칭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소유와 영광을 물려받을 법적 권리를 의미하는 칭호인 것이다.
- (3) 더 나아가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성도가 누리게 될 엄청난 영광을 암시함과 동시에 그러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 가는 생활을 해야만 한다(참조, 마16:24).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 (5)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께 나아온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에는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은 회피하려고 한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권을 채우려는 배은 망덕하고 파렴치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17. ㉠ 성도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때 어떠한가? (18절)

- ㉠ (1)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참조, 고후11:25-28) 내세(來世)에 있어서 받을 영광은 그 모든 고난을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할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 것이다(사65:16,17; 요16:21; 계21:4).
- (2) 그렇기에 바울은 본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 (3)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고난은 피조물로부터 오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나 미래의 영광은 창조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다(참조, 8:38,39). 현재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써 끝날 수 있다(마10:28). 하지만 미래의 영광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전15:40-44).
- (4)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영광을 생각한다면 지상에서 당하게 되는 그 어떠한 시험과 불 같은 환난도 기꺼이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다(히11:35-40; 벰전4:12).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들(19-25절)을 통해서 미래의 영광과 그에 대한 소망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18. ㉠ 고난과 영광에 관한 이 부분에서 갑자기 ‘피조물’이 언급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 ㉠ (1) 여기에서 ‘피조물’(creation)이란 피조 세계의 모든 사물들을 일컫는 제유법(提喻法)적인 표현이다.
- (2) 이처럼 이 부분에서 피조 세계의 모든 사물들이 언급되어지는 것은 미래의 영광이 지니고 있는 폭과 규모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 (3) 그러므로 성도가 부활하여 영광을 누릴 때에는 비단 성도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도 새로워진다.
- (4) 이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 역사(役事)가 성도의 구속에 제한되지 않고 우주적 구속으로 확장되어 이루어질 것을 가리킨다.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성도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변화시키고 우주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신천 신지(新天新地)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계 21 : 1).
- (5) 여기에 성도들이 품어야 할 천국의 소망이 있다.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구태 의연한 천국 사상에서 진일보하여 이 놀라운 신천 신지를 기업으로 누릴 상속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환난과 시험을 견뎌내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19. ㉠ 피조물들은 무엇을 고대하며 바라는가? (18-21절)

- ㉠ (1)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곧 성도들이 부활 때 변화하여 예수와 같은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한다(빌3:21).

- (2) 이렇게 피조물들이 성도의 부활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때 그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이다(21절).
- (3)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피조물들은 ‘허무한 데 굴복하게끔’ 즉 허무한 물질계의 순환을 계속하게끔 되어 있다(20절). 이처럼 썩고 변하고 없어지는 물질계의 순환을 21절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KJV, the bondage of corruption)으로 묘사하고 있다.
- (4) 이러한 물질계의 변화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意志)에 따른 결과이다(20절). 즉 하나님께서는 우주적 구속이 있기 전까지 세상의 자연 법칙을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던 것이다. 우리 주위의 모든 자연을 보라! 어느 것 하나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 없다(참조, 시39:6; 약1:10; 벧전1:24; 4:7; 요일2:7).
- (5) 하지만 이러한 모든 자연 만물도 성도가 부활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NIV, the glorious freedom of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된다.
- (6)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성도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위의 사물들과 환경들에 대하여 항상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들을 다스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창1:18; 9:1, 2).

20. **㉠** 바울은 성도와 물질적인 피조물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가? (22, 23절)

- ㉠** (1) 바울은 성도와 피조물을 비교하면서 세 가지의 동일한 점과 한 가지의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다.
- (2) 그런데 성도와 피조물은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 즉 탄식하며 (참조, 고후5:2) 새 시대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 (3) 성도와 피조물을 비교하는 세번째 요소는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개념이다(23절). 성도의 몸이 구속된다는 것은 성도의 구속 곧 부활 사건에 수반되어 우주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과 합치(合致)된다(시102:26; 히1:11,12).
 - (4)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는 성도와 피조물이 분명히 구별된다. 즉 성도만이 피조물과는 달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1을 참조하라.
 - (5)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 대하여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참조, **㉠** 19).

21. **㉠**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23절)

- ㉠** (1) ‘처음 익은 열매’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사상이다.
- (2)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물과 과일 등의 첫 열매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했다(출23:19; 스10:35).
 - (3) 이러한 의식을 지킴으로써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배려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이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 (4) 이처럼 ‘처음 익은 열매’란 모든 열매에 대한 소유권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던 말이었다.
 - (5) 그렇다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 곧 중생한 성도의 영혼을 가리킨다(참조, 요3:5-8; 고후5:5; 약1:18). 이 중생한 성도의 영혼은 성경에서 새사람(new self, 엡4:2) 또는 새 생명(6:4)이라고도 불리어진다(참조, 고후5:17; 갈6:15; 골3:10).
 - (6) 이러한 성도의 중생한 영혼은 마지막 날 변화되어질 성도의 신령한 몸(15:44)이나 변

화될 물질계(신천 신지, 계21:1)와 합치되어질 성격의 것이다.

- (7) 여기에서 성도는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구별된 존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빌1:27). 즉 쾌락, 명예 등에 지배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창1:27; 고전7:29-31; 딤후6:9-12).

22. ㉠ '탄식'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2, 23절)

- ㉠ (1) 먼저 바울은 의인법(擬人法)을 사용하여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22절). 그런데 그것들이 탄식하는 이유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21절).
- (2) 이어서 바울은 중생한 성도들까지도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비록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된 속사람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된 환경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가리킨다.
- (3) 그렇다. 이 세상은 성도가 안주(安住)해 있을 수 없는 불완전한 처소이다. 성도는 결코 현세적인 소원 성취 곧 좋은 직장, 많은 재산, 화려한 학력(學歷), 높은 지위 등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 (4) 성도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양자가 될 때까지', '성도들의 몸이 구속되어 신천 신지에 들어갈 때까지' 탄식하는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 (5) 여기서 '탄식'은 26절에 언급된 성령의 탄식을 참조해 볼 때 성도들의 기도하는 생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구원의 날을 참고 기다리는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참조, 눅2:25; 23:51; 고전1:7; 빌3:20; 살전1:10; 딤후2:13).

23. ㉠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떠한 소망인가? (24, 25절)

- ㉠ (1)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다(25절).
- (2)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란 곧 신천 신지로 이루어질 천국을 뜻한다. 참으로 신천 신지에는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상태의 사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이다(제 21:5). 바울은 천국에서 들은 말을 '말할 수 없는 말'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다(고후12:4).
- (3) 이처럼 성도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곳이요 완전한 이상향(理想郷)이다.
- (4)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소망은 결코 지상에 인간적인 유토피아(Utopia, 이상향)를 건설하는 데에 있지 않다. 또한 기독교인의 소망은 과거에 존재했던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는 지상 천국을 주장하는 이단(여호와와의 증인, 통일교 등)이나 이방 종교들(불교, 이슬람교 등)과 완전히 다른 내세관(來世觀)을 갖고 있는 것이다.
- (5) 이제 우리 성도들은 보다 확실한 천국관, 내세관을 가지고 비기독교인들과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참조, 빌2:12; 딤후2:10; 히2:3).

24. ㉠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24절)

- ㉠ (1) 이 말씀은 소망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있을 뿐이다(엡2:8).
- (2)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NIV는 '소망으로'(KJV, by hope)라는 말을 '이 소망 안에서'(in this hope)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번역이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 주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도들은 앞절에서(24절) 언급되어진 천국의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다.

25. **㉠** 성도들이 천국에 대하여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5절)

- ㉠** (1) 성도들은 비록 구원을 받았으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그 구원은 현재 진행이며 미완료(未完了)의 상태에 있다.
 (2) 즉 성도에게는 아직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위의 환경들도 그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3) 만일 한번의 구원으로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면 성도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4)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소망을 가져야 하며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려야만 한다'(히10:36; 약1:4; 5:7).
 (5) 이러한 점에서 '인내'와 '기다림'은 성도가 지녀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전13:4). 성도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떠한 환난과 궁핍과 멸시와 시험과 유혹 중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또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35-39절; 마24:13).

26. **㉠**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은 누구인가? (26, 27절)

- ㉠** (1) 우리 성도들은 험악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다. 우리의 소망은 계속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으므로 세상에 보이는 부귀, 영화, 쾌락 등은 항상 성도에게 유혹이 된다.
 (2)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데에 있다(26절).
 (3)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15절)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
 (4) 즉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15절).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인도하신다.
 (5) 이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경험이다. 당신은 이러한 기도를 체험해 보았는가? 이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는 최대의 원동력이 된다(참조, 창18:32; 막9:28,29; 행4:31,32; 약5:16-18; 요일5:14).
 (6)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 자기 마음을 맡겨 드리는 자세를 구비해야만 할 것이다(요일5:14).

27. **㉠**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28절)

- ㉠** (1)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의 생애가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선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의미이다.
 (2) 이러한 의미에서 NIV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을 위하여 역사하신다'(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라고 번역하였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면 인간은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여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선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인간 측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본문의 표현 가운데에서 발견된다.
 (4) 즉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신10:12; 11:1; 30:6; 수22:5; 시31:23; 마22:37).
 (5) 본문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람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을 세우려는 자세를 갖고 생활한다(참조, 마26:39,40). 이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자는 선한 결실을 맺을 것임에 틀림없다.

28. **㉠**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29절)

- ㉠** (1)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닮게 하시기 위해 성도들을 택정하셨다는 말씀이다(참조, 고후3:18;5:14-17; 빌3:20,21).
- (2) 이처럼 예수를 닮게 될 때 성도들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28절).
- (3) 한편 성도가 예수를 본받게 되기 위하여 예정되었다는 것은 성도들의 운명이 모두 그리스도에게로 귀속되어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도록 예정되어 있다(6:5,8).
- (4)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에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된다. 당신(나)은 과연 예수를 본받고 있는가? 당신(나)의 생활은 과연 어떠한가?
- (5)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시라고 불리움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작은 아들이라고 불리울 만한가? 우리는 과연 작은 예수라고 불리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2000년 전 팔레스틴을 거니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지금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계속되고 있는가? 그분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당신의 몸에서도 발견되고 있는가? (갈6:17)

29. **㉠**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30절)

- ㉠** (1) 본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과정, 즉 예정, 소명, 칭의, 영화의 4단계가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은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서정(序程)’ (Ortho Salutis)이라고 불리운다.
- (2) 구원받을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고 다음에 외적 소명(인간의 전도)과 내적 소명(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 신령한 몸과 마음을 지닌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되어진다.
- (3) 이러한 구원의 과정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의 행위나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실수나 부족함 같은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어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 (4) 이러한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구원의 과정을 ‘과거형’ 시제로 서술하였다. 더우기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영화’마저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진술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한 신학자는 본절을 ‘성경 가운데 가장 담대한 귀절’이라고 표현하였다(Denny).
- (5) 그러므로 우리도 이 귀절을 통해서 바울처럼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확립하고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만 할 것이다(수1:6; 요16:33; 딤후4:7).
- (6) 한편 본절과 관련된 다른 성경 귀절들을 종합하여 신학자들은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재구성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소명 ②중생 ③회개 ④믿음 ⑤칭의 ⑥수양(adoption, 하나님의 양자가 됨) ⑦성화 ⑧견인 ⑨영화. 여기에서 소명의 전(前)단계로 ‘택정’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구원의 서정은 10단계가 된다.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인 개념 가운데에서 그 순서가 정해졌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 구원의 서정 중 몇 단계가 단 한 순간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30. ㉠ 31-39절에 기술된 '바울의 대선언'에 있어서 그 중심적 요점은 무엇인가? (31, 32절)

- ㉠ (1) 바울은 성령을 받은 성도가 소유하고 있는 신분과 처지를 이야기한 후(1-30절) 이제 결론으로서 성도가 지니고 있는 특권에 대한 위대한 선언을 하기 시작한다(31-39절).
- (2) 이러한 바울의 대선언에 있어서 중심적인 요점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귀절에 잘 나타나 있다.
- (3) 한 마디로 하나님은 '성도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도를 어느 정도로 위하시는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바울은 32절 말씀을 서술한다.
- (4)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위하시고 사랑하셨다(32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소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다(참조, 요10:30; 빌2:6). 이처럼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벧후1:3).
- (5)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지니고 있는 엄청난 특권이다. 이 엄청난 특권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을 대적할 자가 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 (6)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 놀라운 특권을 소유한 자로서 다음과 같은 신약 성경의 적극적인 명령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4:7).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벧후5:8,9).

31. ㉠ 바울이 제기한 일련의 질문들이 지니고 있는 관련성을 설명하라 (31-35절).

- ㉠ (1) 바울은 '누가...'라는 말로 시작되는 네 개의 질문들을 차례로 제기하면서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특권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 네 개의 질문들은 '누가...대적하리요'(31절), '누가...송사하리요'(33절), '누가...정죄하리요'(34절), '누가...끊으리요'(35절) 등이다.
- (2) 이 질문들 중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30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질문이다(31절). 나머지 세 개의 질문들은 위의 질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질문 성격을 지닌다.
- (3) 한편 성도에 대한 원수의 '대적 행위'는 ①송사(訟事)하는 행위(33절), ②정죄하는 행위(34절), ③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행위(35절) 등으로 나뉘어진다.
- (4) 여기에서 ①송사와 ②정죄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순서로서 오늘날의 법정 용어로 말하자면 검사의 기소(起訴)와 판사의 판결(判決)을 가리킨다. 그리고 ③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다는 것은 판결된 형벌을 시행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대적 행위가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39절).
- (5) 위에 언급된 원수의 대적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32.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32. ㉠ '누가...송사하리요'란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3절)

- ㉠ (1) '송사'란 재판의 처음 단계로 검사가 죄의 혐의를 주장하여 피의자(被疑者)를 재판부에 기소하는 절차를 말한다.
- (2) 그런데 오늘날 성도를 대적하는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계12:10). 즉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은 끊임없이 성도의 '고백'과 '행함'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기에 바쁘지만 그들은 결코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
- (3)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윗이 말한 바와 같이(시51:4) 모든 죄는 비록 그것이 타인

들에게 영향을 크게 끼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를 사면(赦免)해 주신다면 사단의 송사는 허사로 끝날 수밖에 별 도리가 없지 않겠는가!

- (4) 특별히 바울은 성도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표현함으로써 사단이 하는 송사의 법적 무용성(無用性)을 강조한다.
- (5) 그러나 오늘날도 사단은 대적자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연약성을 참소하면서 실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참조, 막13:22; 눅22:31). 이에 우리들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단의 참소를 물리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5:6,8,10;엡1:4-6;2:4,5).
- (6)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M. Luther)는 실제로 사단에게 못 견딜 정도의 참소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그렇다. 나는 네가 참소하듯 흉악한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외침으로써 사단을 물리쳤다고 한다(참조, 딤펢1:13-16).

33. ㉠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한 질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가? (33, 34절)

- ㉠ (1)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 성도가 의롭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려고 한다.
- (2) 34절 하반절에 소개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으며 성도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4:25).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도 성도들의 자범죄(自犯罪)를 인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仲保祈禱)를 하고 계신다.
- (3)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다고 판결하심도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성도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아니한다(8:1;사50:9;눅6:37;요3:18;5:24).
- (5)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며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꿇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34. ㉠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5, 36절)

- ㉠ (1)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수치스런 환난을 끊임없이 당하는 것을 보니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음이 분명하다'라고 할지도 모른다.
- (2) 만일 이러한 논리가 타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박히는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요10:17).
- (4) 이렇게 볼 때 성도의 환난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음에 대한 표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을 인정하고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욥1:8;2:2,3;행5:41).

35. ㉠ '누가...끊으리요'라고 한 바울의 질문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는가? (35절)

- ㉠ (1)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은 송사(33절), 정죄(34절)의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사단의 공세(攻勢)이다.
- (2) 욥의 경우에도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송사와 정죄를 한 후(욥1:9-11;2:4,5) 욥에게 갖

가지 환난을 가함으로써 읍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였다(욥1:13-19;2:7-9).

(3) 읍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사단은 성도에게 환난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성도에게 환난을 가하는 사단의 활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욥1:12;2:6). 즉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성도를 마음대로 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마10:29-31;요일5:18).

(4)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성도에 대한 사단의 마지막 공세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36. **㉠**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 일곱 가지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35절).

㉠ (1) 본절에서 바울이 열거한 환난의 목록들은 사실 바울 자신이 생전에 체험했던 것들로 고후12:23-28에 구체적인 간증을 통해 나타난다.

(2) 환난의 목록들과 그 의미 그리고 바울의 체험을 연결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어려움	NIV의 번역	의 미	고후 12장
1	환 난	trouble	모든 종류의 고통이나 손실을 의미	23-28절
2	곤 고	hardship	내면적으로 당하는 곤경, 불안, 걱정	28절
3	핍 박	persecution	부당하게 폭력으로 고통받는 상태	24, 25절
4	기 근	famine	굶주림과 가난	27절
5	적 신	nakedness	헐벗음, 수치	27절
6	위 험	danger	사람과 자연으로부터 당하는 예기치 못한 피해	26절
7	칼	sword	세상 사람들의 무력(武力)	24절

37. **㉠** 성도가 당하는 환난의 정도는 어떠한가? (37절)

㉠ (1) 성도가 당하는 환난의 정도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고라 자손에 의해 썩여진 시44:22에 잘 나타나 있다.

(2)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을 바울은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한다. 즉 그는 도살당할 양처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운명과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3) 왜 그러한가? 그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도수장(屠獸場)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사53:7).

(4)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극한 환난에 처하여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들보다 앞서 환난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의연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참조, 행20:24; 고전4:9; 15:30, 31; 고후4:10, 11).

38. **㉠** 성도가 죽음의 환난마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7절)

㉠ (1) 먼저 '넉넉히 이긴다'고 한 본문의 표현은 승리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성도는 비록 죽음의 환난을 당하여 순교할지라도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다. 승리도 보통 승리가 아니라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승리이다.

(2) 또한 그 승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의 승리이다. 경미한 역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환난에서도 성도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

(3) 이와 같은 성도의 완전한 승리는 '주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주께서 성도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은 과거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이었으며(5:8), 현재에도 계속되는 사랑이며(계3:9), 미래에도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이다(참조, 요13:1; 히13:8).

(4) 이처럼 성도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37절) 환난을 받아 죽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시9:13; 요5:21).

(5)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을 받아 죽었을지라도 사실은 살아 있는 것이다(고후6:9,10). 천하의 영웅 호걸도 무력하게 굴복하고 말았던 죽음을 통쾌하게 제압해 버리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고전15:55-58).

39. ㉠ 바울은 최후로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가? (38, 39절)

- ㉠ (1)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 (2) 그 아홉 가지 용어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용 어	의 미
1	사 망	육체로 사망케 하는 세력(고전15:55; 히2:14)
2	생 명	위의 사망을 강조하기 위한 대조법적인 표현(참조, 고전3:22)
3	천 사 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히1:14)
4	권 세 자 들	성도를 대적하는 악령의 세력들(엡1:21; 2:2; 6:12)
5	현 재 일	현재에 역사하는 모든 세력
6	장 래 일	미래에 역사할 모든 세력
7	능 력	천사, 권세자들과 같은 영적 존재(벧전3:22)
8	높 음	지상,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세력
9	깊 음	지하, 물 속에 있는 모든 세력

- (3) 위와 같은 모든 세력들도 결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한 바울의 대 선언은 가까이로는 35절에 대한, 멀리로는 1-8장 전체에 대한 총결론(總結論)이라고 할 수 있다.
- (4) 이제 바울은 그의 위대한 서신을 쓰는 등산에 있어서 산봉우리까지 도달한 셈이다. 앞으로 남은 일은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에 있어서 수반되는 특수한 문제들, 즉 유대인의 구원 문제(9-11장)와 복음적 삶에 대한 문제(12-15장)를 논의하는 작업이다. 이제 로마서의 정상(頂上)에 올라선 우리는 위의 두 문제를 다루면서 하산(下山) 코스를 밟으려 한다.

연구자료

구원의 순서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심으로 객관적이며 역사적인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 성도 각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하여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고 이때 비로소 구원받는 자가 된다. 그러나 인간은 자의로 구원에 참여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께서 아래와 같이 개개인의 마음과 생활에 구원을 적용할 때에야 비로소 구원이 성취된다.

1. 소명(召命)

그리스도에 의하여 준비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다.

① 외적 소명 : 성령은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죄인에게 전파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부르심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마22:14; 막16:15, 16; 행13:46).

② 내적 소명 : 외적 소명이 구원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는 성령의 내적인 감동하심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적인 감동은 진실한 의미의 유효한 소명이다(행13:48; 고전1:23, 24).

2. 중생(重生)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요 3:3, 5)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약1:18; 벰전1:23) 이러한 중생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3. 회심(回心)

중생으로 생겨난 새로운 성향으로 세상과 죄악을 향하여 살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는 새로운 각오이다.

① 회심의 소극적 요소 :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지적 요소, 롬3:20), 자기의 죄를 미워하며(감정적 요소, 고전7:9, 10), 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의지적 요소, 롬2:4) 회개를 가리킨다.

② 회심의 적극적 요소 :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여(지적 요소, 딤후1:12), 그 말씀을 구원의 진리라고 찬동하며(감정적 요소),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대로 살아가려는 결의(의지적 요소, 히6:11) 인 신앙을 가리킨다.

4. 칭의(稱義)

인간은 죄인이므로(욘9:2; 전7:20; 롬3:10)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나 의롭다 인정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즉 칭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의를 전가받아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롬3:24).

5. 양자(養子)

마귀의 자녀였던 죄인을 칭의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의 법적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상속권과 자녀의 친서를 부여하여 주신다(롬8:17; 벰전1:4).

6. 성화(聖化)

중생된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오염을 점차 제거하여 완전히 성결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16:13; 요일2:27; 벰전2:2; 벰후3:18) 성도들을 인내(롬5:4) 하도록 하며 연단(히5:14; 벰전1:7)하여 경건의 연습(딤후4:7)을 시키는 것이다.

7. 성도의 견인(堅忍)

성령의 역사로 내적 소명을 받음으로 중생하여 진실한 성도가 된 자는 성령께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완전 타락하거나 배교할 수 없다(요10:28, 29; 딤후1:12; 4:18).

8. 영화(榮化)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며(엡4:30), 장차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빌3:21), 영원히 하나님과 영적인 친교를 나눌 것이다(제21:3).

제 9 장 유대인의 구원 문제

단락구분 1-5 유대인을 위한 바울의 슬픔 / 6-13 참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정의(定義) / 14-18 참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 19-23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비유 / 24-29 이방인이 부름 받다 / 30-33 이스라엘의 실족(失足)

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4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 된 것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6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도 않다 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0 이 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15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

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1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

19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20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22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시며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5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합과 같으니라

27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 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28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펼하시므로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29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다

함과 같으니라

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

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33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1. 9-11장에서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논의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라.

- Ⓐ (1) 본서의 중심 메시지는 1:16,17에 압축되어 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
- (2)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1:16,17).
- (3) 바울은 이 부분에서 미리 밝힌 대로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1장부터 8장까지에 걸쳐 논의한바 있다.
- (4) 하지만 복음의 진리가 적용되어지는 데에 있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1:16b)라고 한 귀절이 시사하는 의미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 (5) 물론 바울은 인간의 죄와 칭의의 문제를 다룬 2-4장에서 유대인의 경우를 계속 언급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방인과 비교할 때 유대인이 우월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3:1-9).
- (6) 그러나 유대인의 구원 문제는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를 증거하고 난 후 이제 미진(未盡)하게 느껴왔던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려 했던 것이다.

2. 9-11장에서 바울은 어떠한 순서로 유대인의 문제를 논술하고 있는가?

- Ⓐ (1) 앞선 부분(1-8장)에서 죄인의 칭의에 대해 집요하게 논증을 계속해 온 바울은 이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3:3,4)으로 그 방향을 돌려 논증을 시작하려 한다.
- (2) 그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주권을 소유하신 창조주로서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항의를 받으실 수 없는 분임을 천명한다(9장).
- (3) 그리고 나서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의를 확립하려고 했던 유대인의 실수를 거론한다(10장).
- (4) 마지막 11장에서 바울은 보다 진전된 사상적 고찰을 논증한다. 이러한 고찰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민족적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11:25,26).
- (5)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용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울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미하면서 그의 논증을 끝내게 한다(11:33-36).

3. 9-11장의 주제를 이 부분에 사용된 특징적인 용어들과 관련하여 설명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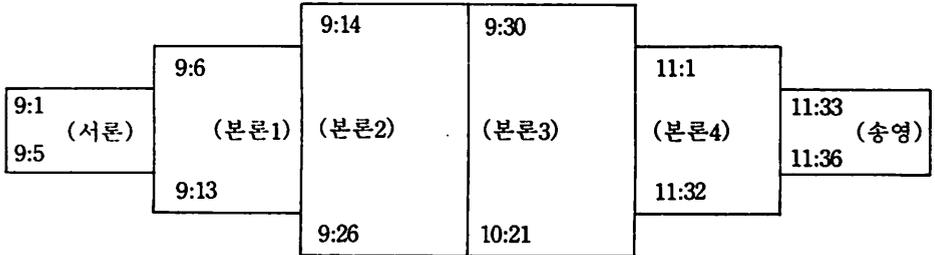
- Ⓐ (1) 이 부분의 주제는 본서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특별히 8장 마지막 부분과 긴밀하게 접속되어 있다.
- (2) 즉 8:28-30,33에서 개인적인 관점하에 다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이란 주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관점에서 고찰되어지는 것이다.
- (3) 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양자(養子)로 인정된다는 사상이 두 부분에 공통적으

로 나타나며(8:15;9:4), '부르다' 또는 '부르심'이란 개념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8:28-30;9장에는 5회 나옴).

- (4) 이러한 점들은 이 부분의 주제가 본서 전체의 주제인 '이신 득의'(以信得義, 1:16,17)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 준다.
- (5) 우리는 이 부분을 고찰함으로써 성경의 중심 사상이며 신비로운 신학 이론 중 하나인 예정론(豫定論)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갖게 될 것이며(9:6-29;11:5-8,29)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도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이다(11:33-36).

4. ㉠ 9-11장의 구조를 6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라.

- ㉠ (1) 9-11장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9:6-5(서론)과 11:33-36(송영) 외에 본론에 해당하는 네 개의 대지, 즉 9:6-13;9:14-29;9:30-10:21;11:1-32로 나누어진다.
- (2) 이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동족을 위한 바울의 근심
- ②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
- ③ 선택하심에 있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
- ④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에 있었다
- ⑤ 이스라엘의 궁극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 ⑥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

5. ㉠ 1-8장과 9-11장 사이의 유사 성귀를 비교하라.

- ㉠ (1) 9-11장이 1-8장에 대하여 많은 유사 성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메시지의 통일성을 말해 주고 있는 좋은 증거이다.
- (2) 그 유사 성귀들을 도표로 비교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9-11장	1-8장	내 용
1	9:4,5	2:17,18;3:1,2	유대인이 소유한 특권
2	9:5	1:25	주(그리스도)께 대한 찬양
3	9:6	2:28,29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구분
4	9:10-24; 11:5-8,29	8:29,30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5	9:23	8:30	영광받기로 예정된 성도
6	9:24	3:29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7	9:26	8:14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8	9:33	5:5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9	10:9	4:24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
10	10:12	3:22,29,30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11	11:15	5:11	화목(和睦)
12	11:28	5:10	원수된 자
13	11:32	3:9;5:19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6.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본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9-11장 중의 처음 장(章)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예로 들어 선택과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 (2) 본장에서 이스라엘은 특수한 민족이자 하나님의 영원한 선민(選民)으로 재확인된다(1-5절).
- (3) 하지만 바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버림 받은 상태에 있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 (4)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바울은 선택과 예정에 대한 진리를 설파하기 시작한다(6절).
- (5) 즉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참이스라엘의 문제(6-13절), 선택하심에 있어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주권 문제(14-24절),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실족에 대한 문제(25-33절) 등이 차례로 논의되어지면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선택의 진리가 입증되고 있다.

7. ㉠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근심을 표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증거로 내세웠는가?(1-3절)

- ㉠ (1) 바울은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자기 동족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큰 근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계속적인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토로하였다(참조, 민11:15; 수7:7; 렘15:10).
- (2) 하지만 바울은 당시 민족주의적인 유대교를 등지고 떠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근심과 슬픔은 일부 유대인들에게 진실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다.
- (3) 그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진실함을 밝히기 위해 ①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참조, 엡4:21)과 ②자기의 양심이 성령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등(참조, 8:16)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한다.
- (4)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바울은 자기 동족을 구원받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겠다고 선언하는 데에까지 이른다(8:39; 출32:32).
- (5) 이러한 바울의 놀라운 고백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 동족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어떠한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펵전5:8).

8. ㉠ '원하는 바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3절)

- ㉠ (1) 이 귀절은 하나의 불가능한 소망을 말하기 위해 쓰이던 유대인의 관용귀(慣用句)였다.
- (2) 바울은 8장에서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8:35,39)고 선언했듯이 자신이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
- (3) 만일 끊어지는 것이 가능했다면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했기에 그 불가능성은 어떤 의미에서 바울로 하여금 더욱 큰 아픔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 (4) 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성(感性)이 있다. 죽어가는 자기 이웃과 동족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참조, 출32:32).
- (5) 예수 믿는 자 중에는 지나친 독선(獨善)때문에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에도 기울여진다(참조, 요10:16).

9. **㉠** 바울이 자기 백성을 '나의 형제'라고 말한 데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3절)

- ㉠** (1) '나의 형제'라고 한 바울의 표현은 그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었던가를 느끼게 한다.
- (2) 여기 '나의 형제'라고 한 표현은 초대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특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고전1:1;6:5;16:20;갈1:2;빌1:12).
- (3)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기의 동족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어서 속히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로 들어오기를 열망하던 바울의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다(참조, 행2:29;3;17;22:1;28:17).
- (4) 오늘날 성도들은 '형제'라는 한 마디가 의미하고 있는 바울의 신앙적 동족애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하여 바울과 같은 열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5) 이처럼 우리는 자신과 연관이 있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자만을 용납하는 폐단을 버리고 모든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삶이야말로 복음을 위한 삶이라 할 수 있다.

10. **㉠**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대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그 이유는 '유대인'이란 용어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정치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 (2) 이에 비해 '이스라엘 사람'이란 그러한 단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지구상의 다른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계약의 백성임을 강조하는 명칭이었다(참조, 창32:28).
- (3) 바울은 이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민족이 지니고 있는 신성한 특권을 증거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한 선민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부터 바울은 이 영원한 선민이 하나님께 버림 받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증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 (4) 이러한 바울의 의도는 1-8장에서 9-11장으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용어의 변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즉 1-8장에서는 유대인이란 표현이 매우 자주 사용되었으나 이스라엘이란 표현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9-11장으로 넘어 와서는 유대인이란 표현이 두번 만 사용되었고 이스라엘이란 표현은 열 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11. **㉠**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권 여덟 가지를 설명하라 (4, 5절).

㉠ (1) 다음 도표를 참조하라.

번호	특 권	의 미
1	양자됨(4절)	하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을 세상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자신의 장자(長子)로(출14:22) 삼으셨다(참조, 출19:5; 호11:1; 사43:20)
2	영 광(4절)	구름, 불 혹은 광채로 상징화 된 '여호와와 영광'은 유대인의 성전에만 임재하셨다(출40:34; 레16:2; 대하 7:1, 2).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였다
3	언약들(4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약을 말한다(참조, 창17:4; 출19:5; 대하13:5; 렘31:31)
4	율법을 세우신 것(4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던 것은 놀라운 특권이였다(출19:16-25)

5	예 배(4절)	성막 혹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또한 선민 이스라엘의 큰 특권이였다(눅18:9-14;히9:6)
6	약속들(4절)	앞의 세번째에서 언급된 언약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엡2:12),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적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가리킨다
7	조상들(5절)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 즉 아브라함(4:1-3), 이삭(7절), 야곱(13절), 다윗(1:3;4:6-8) 등이 유대인의 조상이었음을 가리킨다
8	그리스도(5절)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실 때에 유대인의 혈통을 택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1:3)

- (2) 이상의 여덟 가지 항목은 바울 당시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원한 특권이다. 이러한 특권의 목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해야 할 것이며 한편 유대인들에게도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역사(役事)가 있을 것을 인정해야 한다.

12.㉠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5절)

- ㉠ (1) 그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
- (2) 즉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을 말하고나서 곧바로 그의 신성(神性)을 덧붙여 말하였던 것이다.
- (3) 그런데 일부 번역본(RSV, NEB,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 보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독립된 구문으로 보고 본문과는 다르게 번역을 하였다. 즉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자로다'(RSV, God who is over all be blessed for ever),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공동 번역).
- (4) 그런데 이러한 번역의 차이는 헬라어 구두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발생하였다. (3)의 번역도 그 자체로는 잘못이 아니나 전후 관계, 바울의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당치 않은 번역이다.
- (5) 사실 삼위 일체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은 신약 성경의 전체 흐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으며(참조, 요1:2) 특히 본서의 저자인 바울도 신앙하는 바이다(참조, 빌2:6;골1:15-17).
- (6) 한편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는 특권의 절정으로 하나님 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려 했음이 분명하다(참조, 요1:1,14).
- (7)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은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 (8) 그렇다면 바울의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언약을 폐기하셨다는 말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어지는 다음 귀절들(6절 이하)을 통해 주어진다. 어떤 의미에서는 본장 6절부터 11:36까지의 모든 부분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

13.㉠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라고 바울이 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6절)

- ㉠ (1) 사람들은 4, 5절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특권들을 읽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그리스

도를 영접하지 않았는가?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폐지된 것이 아닌가?’라는 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2)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될 수는 없다고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 (3) 본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헬, 호 로고스 투 테우)은 특별히 약속이란 요소를 포함한 ‘하나님의 선포된 뜻’을 가리키고 있다.
- (4) 왜냐하면 문맥적으로 볼 때 이 귀절이 나타난 동기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한 이후에 이어지는 귀절들이 ‘약속의 자녀’(8절), ‘약속의 말씀’ 등에 이 야기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 (5)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고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다(참조, 마28:18-20).
- (6) 사실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추구해갈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변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며(참조, 요13:1)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해 나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이다.

14. ㉠ ‘아브라함의 씨’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7절)

- ㉠ (1)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면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자녀로 이해하기 쉽다.
- (2)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를 의미한다.
- (3)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써 태어난 자녀라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이다.
- (4) 바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창세기로부터 다음 두 귀절을 인용한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창21:12).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18:10,14).
- (5)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이삭 외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아들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삭을 이스마엘이나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 (6) 그 이유는 한 가지이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태어났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삭의 출생 시기를 정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이삭의 부모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이삭은 결코 태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이미 생식 능력을 상실한 노인(老人)에 불과했기 때문이다(4:19).
- (7) 이러한 논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 하나님의 자녀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요1:12).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인간적 혈통을 들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듯이 오늘날에도 목사의 자녀, 혹은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15. ㉠ 바울이 이삭을 거론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예서와 야곱을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0-13절)

- ㉠ (1) 바울은 앞선 부분(6-9절)에서 이삭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였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못함을 느꼈다.
- (2) 왜냐하면 이삭의 다른 형제들이 하갈, 그두라 등 첩의 소생인 데 비하여 이삭만은 정실(正室) 부인인 사라의 소생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떤 의미에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선택된 것은 당연한 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바울은 혈통에 관해서는 아무런 하자(瑕疵)가 없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인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예로 들어 하나님의 선택 원리를 확증하고자 했던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틀이나 형식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에 따른 것이다. 그 앞에서 인간은 다만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16. Q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는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설명하라 (13절).

- A** (1)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를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에서와 야곱이라는 개인의 차원에서 논증하였다(10-12절).
- (2) 이제 바울은 동일한 맥락에서 말1:2,3으로부터 인용된 본질의 말씀을 통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가적, 민족적 차원으로 자신의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 (3) 즉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두 민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 (4)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선택하실 때에도 개인을 택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 민족이나 국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신 후 그 성격이나 업적에 근거하여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참조, 신7:6-9).
- (5) 그러므로 이제 모든 논의의 초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과 민족의 구원에 있어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란 대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계속되는 바울의 논의(14-29절)를 상고함으로써 우리는 개인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6) 한편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사실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약화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다만 감사와 경배로 응답할 수 있을 뿐이다.

17. Q ‘에서는 미워하였다’ 는 말에서 미움의 의미를 설명하라 (13절).

- A** (1)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을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 (2) 여기에서 사용된 ‘미움’(헬, 미세오)이란 말은 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상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
- (3) 이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마저도 미워해야 한다고 할 때에 사용된 ‘미움’이란 말의 용법과 비슷하다(눅14:28). 즉 미움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 자신의 가족과 생명이 단순히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뜻하는 것이다.
- (4)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 하나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자는 미움을 받는 자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만으로도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대하24:22; 은3:10).

18. Q 바울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심을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14-16절)

- A** (1)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유없이 에서보다 야곱을 편애하신 사실로 인하여(10-13절)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냐는 질문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 (2)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God forbid, 3:4,31;6:2)고 단호히 부정한다.
- (3) 그리고서 그는 출애굽 당시 시내 광야에서 벌어진 금송아지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심을 증거하고 있다.
- (4) 즉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탄할 정도의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즉시로 심판받아 말살되어야 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표로 두번째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허락하시면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스니라'(출33:19)고 선포하셨다.

- (5) 이때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재판관과 통치자로서 '긍휼'을 베푸셨던 것이다.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법적인 차원에서 공의나 불의나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자의 주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긍휼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7) 이는 한 어머니가 고아원의 두 아이 중에서 한 아이를 선택하여 양자(養子)로 삼는 일이 윤리적 선·악으로 판단될 수 없는 이치(理致)와 같다.

19. ㉠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란 표현은 저자의 어떠한 성경관(聖經觀)을 암시하고 있는가? (17절)

- ㉠ (1)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이어 원문은 <레게이 헤그라페토 파라오>로서 직역하면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기를'(says the Scripture to Pharaoh)이 된다.
- (2) 이처럼 본문은 분명히 성경을 의인화(擬人化)하여 바로에게 말을 하는 주체로 묘사하고 있다.
- (3) 이러한 묘사법은 성경을 보통 책과는 달리 살아 있는 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던 바울의 성경관을 암시해 준다(참조, 딤후3:16; 히4:12).
- (4)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관을 부정하고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바울(4:3; 갈4:30) 뿐 아니라 예수(요5:39)께서도 주장하셨던 성경관을 따라야 한다. 한편 20세기의 대 부흥사 빌리그레함도 그의 설교 중에 '성경은 말하기를'(the Bible says)라는 말을 관용어처럼 사용함으로써 성경관을 은연 중에 피력하였다.

20. ㉠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17절)

- ㉠ (1)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한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려는 데 있었다(출9:16).
- (2)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를 세우셨다'는 말씀의 의미이다. 이것은 바로가 애굽의 왕으로 즉위한 사실을 가리키지 않고 이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를 살려 두신 사실을 가리킨다.
- (3) 사실상 바로는 그가 행한 압제와 오만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였으나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 (4) 결국 바로의 생존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것이었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으며 동시에 그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참조, 수9:9).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참조, 시76:10).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다(참조, 시37:1,7-9; 잠24:19).
- (6) 즉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요 또한 그분께서 지배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이다(참조, 12:36).

21. ㉠ 하나님의 선택적 섭리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18절)

- ㉠ (1)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적 섭리에 대하여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18절)고 결론을 내리면서 바로와 관련된 삽화(插圖)를 종결시키고 있다.

- (2) 그런데 바울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게 된 것은 본서신 1장에 서술된 원리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 (3) 그 원리 즉, 하나님의 계시를 거스리는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이 욕대로 행하도록 방치하십시오로써 더욱더 죄를 지어 그 결과를 당하도록 하시는 것이다(1: 24, 26).
- (4)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공홀히 여기시는 자가 누구이며 강박케 하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당신(나)은 지금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공홀히 여기시는 자'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강박케 하시는 자'에 속하여 있는가?

22. ㉠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로 들고 있는가? (19-21절)

- ㉠ (1) 바울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적 섭리를 다룬후 (6-8절) 하나의 가상적 질문을 제시한다.
- (2) 그 가상적 질문은 19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자들을 공홀히 여기기도 하시며 강박케 하시기도 한다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이다.
- (3)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 바울은 먼저 피조물이 마치 전능자를 판단할 충분한 지혜를 갖추거나 한 것처럼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지적하면서(20절) 토기장이와 진흙을 예로 들고 있다(21절).
- (4) 이와 같은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예화는 바울 뿐 아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의해서도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 예화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대변해 주고 있다(사29:16; 렘18:6).

23. ㉠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22절)

- ㉠ (1) 본절에 언급된 '진노의 그릇'은 21절의 사상에 이어지는 비유적 표현으로 17절에서 소개된 애굽 왕 바로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 곧 유기(遺棄)된 자를 가리킨다.
- (2) 하나님께서 바로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면서 관용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고 두번째 목적은 당신의 능력을 온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 (3) 첫째,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에 당신의 진노가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신다(사51:20). 그 양(量)이 다 차게 되기까지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처럼 보이며 악인들의 기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쳐 오른다(참조, 마23:32). 그러나 이러한 악인의 번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된 집행 유예 기간 동안만 허락되어 있을 뿐이다.
- (4) 둘째, 하나님께서는 번성할대로 번성한 악인들을 일거에 파멸시켜 버림으로써 당신의 능력을 만천하에 과시하고자 하신다. 대신 파멸당할 때가 되기까지 악인은 계속하여 번성하며 형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 (5) 여기에 모든 세대에 걸쳐 악인이 존속하는 이유가 있다(잠16:4).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한다면 성도들은 형통하는 악인들을 인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형통한 만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고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시37:1, 2, 7, 10).
- (6) 천조 대신(天助大神)을 앞세우며 무고한 아시아인들을 살육하던 일본 제국의 패망이라든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던 독일 나찌스 정권의 말로는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악한 개인이나, 집단, 정권(政權)이 형통하는 것도 결국

그들이 마실 심판과 진노의 잔을 채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참조, 렘25:15).

24. ㉠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관용하심으로써 긍휼의 그릇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23절)

- ㉠ (1) 먼저 본절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절의 각 부분을 22절과 대비(對比)해 보기로 한다.

	긍휼의 그릇(23절)	진노의 그릇(22절)
상징적 의미	택함 받은 자들	버림 받은 자들
관용하시는 목적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심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심
예정된 내용	영광받기로 예비하심	멸하시기로 준비됨
진노의 그릇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심	

- (2) 위의 대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관용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은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심에 있다.
- (3) 여기서 '영광의 부요함'(NIV, the riches of his glory)이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스러움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참조, 시85:10;145:89;엡1:6-8;2:4,5,7;3:8).
- (4)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인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를 단번에 멸하지 않고 관용하심으로써 긍휼의 그릇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크게 드러나고 '영광의 부요함'이 나타난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참조, 출9:4,6,26;10:23;11:6,7;12:13).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와 같은 악인이 득세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신뢰하여야 할 것이다. 그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위로가 임하며 주의 놀라우신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참조, 고후1:4,5;엡3:13).

27. ㉠ 긍휼의 그릇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24절)

- ㉠ (1) 바울은 긍휼의 그릇을 '우리'라고 지칭하면서 그 '우리'라는 말을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고 풀이한다.
- (2) 여기서 '부르심'(calling)이란 내적 소명(內的召命)을 말하는 것으로 마음과 영혼을 일깨워 확실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참조, 1:7;8:28).
- (3)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選民)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참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6:27,28절;2:28,29). 마찬가지로 선민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 (4) 결국 바울은 '긍휼의 그릇'이라는 개념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초월하여 오직 성령의 내적 소명에 의해서만 형성되어지는 참이스라엘, 즉 우주적 교회를 제시하려 했던 것이다(참조, 1:5,13-16;2:10,11;3:22-24,30;4:11-12;8:32;10:4,9,12;11:32;16:26;갈3:9,29;엡2:14-18).
- (5) 그렇다면 이 내적 소명의 증거는 무엇인가? 내적 소명의 증거는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가장 큰 증거이다(10:9,10). 그러므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그릇'임을 깨닫고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할 것이다.

26. ㉠ 바울이 인용한 호세아서의 의미를 설명하라(25, 26절).

- ㉠ (1)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였다.

- (2) 바울이 인용한 부분은 호2:23과 1:10인데 전자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는 말씀이고 후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는 말씀이다.
- (3) 이 두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과 관련되어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자식인 '로루하마'('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란 뜻)와 '로암미'('나의 백성이 아닌 자'란 뜻)를 낳은 고멜에 대하여 호세아로 하여금 놀라운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2:23의 말씀을 주셨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1:10의 말씀 역시 주셨던 것이다.
- (4) 이 말씀들은 일차적으로 호세아 당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을 가리킨 것이다(참조, 벧전2:10).
- (5)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부여된 명예로운 칭호 세 가지(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하겠다.
- (6) 사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가치가 없는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 때문이다(참조, 엡2:8).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현재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27. ㉠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하였는가? (27, 28절)

- (A) (1)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사10:22에서 이사야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오직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 (2) 이 예언을 할 때 이사야는 앗수르의 침략으로 포로 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 (3) 하지만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좀더 광의적으로 이해하여 그것을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적용시키고 있다. 즉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대로(창22:17) 큰 수효의 민족을 이루지만 그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지는 못하고 오직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11:5).
- (4) 이렇게 하여 바울은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등하게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음을 성경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 (5) 한편 이사야의 예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신약 교회의 구원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교회의 명목적인 교인(church-man)은 많을지라도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함 받은 신자(believer)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22:14)고 하신 예수의 말씀과 상통하는 원리이다.

28. ㉠ 이스라엘이 소돔이나 고모라처럼 멸절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9절)

- (A) (1)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성경에서 그 성민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히 멸망당한 대표적인 성읍들이다(창18:20; 19:23-28; 신29:23; 렘19:18; 50:40; 암4:11).
- (2) 그런데 바울이 본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1:9은 이스라엘도 그 죄악을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야 할 것이나 '만군의 주께서 씨를 남겨 두셨기 때문에' 멸절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 (3) 여기서 '씨'라고 하는 말은 70인역의 표현을 따른 것인데 이것의 히브리 원문인 맛소라 사본에 제시된 내용을 풀이하면 '그렇게도 적은 남은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말은 다소의 뉘앙스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 그 의미하는 바는

같다.

- (4)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근거는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씨 곧 '남은 자'(remnant)들을 남겨 두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선민임은 고사하고 제2의 소돔, 고모라가 되어 저주받은 민족의 대명사가 되었을 것이다.
- (5) 이것이 선민이라고 자처하며 구원의 독점성을 주장하던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실상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죄악의 심층부에 자리한 소돔·고모라 사이의 윤리성은 사실상 백지 한 장 차이도 안 되었다.
- (6) 이제 우리는 좀더 겸손한 마음으로 본장 30절로부터 10장 끝절(21절)까지 계속되는 한 묶음의 말씀들을 경청함으로써(참조, ㉑ 3)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29. ㉑ 30-33절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 (A) (1) 전절(29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6-13절)과 주권(14-23절)을 통해 참이스라엘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의 문제를 다루면서 유대인도 진노의 그릇(22절)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바 있다(24-29절).
- (2) 이제 바울은 30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불순종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 메시지는 다음 장인 10장 끝 부분(10: 21)까지 계속된다.
- (3) 30-33절은 '쫓다'와 '이르다'(10, 31절)라는 말들이 의미하는 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달리기 경주의 주자(走者)로 묘사하면서 달리지 않은 이방인들이 열심히 달려간 유대인들을 이기고 경주에서 승리했다는 매우 역설적인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
- (4)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이신 득의(以信得義)의 진리이다(1: 17; 3: 21, 22, 28).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처럼 이방인은 달리지도 않고 경주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하여 자기 힘으로 달려야 하던 유대인들은 '부딪힐 돌'(32절)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다.
- (5)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예화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내기를 함에 있어서 한 사람은 자기 힘을 과신하여 맨발로 뛰어갔고 또 한 사람은 운전 기사의 도움으로 차를 타고 먼저 부산에 도착한 것과 같다.
- (6)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구원 열차를 마련하시고 탈자를 초청하고 계신다(마11: 28-30). 이 열차를 타는 사람은 이방인 또는 극악한 죄인 일지라도 구원받을 것이요(참조, 눅19:7-10; 23:39-43; 요4:18-21; 8:1-10) 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유대인 또는 성인 군자(聖人君子)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참조, 마19:16-22; 눅18:9-14).

30. ㉑ '부딪힐 돌'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32, 33절)

- (A) (1) '부딪힐 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거리키는 장애물이었음에 틀림없다(고전1:23).
- (2) 이러한 해석은 33절에 인용되어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확인된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 (3) 이 인용문은 사28: 16과 8: 14의 내용이 복합되어 이루어진 말씀이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사28: 16).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서민에

계는 함정, 울무가 되시리니'(사8:14).

- (4) 바울은 이 귀절들의 핵심을 매우 능숙한 솜씨로 배합하여 한 문장으로 인용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8:14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치는 돌'이 바울의 인용문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다.
- (5) 그렇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목수(木手)의 신분으로 오셨으며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수치스럽게 여겼다.
- (6)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10:11; 사49:23; 율2:26, 27; 벰전2:6, 7).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일시적인 수치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으나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되는 고로 결국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참조, 고후6:8-10).

연구자료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운행자이실 뿐 아니라 그들 각각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신 절대 통치자이시다. 이에 대해 인간은 그 생명이 유한하며 육체와 감정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성을 지니고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더우기 그의 생명과 삶 전체는 절대자에게 귀속되어 있기에 그분의 도움 없이는 한 순간도 바른 판단과 행동을 추구해 나갈 수 없다. 이에 본고(本稿)는 이 땅의 통치권을 영원히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삶과 연관지어 살펴봄으로써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적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단언한다(창1:1). 끝없는 영원 세계의 어느 한 시점, 완전한 무(nihil)에서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말씀으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과 또한 그 만물의 통솔자인 인간을 있게 하셨다(참조, 창1:2; 욥26:13; 시40:12, 13; 요1:3; 고전8:6). 이러한 창조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으며 이외의 다른 목적은 모두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자연계의 질서와 변화와 발전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살아 있는 메시지(참조, 시19:1-6)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은 피조물, 특히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자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이끌어 준다(참조, 17절; 사43:7; 겔26:21; 눅2:14; 고전15:

18). 한편 이 같은 창조 사실(진실)은 인간의 존재 근거와 이유를 밝혀 주는 유일한 해답이다. 인간은 스스로 있어진 존재가 아니라 본장에 언급된 것처럼 진흙에 대한 토기장이의 권능으로 빚어진 그분의 창조물이다. 그런 까닭에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찬양’과 ‘감사’ 밖에는 없다(참조, 1:19-21).

2. 운행자로서의 하나님

창2:15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통솔권을 부여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여 인류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인간으로 이양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Erasmus). 더우기 인본주의자(人本主義者)들은 인간의 생(生)은 인간 스스로 개척하며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제한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통솔권은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하며 만약 그 통솔권을 잘못 행사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화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이 통치권은 인류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무도 그 통치권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 통치권은 오직 전능한 분이신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함으로써 만물에 대한 영원하고 유일한 통치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모든 자연계를 보존하시며 시간 속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존재들을 당신이 정하신 목적에 맞게끔 이끌어 가신다(참조, 마5:45;6:30). 이러한 통치권 행사를 바꾸어 말해서 섭리(攝理)라 표현하기도 한다. 이 섭리는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보존이다. 이는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이다(참조, 시136:25;느9:6;행17:28;골1:17). 둘째는 협력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만물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시며 그들로 하여금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사역이다(참조, 신8:18;행14:17;빌2:13). 세째는 다스림이다. 이는 모든 자연계를 그들의 존재 목적에 걸맞도록 통괄하시는 당신의 지혜로우신 경륜(經綸)이다(참조, 창50:20;행14:16;빌2:13).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이나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 특히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통치 권한을 위임하신 인간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은 전(全) 역사와 전피조물을 당신의 통치권 아래 두시고 그들로부터 영광과 찬양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이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는 항상 우리의 삶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물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계속해서 피조물에 대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실 것이다) 이웃과 더불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참조, 11:36).

제 10 장 이스라엘의 불순종

단락구분 1-3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이스라엘 / 4-10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義) / 11-15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얻게 되는 구원 / 16-21 복음을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

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2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5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담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6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가야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 또한 이사가야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21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1. ㉠ 본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가?

- ㉠ (1) 바울은 본장을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육신(成肉身)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2-4절)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福音)마저 무시해 버림으로써(16-21절)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 (2)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였는데 이는 마치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음부에 계신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는 것과 같이 무모한 시도였다.

- (3) 이처럼 본장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하면서(5,6절) 유대인의 불순종이 전자(前者)를 고집함으로써 야기되었음을 밝혀 준다.
- (4)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란 곧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의 힘을 믿는 '자기 의'(3절)와 같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이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1:17; 요1:12).

2. **㉠** 바울은 동족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가? (1절)

- ㉠** (1)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
- (2) 이러한 바울의 동족애(同族愛)는 9:1에서도 언급된바 있다. 즉 바울은 거기서 동족의 구원 문제를 인하여 크게 근심하였고 연속적인 심적 고통을 느꼈으며 만일 그들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면 자신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 (3) 이처럼 바울은 동족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다. 비록 그는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아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 친척과 동족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동족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 구원을 얻는 문제로 노심 초사(勞心焦思)하면서 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진지하게 탐구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탐구와 기도의 산물(產物)이 바로 본서 9-11장이다.
- (4) 그러므로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정한 애국자였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려는 선교의 열정(熱情) 뿐 아니라 가족, 친척,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려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열정도 가져야 할 것이다(참조, 딤편5:8).

3. **㉠**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문제점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2절)

- ㉠** (1) 바울은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점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여한 상태'로 진단하였다.
- (2)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벽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열심이었다.
- (3)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울은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바울 역시 회심 이전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교에 대한 특출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조상들의 믿음에 대한 반역자로 간주하고 극렬한 박해를 가했다(행22:3; 갈1:3).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큰 실수에 불과할 뿐이었다(딤편1:13).
- (4)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열심도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과 신앙으로 이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 (5)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지식을 결여한 채 교회 활동에만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은 오히려 실수를 하는 데 열심을 내는 격이 되고 말지도 모른다. 열심과 성실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만일 해적선(海賊船)에서 열심과 성실을 다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성도들은 먼저 성경 공부에 힘씀으로써 신령한 지식을 구비한 후에 교회 일을 비롯한 모든 생활 전반에 열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참조, 딤편3:15-17).

4. Q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는가? (3절)

- A (1) 그들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3:24;5:8,17,18;8:3,4,32;사 53:4-8;마20:28;막10:45;고후5:21;갈3:13;딤후전2:5,6).
- (2) 그리하여 그들은 겸손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지 못하였던 것이다(1:17;4:3-5,16,23-25;5:1;합2:4;갈3:1).
- (3) 대신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이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의를 획득하려 하였음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이 종착점(終着點)에 이를 수 없는 여행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무모한 시도에 관하여 바울은 6,7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언급한다.
- (4) 오늘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노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는 무관한 채 생활하다가 옛날 유대인들이 범한 그 실수에 동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대하기를 등한히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어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헛된 노력과도 같다(참조, 시119:105).

5. Q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4절)

- A (1) 여기서 '마침'으로 번역된 헬라어 <텔로스>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 (2) 이 <텔로스>라는 말은 ① 종료, 결론, 종결(end) ② 목적, 의도, 목표(goal) 등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하여 율법이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종결되었다는 ①의 의미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모순되고 있기 때문이다(3:31;7:7).
- (3) 결국 본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의도하는 목표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다(8:3,4).
- (4) 율법의 목표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있다(마22:37-39;레19:18;신6:5).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바로 사랑 그 자체였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마음속에 모실 때(갈2:20) 이미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이 되어 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
- (5)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믿기를 거절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이것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핵심이다.
- (6) 사실상 단순히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를 믿기만 함으로써 완전한 칭의를 얻게 된다는 것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한 특권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 세상의 여러 권리를 추구하기에 앞서서 이 특권을 누리도록 하라. 그리고 아직 이 특권을 모르는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의 그 어떤 선물을 하기에 앞서 이 특권을 소개하라.

6. Q 모세는 생명의 길을 어떻게 제시하였는가? (5절)

- A (1) 본절은 레18:5의 인용이다('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에서 모세는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 (2) 이러한 사상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하나님의 율례'라는 표현을 통하여 구약 여러 부분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느9:29;겔20:11,13,21) 또한 신약에 넘어와서도 그 사상은 계승되고 있다(7:10;마19:17;눅10:28;갈3:12).
- (3) 하지만 문제는 누가 과연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있다. 연약한 인생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참조, 3:9-18).
- (4)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8:34) 자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신 유일한 분이시다(히5:8,9).

- (5)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획득된 것이다. 즉 무한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죄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

7. **㉠**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6, 7절)

- ㉠** (1) 바울은 ‘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인화시켜 화자(話者)로 묘사하면서 5절에서 언급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없음을 밝히고 있다.
- (2)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혹은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은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일은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의를 얻으려 하는 자는 다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8절).
- (3)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논리가 다음과 같은 성경 귀절로부터 반영되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도 아니라’(신30:11-13).
- (4)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미 확증한 대로(1:17;3:21,22;4:1)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구원의 길은 결국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 (5) 이러한 사실은 신30:14을 인용한 8절의 의미에서 더욱 분명히 밝혀진다.
- (6) 사실 인간 구원을 선포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세상 끝 날까지 인류 구원의 큰 흐름을 주관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구약과 신약의 효용성을 모두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8. **㉠**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함은 무슨 뜻인가? (8절)

- ㉠** (1) 이는 신30:14(‘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는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을 인용한 귀절이다.
- (2) 신명기에는 말씀의 준행을 강조하는 일련의 성경 귀절들이 많이 발견되어지는데(신5:5; 6:4-9;7:7-9;10:12,13;11:13-15,22-25;18:15-18;26:16-19;28:1-4)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했다.
- (3) 이러한 신명기의 관련 귀절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우리는 그 귀절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말씀’ 혹은 ‘명령’이란 본질을 통해 바울이 정의(定義)한 대로 ‘믿음의 말씀’임을 깨닫게 된다.
- (4) 즉 말씀의 준행은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말씀의 준행은 믿음으로 완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구원의 길이 믿음에 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진리라 하겠다.
- (5) 한편 특별히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다고 하는 표현은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Immanuel) 하나님을 연상케 한다(마1:23;요1:14).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9,10절).

- (6)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런데 어떤 신비주의적인 신자들은 특정한 유명 부흥사의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줄 알고 집회 장소를 전전(轉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의를 얻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 했던(6절, 신30:12) 유대인의 어리석음과 상통(相通)하는 이단적 경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
- (7)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제든지 펼쳐 볼 수 있는 성경을 통해 믿음의 대상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설교자(說敎者), 부흥 강사들의 설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9. ㉠ 구원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9절)

- ㉠ (1)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 왔다(행16:31). 그러나 막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 (2) 그런데 본절은 바로 그러한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 (3) 첫째, '입으로' 예수를 주(主)로 시인하는 자이다. '주'라는 헬라어 <퀴리오스>는 히브리어로 <예호와>에 해당하는 단어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킨다. 영역 성경은 구약의 <예호와>란 단어를 모두 '주'(Lord)로 번역하고 있다. 예수를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이다(9:5; 마16:16).
- (4)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자이다. 즉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이다. 이 부활의 사실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며 믿음의 요체(要諦)이다(1:2-4; 6:9; 고전15:20; 엡1:20-23; 빌2:9-11; 골3:1-4; 히2:9; 벰전1:21; 계1:17,18).
- (5)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 중에도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가 많다. 1982년 한 사회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목사들 중 감리교 목사의 51%, 장로교 목사의 35%, 침례교 목사의 33%가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목사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자이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가? 구원 여부를 분별하는 시금석(試金石)이 여기에 있다.

10. ㉠ 9절에서는 '입술로 시인함'이 '마음으로의 믿음'에 선행하지만 10절에서는 그 순서가 뒤바뀌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9, 10절)

- ㉠ (1)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9절을 말할 때 바울은 '입'이란 말이 '마음'이란 말보다 앞서 나오는 신30:14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순서를 따랐지만 10절에서는 자연적인 순서, 즉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고백한다는 순서를 따라 말하였던 것이다.
- (2) 사실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마음속의 믿음이다. 마음속의 진실한 믿음도 없이 하는 입술의 고백은 위선에 불과할 뿐이다(마7:22,23). 반대로 마음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을 수반한다(시107:2; 행4:20).
- (3) 특별히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마10:32; 눅12:8; 고전12:3; 빌2:11). 마음의 신앙을 본인이 알 수 있는 구원의 내적 증거라고 한다면 입술의 고백(비단 입술의 고백 뿐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 행동, 생활 모두를 포함한다)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구원의 외적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 ㉠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주는 교훈을 말하라(11-13절).

- Ⓐ (1) 이 말씀은 9:33과 같이 사28:16로부터 인용된 귀절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더 강조된 형태로 인용되었다. 즉 '저를 믿는자'란 말 앞에 '누구든지'란 말이 첨가되어 있다.
- (2) 이렇게 강조된 것은 앞에 언급된 4-10절의 말씀을 한 마디로 요약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새로 첨가된 '누구든지'란 말은 4절의 '모든 믿는자'에서 '모든'이란 말과 대응된다.
- (3) 이어지는 12,13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 (4) 첫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종족이든지 차별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12절).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평등 사회 원리를 발견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신분을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켜 교회라는 영적 조직 가운데에서 진정한 평등 사회를 이루게 한다(참조, 잠22:2; 마23:8; 행10:28; 갈3:28; 약2:5).
- (5) 둘째,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이다(12절).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요하신 주 하나님(시50:10-12; 학2:8; 엡3:8; 계5:12)께 속하여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으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2:4; 9:23; 요10:10; 고후8:9; 엡2:7).
- (6) 셋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주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 곧 주를 믿는 자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궁극적으로 영육간에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 (7) 이처럼 성공적인 삶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있다. 진정한 평등과 자유 그리고 풍요와 생명을 누리기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를 믿어야 할 것이다(행16:31).

12. ⓐ 전도의 5단계 과정을 설명하라(13-15절).

- Ⓐ (1) 13-15절에는 전도의 5단계 과정이 역순(逆順)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2)

순서	전도의 5단계
(a)	부름(calling, 신앙 고백) :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b)	믿음(believing, 예수에 대한 신앙) : '그러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	
(c)	들음(hearing, 복음을 경청함) :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	
(d)	전파함(preaching, 전도 및 설교) :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	
(e)	보내심(sending, 파송) :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 (3) 이와 유사한 사슬식 열거 방식은 5:3-5; 8:29,30 그리고 본장 17절 등에서도 발견된다. 그런데 5, 8장의 귀절들은 순행적(順行的)으로 열거된 데 비해 본장 13-15절과 17절은 인과 관계를 거슬러 역행적(逆行的)으로 기록된 차이점이 있다.

13. ⓐ 바울이 전도의 과정을 역행적인 순서로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13-15절)

- Ⓐ (1) 그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생각될 수 있다.
- (2) 첫째, 바울은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도자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전도의 과정을 역행적으로 열거하여 전도의 출발점인 '보내심'을 가장 마지막으로 배치하였던 것이다(15절).

- (3)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에 의해 파송되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예수께서는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눅10:16).
- (4) 둘째, 바울은 전도자들에게 보내심의 확신을 일깨워 주기 원하였다. 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대한 구원의 궁극적인 주체자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내신 전도자를 통하여 믿게 하신다는 것이다.
- (5) 그런데 당신은 불신자를 한 명이라도 전도하여 결신시킨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자 곧 천국 대사(大使)이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천국 대사직 수행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능력과 지혜를 넘치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참조, 엡3:20).

14. ㉠ 바울은 전도자를 어떻게 예찬하고 있는가? (15절)

- ㉠ (1) 바울은 사52:7로부터 인용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말로 전도자를 예찬하고 있다.
- (2) 인용된 이사야서 귀절은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파발군을 예찬하는 말씀이었다(참조, 시93:1; 나1:15; 계19:6). 마찬가지로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죄와 사단에게 포로 되어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할 인생들에게 참자유와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영적 파발군이다.
- (3) 한편 사실상 소식을 전하는 파발군의 발은 오랜 여행으로 인해 먼지로 더럽혀지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은 아름답기만 하다. 왜냐하면 그 발로 말미암아 수많은 심령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 (4) 과연 우리들의 발은 무엇을 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3:15; 잠1:15,16;6:8; 사59:7)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써(고후2:15) 아름다운 발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엡6:15).

15. ㉠ 전도자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16절)

- ㉠ (1) 유대인들은 전파된 복음을 대부분 믿지 않았다. 본절에 '저희가 다...순종치 아니하였도다'(NIV, not all the Israelites accepted...)라고 한 것은 일종의 곡언법(litotes)으로 '유대인 대부분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전체가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참조, 21절;9:27; 사53:1; 고전10:5).
- (2) 여기서 우리는 ㉠ 12. (2)에서 언급된 전도의 과정 중 ①과 ②는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에게는 ④와 ⑤의 과정, 즉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 바울은 이 사실을 사53:1('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능히 나타났느냐')의 말씀에서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라는 귀절을 인용하여 밝히고 있다.
- (4)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결신자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나 초대 교회의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불순종한 자들이 많았다는 사실로 위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비록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참조, 시126:4; 딤후4:2).

16. ㉠ 믿음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생산되는가? (17절)

- Ⓐ (1)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믿음은 궁극적으로 말씀으로부터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덮어놓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경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을 원한다면 성경을 펼치라. 그리고 마음 문을 열고 성경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라.
- (3) 한편 이와 같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많이 반복하신 부탁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부탁일 것이다(마11:15; 13:9,43; 막4:9,23; 눅8:8; 14:35).
- (4) 따라서 역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 하겠다(참조, 딤후3:15).

17. Ⓒ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를 믿지 못했다는 반문을 예상하고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18절)

- Ⓐ (1) 그는 유대인들이 결코 듣지 못해서, 다시 말해 전도를 받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못박아 말한다.
- (2)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시19:4('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을 인용하면서 복음 전파의 편만성(遍滿性)을 주장한다.
- (3) 사실 그리스도 당시나 초대 교회 시기에 복음이 매우 신속하게 편만히 전파되었다는 것은 다음 귀절들을 비추어 볼 때 분명한 사실이다(15:22-24; 요12:19; 행2:41,47; 4:4; 17:6; 빌1:12,13; 골1:6).
- (4) 이러한 복음의 신속한 전파는 2, 3세기 역사가들에게 매우 큰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2세기의 순교자 저스틴 마터(Justin Martyr)는 증언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혹은 도시인이든지 농민이든지,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든지 걸어다니는 사람이든지, 그들 가운데에는 언제든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20세기의 한 역사가는 사도 시대 말기의 그리스도인의 수효가 약 50만을 상회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R. H. Glover).
- (5) 이러한 복음 전파의 속도는 19,20세기 들어 더 빨라지고 있다. 특별히 한국 교회와 중공(中共) 교회의 성장 속도는 사상 유례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진적이다. 이제 복음을 듣고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18. Ⓒ 18절에 주어진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기는 했으나 깨닫지 못했으므로 거부했다'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답변하는가? (19절)

- Ⓐ (1) 바울은 이러한 반박을 예상하여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자문(自問)한 후 신32:21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대답을 암시적으로 밝힌다.
- (2) 신32:21의 구약 본문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 (3) 이 말씀이 암시하는 바에 따르면 불신앙은 그들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으려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본절의 '백성 아닌자', '미련한 백성' 등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대해 무지했던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구원의 길에 대해 영적 이해력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로서는 자신들의 불신앙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 (5) 이와 같이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이해력의 부족을 들어 불신앙에 대해 변명할 수는 없다. 복음은 지성으로만 수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기에 정박아도 또는 그 어떠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자도 전파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했노라고 변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해력이 부족한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주저 말고 복음을 말로, 마음으로, 인격으로, 행동으로, 사랑으로 전해야 한다.

19. ㉠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해 더욱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20, 21절)

- ㉠ (1) 바울은 그 이유를 사65:1,2을 인용하면서 설명한다.
- (2) 먼저 사65:1을 인용하고 있는 20절 말씀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알려지시기까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었음을 증거한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철저히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 (3) 이어서 사65:2을 인용하고 있는 21절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내와 관용과 기다림을 지적한다. 철저히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기다려 주셨던 것이다.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21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사65:2).
- (4)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의 탄식에서도 나타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마23:37,38).
- (5) 결국 이스라엘은 바울 시대로부터 2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11:1). 결국 이스라엘의 끈질긴 불순종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서 꺾어지고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2:4;11:26).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 (6) 아 물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 앞에서 자신들의 불순종을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11장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한 종말론적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다.

연구자료

바울이 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을 통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구체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참조, 갈4:4, 5). 이런 의미에서 본고(本稿)는 단편적이거나 바울 서신서들을 중심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그리스도의 인격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단순한 예언자요, 독특한 선생에 불

과했던 예수를 신인(神人)의 위치에까지 올려 놓았다고 비난받고 있다. 사실 그가 기독교의 토대를 마련한 훌륭한 신학자임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비난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그가 사용한 예수께 대한 호칭(이 호칭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열쇠이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예수의 신인적인 속성을 그가 임의로 조작했다고 하는 견해는 인정될 수 없다. 즉 유대교에서 개종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인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주의 종’, ‘대제사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천사’, ‘의인’, ‘목자’ 및 ‘하나님의 어린양’ 등 다양하게 묘사했다. 심지어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이라는 칭호조차도 마태·요한복음, 히브리서보다 그 빈도수가 훨씬 적다.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용어가 단 세번(롬1:4; 고후1:19; 갈2:20), ‘아들’이란 단어가 12번(롬1:3, 9; 5:10; 8:3, 29, 32; 고전1:9; 15:28; 갈1:16; 4:4, 6; 살전1:10) 언급되어 있다. 바울 서신에서 예수께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칭호는 ‘주’(Lord)이다. 이 말은 A. D. 1세기 때 단순한 존경의 대상(Sir)에서 하나님(God)을 지칭하는 것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를 향하여 그분이 곧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며 하나님이라고 지칭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참조, 롬10:9; 빌2:11). 바울이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예수의 인성을 신인(神人)의 위치에까지 올려 놓았다는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한편 골1:13-20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의 상(image)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실이다. 특별히 바울은 예수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증보자가 되신다고 밝혔다. 이처럼 바울이 이해한 예수는 분명 하나님(롬9:5; 살후1:12; 딤후2:13)과 구주(엡5:23; 빌3:20; 딤후1:10)가 되신 하늘 인간이셨다(빌2:5-11).

2. 그리스도의 사역

바울은 율법과의 관계성에 비추어 예수의 사역을 많이 취급하였다. 즉 그분은 율법 아래 나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와 짐을 대신 담당하셨으며 이를 통해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후5:21; 갈3:13; 골1:22; 2:14). 그런데 바울은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벗겨 주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흠하게 세우는 구원만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가운데 명시된 조항을 그대로 수행하여 누구든지 자기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의롭게 설 수 있게 하셨다고 했다(롬3:19-31; 8:1-4; 갈2:16; 3:22; 엡3:12; 빌3:9).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과 순종으로 인해 피 아래 있는 인간에게 구원과 의(義)와 자유를 허락하셨다고 주장했으며 그러한 사상의 집약적 표현으로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10:4)고 고백했다.

제 11 장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

단락구분 1-6 이스라엘의 선택된 소수 / 7-10 이스라엘의 완악한 다수 / 11-12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니게 될 가치 / 13-22 이방 신자들을 향한 경고 / 23-24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 / 25-27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 28-32 금품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 33-36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3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 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5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7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8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9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울무와 덧과 거치는 것과 보용이 되게 하옵시고

10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굵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라도

13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

노니

14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오

16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7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들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궁하지 말라 자궁할 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24 내가 원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라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들이키시겠고
27 내가 저희 죄를 없이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8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0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공물을 입었는지라
31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

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공물로 이제 저희도 공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2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묘사가 되었느냐
35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1. **㉠** 본장은 9, 10장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 ㉠** (1)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9장)과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10장)을 논한 후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이러한 문제는 바울이 본장 서두에서 꺼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3) 그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란 단호한 부정(否定)으로 주어진다. 결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민(選民)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종말의 때,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25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26절). 이것이 본장 전체에 걸쳐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답변이다.
 (4) 우리는 이러한 본장의 내용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잘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그리고 공물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더하게 될 것이다.

2. **㉠** 본장이 지니고 있는 특이한 예언적 내용들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본장이 지니고 있는 예언적 내용 중에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25-29절).
 (2)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2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90% 이상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유대교를 고집하고 있다.
 (3) 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즈음에 대대적인 민족적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참조, 사1:26; 11:12; 27:13; 33:20; 40:2; 49:22; 60:10; 겔20:40; 36:8; 습1:17; 10:6; 14:11; 말3:4).
 (4) 또 한 가지 본장의 예언적 내용은 엘리야의 때와 같이 현재 이스라엘에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선택된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2-5절). 이러한 남은 자는 마지막 때가 오기 전 유대인의 대회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다.
 (5) 이상에 언급된 본장의 예언적 내용들은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역사적 종말론(終末論)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우리는 본장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종말의 때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과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아무도 알 수 없지만(마24:36; 행1:7) ①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마24:14) ②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고(25절;계6:11) ③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심을 하게 되면(26절) 우리는 곧바로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알아야 한다.

3. **㉠**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은 무슨 의미인가? (1절)

- ㉠** (1) 이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배이며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은 민족임을 상기시키고 있다(출4:22;19:6;신14:2;26:18;시135:4;사43:20;호11:1).
- (2)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이 본서에서는 계속 불순종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떠난 민족으로 지적되어 왔다(2:17-25;9:30-32;10:3,16,21).
- (3) 그러므로 본서신을 읽는 독자들은 이스라엘이 구약의 확고한 언약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바로 이러한 독자들의 생각을 예상하고 바울은 본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4)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信實性)에까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가 확실하게 설명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허락해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역으로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새로운 도약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4. **㉠**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란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했는가? (1절)

- ㉠** (1) 그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그가 본서신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3:4,6,31;6:2,15;7:7,13,9;14) 단호한 부정의 표현인 '그럴 수 없느니라'(NIV, By no means)는 말로 답변하고 있다.
- (2) 이처럼 단호한 답변을 할 때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리시라고 확언하신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삼상12:22;시94:14;렘31:37;33:24).
- (3)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실례로 바로 자신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알고 보면 바울 자신이야말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골수 유대인이었으며(고후11:22;빌3:5)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대한 핍박자였으나(고전15:9)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구원을 받았던 것이다.
- (4) 사실상 바울과 함께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도들도 모두 유대인들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셨음을 알 수 있다.
- (5) 문제는 완악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던 일부 유대인들(비록 이들이 다수이기는 했지만)에게 있었다(7,25절). 오늘날도 역시 계약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들의 구원은 확신할 수 없다. 비록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행20:28)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구원 자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참조, 겔14:14,16,18,20;18:20).

5. **㉠** 바울은 또 어떠한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사실을 증거하였는가? (2-5절)

- ㉠** (1) 자기 개인의 경우를 예로 들었던 바울은 이제 왕상19:1-18에 기록된 엘리야 시대의 경우를 예로 들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
- (2) 바울은 특별히 왕상19:10,14,18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극도로 부패한 나머지 여호와를 바로 섬기는 자가 엘리야 한 사람뿐인 것 같았으나 사실은 당시에도 하나님이 남겨 두신 참성도 7천 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 (3) 이처럼 바울이 엘리야 시대를 예로 든 것은 매우 적합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바울 당시는 엘리야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처럼 불신앙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 (4) 그래서 바울은 ‘이제도’(too, at the present time)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열왕기상 말씀을 자신의 시대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런즉 이와 같이(엘리야의 시대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5절).
- (5) 이 말씀은 동일하게 현대의 유대 사회에도 적용되어진다. 오늘날 유대인의 9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들 중에는 상당수의 드러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말씀은 무신론을 앞세워 기독교를 박멸한 것처럼 보이는 공산주의 사회(소련, 중공, 동유럽 제국, 북한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얻고 우리 역시 환난의 시대를 만날 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도록 순교적(殉教的) 신앙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 10:22;24:13).

6. **㉠** ‘너희가...알지 못하는냐’라고 한 바울의 말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2절)

- ㉠** (1) 이러한 바울의 말은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6:3,16;7:1;고전3:16;5:6;6:2,3,9,15,16).
- (2) 즉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마땅히 기억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바울은 이처럼 성경을 모든 문제의 해결의 궁극적인 열쇠로 보았다.
- (3)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도 일치한다. 예수께서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표현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로서의 성경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주셨다(마12:35;19:4;21:16,42;22:31;요3:10).
- (4) 과연 신구약 성경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 3문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다(딤후3:16). 우리는 신앙과 신학의 문제 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궁극적인 해답을 성경으로부터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7. **㉠** ‘칠 천’이란 수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4절)

- ㉠** (1) 엘리야 시대에 남아 있던 진실한 신앙인의 수효를 가리키는 ‘칠 천’(헬, 안드라스)이란 수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도’ 그러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마14:21;막6:44).
- (2) 한편 이 7천이라는 수자는 매우 특별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7’이 완전수임을 생각할 때(출25:37) 7천이란 수자는 영원 전부터 구원을 얻기로 선택된 엘리야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보호받고 있었음을 상징한다.
- (3) 결국 이들이 신앙을 지키며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노력이나 그 사람들 각자의 인품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남겨 두었다’(4절)는 표현은 그 점을 강조한다.
- (4) 여기서 우리는 역사(歷史)를 통해 택한 자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엿볼 수 있다. ‘여호와와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시34:11).
- (5) 그러므로 죄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날마다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노력을 통해 ‘남겨진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8. **㉠**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 사상을 열거하라(5절).

- ㉠** (1) ‘남은 자’(remnant) 사상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실례들을

차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2) 먼저 창세기에서 살펴보면 노아의 때에 소수의 택함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창6:1-8; 눅17:26,27; 벰전3:20). 룯의 때에도 역시 그러했다(창19:29; 눅17:28,29).
- (3) 다음 우리가 방금 고찰한바 있는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드러나지 않은 경건한 성도 7천 명이 있어 '남은 자'를 형성했고 이사야 때 역시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사6:13; 10:22).
- (4) 이외에도 구원은 선택된 남은 자들의 것이라는 사상이 구약 여러 귀절에서 발견된다(사1:9; 11:11,16; 46:3; 53:1; 렘23:3; 31:7; 욥2:32; 암5:15; 미2:12; 4:5-7; 7:18; 습3:13). 특별히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숨은 그 이름 자체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으로서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을 대변해 준다.
- (5) 신약 시대로 넘어와 바울의 때에도 이스라엘에는 경건한 남은 자들이 있었다(14,24,25절; 9:6; 10:4,11,16).
- (6) 이처럼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남은 자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 뿌리는 비유 중 '좋은 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반영된다(마13:1-9,18-23; 막4:1-9,13-20; 눅8:4-15).
- (7) 이와 같이 남은 자 사상은 오늘날 복음으로의 초초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이어진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 일부만이 회심하게 될 것을 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묘사하셨다.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22:14).

9. ㉠ '남은 자'와 선한 행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6절)

- ㉠ (1) 바울은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힌다.
- (2) 사실상 율법적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반(反)복음적인 사상이 아닐 수 없다.
- (3) 바울이 본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남은 자 사상을 오해하여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갈1:6-9; 3:1-5).
- (4) 사실상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도 철저한 도덕적 생활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실상을 보고 남은 자에 대한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비록 허물 많고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라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남은 자에 포함된다. 만일 도덕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면 낙심하기에 앞서 겸손한 자세로 더욱 성화(聖化)되도록 힘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참조, 빌3:12-16).

10. ㉠ 이스라엘의 다수가 완악(頑惡)하여진 사실은 누구에 의해 되어진 일인가?(7-10절)

- ㉠ (1) 바울은 이스라엘의 선택된 소수, 즉 '남은 자'에 관하여 말한 후(1-6절) 이제는 대상을 바꾸어 이스라엘의 완악한 다수에 대해 말하고 있다.
- (2) 그는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듯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도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진 일임을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밝히고 있다.
- (3) 바울이 그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구약은 신29:4(8절)과 시69:22,23(9,10절)이다.
- (4) 먼저 신29:4('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은 영적 무감각에 대한 말씀이다(참조, 사6:9; 29:10; 43:8; 렘5:21; 겔12:2; 마13:14; 엡4:18).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를 영적 무감각으로 방치하심을 뜻한다. 영적 무감각에 빠진 자는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진리인 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무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시119:18)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소서(사50:4,5)'라고 늘 기도해야 할 것이다.

- (5) 다음 시69:22,23('저희 앞에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덜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대적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다(참조, 시69:7,9). 이러한 저주가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내려졌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 (6) 이처럼 유대인들이 완악해진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일말(一抹)의 희망을 암시한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다시 온유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희망이다. 이 희망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더욱 큰 확실성을 갖게 된다(출4:22;19:6).
- (7)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하나님께 버림 받은 사람으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의 회개가 가능한 것처럼 그도 역시 회심할 때가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사도 조지 물러(George Muller)는 생전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세 청년이 있었는데 한 명은 물러의 생전에, 두 명은 물러가 죽은 후 그의 장례식장에서 회심하였다고 한다.

11. Q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니게 될 가치는 어떠한가? (11.12절)

- A (1) 11절에서부터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다.
- (2) 먼저 그는 7-10절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완악해지기는 했으나 절망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 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NIV, Did they stumble so as to fall beyond recovery? Not at all! ; 공동 번역, 그러면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 (3)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강박케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결국 그 목적은 선한 것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 (4) 즉 유대인의 넘어짐(복음을 거부하는 행동)은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바울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일은 얼마든지 목격될 수 있었다(행13:44-48;18:6;28:23-28).
- (5) 이제 이스라엘의 충만함(복음을 받아들이는 행동)은 넘어짐보다 더욱 큰 유익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민족적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때 그리스도도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 (6)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택정하신 인격과 공동체는 비록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어느 기간 동안 버려질 수는 있겠으나 끝내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확실성이며 하나님의 완전성이다.

12. Q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 이유는 무엇인가? (13, 14절)

- A (1)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15:16;행26:17)라는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 이유 중 한 가지는 그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써 말미암아 적은 수이지만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구원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 (2) 즉 바울이 이방인에게 열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인들로 시기나게 하고 자극하는 결과를 야기시키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몇몇 유대인이 회심할 수 있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 (3) '시기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심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동인(動因)이다(11절). 여기서 '시기'(envy)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고 풍요한 삶에 대한 부러움을 뜻하는 말로 이해된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여 기쁨과(요16:22) 평안과(요14:27) 풍성한 삶(요10:10)을 누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부러워하여(혹은 감명을 받아)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4) 여기에 다시금 동족을 향한 바울의 진실한 사랑과 깊은 관심이 나타난다(9:2,3;10:1).
- (5) 이러한 사랑과 관심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도록 했고 그로 말미암은 열정적인 바울의 소명감이 위대한 선교사의 생애를 가능하게 했다(참조, 고전 9:16,22;고후9:15).
- (6)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명감이 결여된 사역자들이 적지 않다. 우울한 얼굴과 불만스런 표정으로 마치 못해 일하는 사역자, 그는 마치 자기의 물건을 사지 말아 달라고 고객에게 부탁하는 세일즈맨과도 같다.

13. ㉠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심을 어떤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가?(15.16절)

- ㉠ (1) 바울은 유대인의 회심에 대하여 두 가지의 비유로써 설명하고 있다.
- (2) 즉 그는 유대인의 회심에 대하여 ①첫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부활로 비유했으며(15절) ②둘째,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따라 떡 덩이가 거룩하여지고 뿌리를 따라 가지도 거룩하여지는 것으로 비유하였다(16절).
- (3) 먼저 유대인의 회심은 세상의 화목을 위해 버린바 되었다가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이니만큼 부활에 비유될 수 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극적인 변화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복음의 궤방자였다가 복음의 사도로 변신한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다가 극적인 회개를 통해 변화된 한 유대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밤이 낮으로 바뀌는 것은 큰 변화이다. 그러나 나의 심령으로 경험한 변화는 그보다 더욱 큰 변화였다.'
- (4) 다음으로 유대인의 회심은 거룩해지는 것, 다시 말해 구별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떡 덩이와 가지에 비유된다(참조, 신15:17-21). 이 비유에서 처음 곡식과 뿌리는 유대인들의 조상(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상징하는 것 같다(28절). 결국 유대인들의 회심은 구원받은 그들의 조상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게 됨을 의미한다(출19:5,6;신14:2;벧전2:9).
- (5) 이와 같은 유대인의 회심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로부터 파생되어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의 해외 선교 활동은 과연 국내의 불신자들을 회심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가?

14. ㉠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임하는 것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17-19절)

- ㉠ (1) 여기서 돌감람나무(wild olive)는 야생 감람나무를 말하고 참감람나무(olive)는 과수원에서 재배되는 오래 묵은 감람나무를 가리킨다. 그런데 실제로 팔레스틴에서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는 달리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지 않고 참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에 접붙힌다고 한다.
- (2) 이 사실을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비유를 잘못 들었다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사실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다.
- (3) 본문에서 바울은 식물의 접붙임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다만 영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상적인 예화를 사용했을 뿐이다. 예수께서도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가상적 예화를 종종 사용하셨다(참조, 마20:1-16).

15. ㉠ 바울이 접붙임의 비유를 통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경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라(17-21절).

- Ⓐ (1) 이 부분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궁하지 말라'(18절)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 (2) 로마 교회의 영적 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구성원 중 일부 사람들이 일종의 영적 자만심을 가지고 동료 유대인 신자들을 업신여기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추측은 본서신의 여러 귀절들을 통해 뒷받침된다(12:3;14:1,3,4,10,13;15:1,2,5,7,15,16).
- (3)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이방 교회에서도 역시 발견된다. 특별히 한국 신자들 중에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한국을 동방의 이스라엘 혹은 제사장 나라(출19:6)라든가 한국인을 제2의 성민(聖民)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특별히 택하시고 종말의 때까지 섭리하여 가시는 구속적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므로서 비롯된 자만과 무지(無知)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 (4)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인류를 이끌고 가실지에 대한 기대와 또한 성경을 통해 예시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야 한다.
16. Ⓞ **접붙임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7-21절)**
- Ⓐ (1) 접붙임의 비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뿌리에 이방인이라는 가지가 접붙임되었다고 묘사함으로써(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의 처지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의 가지가 꺾이우고 그 자리에 이방인 성도가 접붙임되었다고 해도 뿌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라는 말씀이다.
- (3) 그러므로 가지에 불과한 이방인 성도가 뿌리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결코 자궁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 사도는 경고한다.(18절).
- (4) 또한 접붙임의 비유는 이방인 성도가 접붙임을 받은 것이 그들에게 어떤 우월함이나 뛰어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믿음' 때문인 것을 밝혀 준다.
- (5) 그러므로 사도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20절)고 경고한다.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교만, 자랑, 자만등과 공존하지 못한다. 반면에 믿음은 경건한 두려움을 수반한다(잠3:7;빌2:12,13;히4:1;벧전1:17).
- (6) 만일 자만심으로 인해 믿음을 상실한다면(물론 이는 택함 받은 자가 타락한다는 뜻이 아닌 순수한 가상적 표현이다)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꺾인 것보다 더 쉽게 꺾임을 받고 말 것이다.
- (7)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교회 안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지니는 것이 마땅하다. 자신의 신앙의 연조(年條)가 길다는 이유로 또한 말은 직분이 화려하다는 이유로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을 뿐이다.
17. Ⓞ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23, 24절)**
- Ⓐ (1) 바울은 꺾임을 받은 이스라엘이 만일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자기 조상들을 뿌리로 하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23절).
- (2) 특별히 그는 이 접붙임을 이방 성도들의 자기 뿌리도 아닌 다른 나무에 '본성을 거스려' 이루어진 접붙임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더...접붙임을 얻으랴'는 고무적인 예상을 하고 있다(24절).
- (3) 즉 이스라엘이 한번 꺾임을 받았을지라도 조건이 구비되어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뜻이다.
- (4) 이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성민으로서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문제는 그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이제 이어지는 25-29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 '때'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18. **㉠**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비밀의 내용은 무엇인가? (25절)

- ㉠** (1) 바울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비밀을 공개하려고 한다. 여기서 사용된 '비밀'(헬, 뮌스테리온)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라는 뜻이다(16:25; 마13:11; 막4:11; 눅8:10; 계1:20; 10:7; 17:5,7).
- (2) 바울이 이 비밀을 공개하는 목적은 본서신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지혜 있함을 면케 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선민 됨을 무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목적을 말하면서 바울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이는 '너희가 명심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뜻이다.
- (3) 이러한 배경 아래서 바울이 공개한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궁극적 구원 문제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질 때에 관해서도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한다.
- (4)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사용하여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육적인 유대인은 복음에 대한 불신앙으로 넘어져 버린 바가 된다(11절). 그 결과:
 - ②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선택된 이방인은 구원을 받는다(11절). 그 결과:
 - ③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들의 질투를 일으킨다(12절). 그 결과:
 - ④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규모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31절). 이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구원에 참여 한다.
 - ⑤ 그리스도의 재림, 역사의 종말.
- (5) 그렇다면 현재 이방인의 어느 정도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는가? 1980년 현재 전세계 기독교도(개신교)의 수는 약 5억(전세계 인구의 15%)이다. 앞으로 중공(10억), 인도(7억), 중동(5억)의 인구 집단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 중에서 수 억의 회심자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가 지난 후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스도의 재림, 역사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 (6) 날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그 재림을 좀더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 아니라 예수께서 맡겨 주신 책무이기도 하다(참조, 마28:19, 20).

19. **㉠**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귀절의 의미를 설명하라(26절).

- ㉠** (1) 이 귀절의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세 가지 이론으로 나뉘어진다.
- (2) 그 첫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견해로 '온 이스라엘'이란 역사적 종말의 때에 지구상에 살고 있을 모든 유대인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한다. 이 견해는 '역사적 종말의 때'로 시점을 국한시켰는데 이는 '온 이스라엘'이란 말이 주는 뉘앙스와 어울리지 않는다.
- (3) 두번째 견해는 칼빈(J. Calvin)의 이론으로 소개가 된 견해이다(Jacobs, Leeuwen, Barth). 칼빈은 '온 이스라엘'이란 말을 모든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했다. 칼빈이 이스라엘을 택함 받은 자의 집단으로 해석한 것까지는 타당하나 거기에 이방인까지 포함시킨 것은 본 서신의 문맥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다(참조, 27-29절)

- (4) 세번째 견해는 ‘온 이스라엘’을 선택된 유대인 전체로 보는 학설로서 가장 타당한 견해이다(Volbeda, Bavinck, Hoekhema, Berkhof, Ridderbos, Lenski, Robertson). 이 해석은 25절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말씀이나 26-29절에 이어지는 문맥과도 훌륭하게 조화를 이룬다.
- (5) 이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이 합쳐져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면 그때 드디어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고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 (6) 물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예수의 재림을 앞당긴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나라로 모두 불러들이게 되면 곧 예수의 재림이 성취된다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즉 예수의 재림은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성취된다.

20. ㉠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역사(役事)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6, 27절)

- ㉠ (1)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 우주적 대역사(大役事)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밝힘에 있어서 바울은 단순히 자기의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약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
- (2) 그런데 그가 인용한 말씀은 구약의 어느 한 귀절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사27:9;59:20,21을 능숙한 솜씨로 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사상을 표출한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자기 말처럼 자유스럽게 구사하는 바울의 영성(靈性)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은 그야말로 구약 히브리 본문 뿐 아니라 70인역(LXX)까지 구석구석을 정통하고 있던 그 시대의 ‘걸어다니는 성경’(walking Bible)이었던 것이다.
- (3) 그 예로서 우리는 ‘시온’이란 말에 달려 오는 전치사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을 자유롭게 구사했던 바울의 솜씨를 다음 대조표를 통해 분석해 본다.

바 울	구 약		의 미
	히브리 본문(MT)	70인역(LXX)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26절)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사59:20)	‘구원자가 시온을 위하여 오사’(사59:20)	‘시온’이란 말에 달려 오는 전치사가 각각 다르다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할 때에’(26, 27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사27:9)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으며 …내가 그의 죄를 없이할 때에’(사27:9)	바울은 구원자의 인성을 통찰하여 구원자가 ‘시온에서’(out of zion) 오신다고 했다(참조, 미5:2) 구원자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의 불의와 죄를 제거해 주셔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27절)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사59:21)	‘저희에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사59:21)	여기서 사도 바울은 렘 31 : 31 이하에 나타나 있는 ‘죄사함’에

			관련된 언약의 개념을 배합시키고 있다
--	--	--	-------------------------

- (4) 한편 이 말씀은 결코 예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 재림하신 예수는 인성을 가지고 시온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입은 '몸으로 하늘로 좇아'(살전4:16) 오신다. 여기서 바울은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자신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은 이스라엘'이 용서받고 구원 얻게 될 근거를 마련하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21. ㉠ 모든 사람들에게 공화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라(28-32절).

- ㉠ (1)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결론지으려고 한다. 이 부분에서 그는 '저희'(28절), '원수된 자'(28절), '사랑을 잃은 자'(28절), '이스라엘'(30절), '이 사람들'(31절) 등 여러가지 말로 표현된 이방인을 교차시켜 말하면서 그 둘이 대립된 오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간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기 시작한다.
- (2) 유대인들과 이방인이란 우주적인 두 공동체를 대립시키는 가운데 이루어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두 공동체가 합쳐진 '모든 사람'에게 공화를 베푸시려는 것이었다(32절).
- (3) 결국 이방인의 불순종도(30절), 유대인의 불순종도(30,31절),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아니한 것도(32절) 모두 다 공화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은 악마저도 선으로 바뀌어지게 하신다(8:28).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29절). 즉 그분의 깊으신 경륜은 어떤 흠이나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시다.
- (5) 이렇게 해서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공화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제 벽찬 감격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려 한다(33-36절).
- (6) 이러한 공화하심을 입은 우리도 자신의 과거가 죄악되고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보다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결코 자고(自高)할 만한 것이 없으니 단지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만 몰두해야 할 것이다(참조, 엡2:8,9).

22. ㉠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찬양하였는가? (33-36절)

- ㉠ (1)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할 때 터뜨린 '큰 슬픔'(9:1)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공화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벽찬 나머지 감격적인 찬송을 터뜨리고 있다.
- (2) 그는 먼저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찬양한다(33절).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인간으로서는 능히 미치지 못할' 것들이다(시139:6). 그래서 바울 역시 주의 판단(judgment)은 측량할 수 없으며 주의 길(Living Bible, methods, 방법)은 찾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참조, 엡11:7).
- (3) 이어서 그는 연속된 세 가지의 질문을 차례로 던지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지략과 소유를 드높이 찬양한다(34,35절).
- 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뇨'(34절): 사40:13의 70인역(LXX)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참조, 사55:8). 우주의 운행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지극히 웅대한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항복을 하고 만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탐구하려고 하기 보다 먼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알아도 될 만큼 알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 ②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뇨'(34절): 이 질문 역시 사40:13의 인용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모사도 필요치 않으신 분이시다. 대신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모사가 되어 주실 수 있는 전지 전능한 분이시다(엡36:22,23).

③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값으심을 받겠느냐’(35절): 이 질문은 욥41:11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은 만유를 소유하신 분으로 받기 전에 먼저 받을 것조차도 주시는 분이시다(욥35:7; 행20:35). 즉 그분의 풍요는 이 세상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

(4)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엡1:23) 고백하며 찬양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36절). 이 귀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성경 전체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성삼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고 또한 심판자이시다. 즉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요체이자 고백이 되어야 하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다음과 같이 찬송해야 할 것이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화보자료

천사의 보살핌을 받는 엘리야. 도레의 그림이다.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 광야로 피신해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돌보고 있는 장면이다(왕상19:1-8).



신앙적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엘리야는 때맞춰 찾아오신 하나님께 모든 선지자들이 순교당하고 오직 자신만이 남았다고 하소연 하였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직도 신앙을 같이하는 자가 7천이나 남아 있다고 위로하셨다(왕상19:9-18). 이 같은 위로는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권顧하시며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데 이 점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본장에서 바울은 엘리야와 하나님 간의 이러한 대화를 인용하면서(2-4절) ‘그러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5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료

이스라엘의 회심(回心)

본장 25,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에 앞서 '온 이스라엘'(all Israel)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물론 이 같은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것(사1:26, 27; 겔20:40; 슥10:6; 12:10; 13:1)으로서 전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온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 계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신학자들간에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本稿)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려고 한다.

1. 온 이스라엘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신학자들간에 의견이 크게 이분되고 있는데 하나는 '온 이스라엘'을 '모든 영적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여자적(如字的)으로 '육적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는 것이다. 전자의 견해를 취하는 대표적인 신학자는 칼빈(Calvin)으로서 그는 본장에서 말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칼빈의 견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25절)는 말과 상충되는 것으로서 수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25, 26절의 문맥 관계상 후자의 견해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후자의 견해를 취하는 대표적인 신학자로는 메튜 헨리(Matthew Henry)와 우리나라의 박 형룡(朴亨龍) 박사 등이 있다.

2. 온 이스라엘의 범위

이상과 같이 '온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남는다. 즉 '육적 이스라엘 자손'이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생존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인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참 이스라엘인들만을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그 누구도 명쾌하게 대답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遺棄) 사상(9장; 엡1장) 및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치 않는 자는 버림을 당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마8:11, 12; 눅13:6-9)에 의거해 볼 때 우리는 본장에서 말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모든 육적 이스라엘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 있다.

제 12 장 산 제사를 드리라

단락구분 1-2 헌신에 대한 호소 / 3-8 성도에게 주신 은사와 직무 / 9-13 성도가 성도에게 행해야 할 선(善) / 14-21 성도가 불신 사회에 대하여 행해야 할 선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에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 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9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

를 서로 먼저 하며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4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

17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 ㉠ 본서의 후반부인 12-16장은 주로 어떤 문제를 다루는가?

- ㉠ (1) 본서의 후반부인 12-16장,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적인 메시지이며 문안 인사인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 12:1-15:13은 본서의 전반부인 1-11장에서 논의되어졌던 '의'(義)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2) 말하자면 1-11장은 교리편이요 12-16장은 실천편이다. 바울은 교리편을 통하여 ① 의의 필요성(1:18-3:20), ② 의의 근거(3:21-5:21), ③ 의의 수여(授與), 즉 성화(6:1-8:39), ④ 의의 변호(9:1-11:36) 등의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이제 그는 본 실천편을 통하여 그 모든 교리의 적용으로서 의의 실천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 하는 것이다.
- (3) 그런데 바울은 의의 실천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영역과 관련하여 성도들에게 권면한다. 그는 먼저 ① 성도 자신(12:12), ② 다음 교회(12:3-8), ③ 세계 사회(12:9-21), ④ 네째 국가(13:1-14), ⑤ 마지막으로 성도 사이(14:1-15:13)와 관련하여 권면하고 있다.

- (4)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실천편을 통하여 무엇이 선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복음에 어울리는 성도의 행동 지침을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일종의 기독교 백서(白書)와도 같다.

2. ㉠ 바울은 성도의 신앙적 삶의 첫걸음을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1, 2절)

- ㉠ (1) 그는 성도가 신앙적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일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 (2) 왜냐하면 이러한 헌신을 함으로써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생의 목표를 바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또한 우리는 이 헌신의 정도에 따라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하는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이치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힘쓰자. 한편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시73:28)고 노래했다.

3. ㉠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이 접속사는 본장이 전장(前章)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9-11장 뿐 아니라 앞서 행한 모든 말씀(1-11장)의 결론 부분임을 암시하고 있다.
- (2) 즉 바울은 앞선 부분에서 믿음과 의 그리고 구원에 관한 영적 진리를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였다. 이제 그는 그 긴 논증을 마치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 '그러므로'라는 말로 운(韻)을 떼면서 앞에서 말한 영적 진리에 근거한 권면을 시작하려 하는 것이다.
- (3) 실제로 바울은 곧 이어 '권하노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권하다'(헬,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명령과 간청 사이의 중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이 말은 '명령'에 의해 보다 강력하게 표현되는 일종의 권위적 요소를 가질 뿐 아니라 아울러 '간청'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호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참조, 고전1:10; 고후10:1; 엡4:1).
- (4) 이처럼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설명과 권면이 연속되는 형식은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구조였다(참조, 엡4:1; 골3:1; 살전4:1; 살후3:1). 이러한 구조의 원리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뿐 아니라 일상 생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도 기억해 둘 만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여기 사용된 '자비하심'(헬, 오이크티르모스)이란 말은 '큰 자비' 또는 '동정'(同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라하엿>에 해당하는 말이다.
- (2) 한편 <라하엿>이란 히브리어는 사63:15; 호2:19에 등장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출'을 의미한다.
- (3) 따라서 본절에서 '자비하심'이란 말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호소를 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 (4) 이교도들은 자비하심을 얻기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경향이 있었지만 성경적 신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절한 응답으로도 제사의 기본적인 것을 드리게 되었다고 가르친다.
- (5) 즉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크신 은혜일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더욱 말씀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5. ㉠ '너희 몸'이란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라(1절).

- Ⓐ (1) 본절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6:13에는 ‘몸’이란 말이 나오지 않으며 대신 ‘지체’라는 말과 ‘자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성도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으로 묘사된다.
- (2) 그런데 본절과 6:13의 사상적 배경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본절의 ‘몸’이란 말은 헌신하는 자의 인격 뿐 아니라 육체적인 힘까지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비록 헬라 사상은 몸을 영혼이 담겨 있는 그릇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것은 인간을 하나의 통일체로 보는 히브리적인 개념과는 확실히 다르다.
- (4) 따라서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영혼과 구별된 육체만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주장하지 않고 있음이 확실하다. 오히려 바울은 몸을 구원받은 영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용기(容器)로 보면서 몸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5) 우리의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조건이다. 우리는 이 몸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6. Ⓞ ‘영적 예배’란 말의 번역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를 설명해 보라(1절).

- Ⓐ (1) 영적 예배(spiritual service)란 말의 번역은 NIV, RSV와 같은 입장을 따른 것인데 KJV 같은 영역본은 ‘합당한 예배’(reasonable service)라고 번역하였다.
- (2) 여기서 ‘합당한’이라고 하는 번역이 우리의 헌신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비교할 때 적절하다는 의미를 갖는데 비하여 ‘영적’이라는 번역은 우리의 헌신을 유대인들의 제사와 비교하여 실체적(實體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3) 그런데 이 두 번역은 각기 일면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무래도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번역이 보다 포괄성이 있는 번역이다.

7. Ⓞ ‘예배’란 말의 비유적 의미를 말하라(1절).

- Ⓐ (1) ‘예배’(worship)란 말은 헬라어 <라트레이아>의 번역으로서 바울은 모든 유대인 제사를 이 말로 표현한 적이 있다(9:4). 본절에서 바울은 이 낱말에 비유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 (2) 그런데 여기서 직면하는 문제는 예배란 말이 너무 제한된 역어(譯語)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가리키는데 본절에서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이 때문에 예배라는 번역보다 섬김(KJV, service)이라는 번역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섬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활동의 전영역을 포괄하는 낱말이다(신10:12).

8. Ⓞ 본절 말씀은 1절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2절).

- Ⓐ (1) 1절이 전폭적이고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반면에 2절은 그러한 헌신의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전절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 (2) 이 헌신의 유지라는 사상은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매어 둔다’는 구약의 말씀에 예시되어 있다(시118:27). 즉 희생 제물은 한번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 제단에 묶여져 있어야 했다.
- (3) 그런데 헌신의 유지에 대한 역작용이 ‘이 세대’로부터 온다. 즉 이 세대의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은 성도의 헌신 생활을 흐트러뜨리기 위하여 교묘히 도전해 온다.
- (4) 여기서 바울은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 <아이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낱말은 ‘세상’에 해당하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인 <코스모스>와 공통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본절에 쓰인 ‘세대’란 말은 ‘세상’이란 말과 동의어이다. 그런데 성도들은 사단을 자기 신

(神)으로 섬기는(고후4:4) 이 악한 세대로부터 전짐을 받았다(갈1:4). 또한 구원받은 후 성도들은 오직 내세(來世)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임에는 변함이 없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직면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증언을 위한 것이지 지나가는 현상에 타협하거나 순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고전7:31).

9. ㉠ 성도가 헌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의 내용을 설명하라(2절)

- ㉠ (1)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권면에는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보충되어 있는데, 이 변화라는 말 속에는 항상 갱신되어야 할 하나의 과정이 암시되어 있다.
- (2)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은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고 갈보리로 가는 길을 받아들임으로써 형상이 변화되신 그리스도이시다(막9:2,3).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결단을 통해 변화되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
- (4) 한편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성도가 세상 일만 생각하던 무신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인생관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 같다(참조, 엡4:22-24; 골3:1,2).
- (5) 이러한 인생관을 통해 속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참조, 고전3:10-16; 히5:14).
- (6)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계속적으로 헌신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첩경(捷徑)이라고 할 수 있다.
- (7) 결국 헌신은 심령의 변화를 수반하며,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가능케 한다. 이제 우리는 3절 이하로 계속되는 말씀들을 통해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10. ㉠ ‘믿음의 분량’이란 무슨 뜻인가? (3절)

- ㉠ (1) 바울은 믿는 자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고하면서 그 기준으로서 ‘믿음의 분량’을 제시하고 있다.
- (2) 여기에서 ‘믿음’이란 말은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은사를 올바르게 행사할 자신(自信)을 가진다는 의미에서의 믿음을 의미한다.
- (3) 따라서 이러한 믿음은 객관적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4) 또한 ‘분량’이란 말은 정도(程度)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가 행하도록 ‘부름받은 행동의 분량인 이 은사는 새로와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마땅히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제한이며, 이러한 제한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인은 그가 교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한 그의 열망을 규제해야 한다’(Goded).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 때에 만이 올바른 신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11. ㉠ 바울은 성도들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였는가? (4, 5절)

- ㉠ (1) 바울은 앞에서 말한 ‘믿음의 분량’이란 개념을 좀더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하여 성도들의 관계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여 그의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 (2) 성도들의 관계 혹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한 예화는 고전12장을 비롯한 바울

서신의 여러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전12:12-14,27;엡4:4,16).

- (3) 그런데 이 모든 예화들은 ① 몸의 통일성, ② 그 지체들의 다양성과 이에 상응하는 기능의 다양성, ③ 여러 지체들의 상호성 등 사람의 몸에 관련된 세 가지 원리가 성도들의 관계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4) 한편 위에 소개된 세 가지 원리 중 특별히 '다양성'의 원리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5) 즉 사람의 몸에 속한 여러 지체들은 모두 동등한 생명이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에너지의 분량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각기 다양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참조,엡4:16).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을 바로 깨달아 교회 내에서 직분을 행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문제이다.

12. **㉠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은사와 그 은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라(6-8절).**

- ㉠** (1) 바울은 믿음의 분량에 대해 설명한 후(3-5절) 그 분량에 따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일곱 가지로 말하면서 아울러 그 은사를 수행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번호	은사의 의미	은사를 수행하는 방법
1	예언(6절) : 이 은사의 본질은 일차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청중들의 과오를 깨닫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는 계시의 전달에 있다(고전12:28)	'믿음의 분수대로' : 여기서 믿음이란 주관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그의 언약에 대한 예언자의 신뢰심을 의미한다(3절). 예언자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는 안 된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한다
2	섬기는 일(7절) : 헬, '디아코니아' 성도의 물질적 요구를 관장하는 집사의 직분과 관련된 은사를 말한다(참조, 고전12:28)	'섬기는 일로' : 섬김의 은사와 직분을 맡은 자는 다른 사역, 예를 들어 예언이나 가르치는 일을 생각지 말고 오직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라는 뜻이다
3	가르치는 일(7절) : 가르치는 은사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시의 전달 수단인 예언의 은사와 구별된다(고전14:6). 이 은사를 받은 자는 성도의 삶의 영역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교사의 직분을 맡게된다	'가르치는 일로' : 위의 '섬기는 일로'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즉 교사는 자신이 받은 가르치는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그 직분을 수행하라는 것이다
4	권위하는 일(8절) : 헬, '파라클레이시스' 이 말은 '권면'(딤후4:13) 혹은 '위로'(행15:31)라고 번역 될 수 있다. 여기서는 권면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회당 예배에 있어 예언이나 가르침이 마쳐진 후 회당 지도자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중들에게 권면할 말을 하게 했다(행3:15)	'권위하는 일로' : 위의 두 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맡은 직분에 충실하라는 뜻이다
5	구제하는 자(8절) : 7절의 섬기는 일이 교회 내에서의 자선 행위를 의미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교회 외적인 자선 행위를 말한다(참조, 요일3:17,18)	'성실함으로' : 어떤 복합적인 동기를 지니지 않은 단순한 마음으로 기꺼이 구제하는 자세를 말한다(행5:1 이하). 이런 의미에서 NIV는 이 부분을 '관대하게'(generously)라

		고 번역하였다
6	다스리는 자(8절):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 (헬, 프로히스타메노스)는 다른 곳에서 감독 혹은 장로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 (살전5:12; 딤후전3:4; 5:17). 교인들을 지도하고 통솔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대한 표현이다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직무를 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내세우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경계하면서 근면하게 직무 수행에 임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7	공활을 베푸는 일(8절): 병든 자나 궁핍한 자를 방문하고 보살펴 주는 은사와 관련된 직무이다	'즐거움으로': 굶은 일이란 마지 못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은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한다. '공활을 베풀 때에는 하나님의 태양 빛을 그대 얼굴에 옮겨 놓으라'(A. S. Way)

13. ㉠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권면을 함에 있어서 바울은 사랑의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는가? (9절)

- ㉠ (1) 그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을 통하여 사랑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거짓 없는 사랑'(고후6:6),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딤후전1:5),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벧전1:22)는 표현을 통하여 사랑의 진실성을 강조한다.
- (2) 소극적인 면에서 진실된 사랑은 '악에 대한 미움'을 수반한다(참조, 시97:10; 암5:15).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연극은 될지언정 사랑의 실천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사랑과 악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 (3) 적극적인 면에서 진실된 사랑은 '선에 속하는 것'이다. 즉 사랑이 만일 선을 벗어난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 (4)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확한 의미가 드러난다. 성경은 '사랑을 위해서는 거짓말이나 도적질 심지어는 살인과 같은 악을 행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 윤리(situational ethics)의 입장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14. ㉠ 형제를 향한 사랑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10절)

- ㉠ (1) 첫째는 '서로 우애해야 하며' 둘째로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한다'.
- (2) '우애'(헬,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가족적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말하는데 이는 형제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일원으로서 서로 돕고 이해하며 아껴 주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참조, 마12:46-50; 갈4:5; 엡3:15).
- (3) 다음으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 높이 평가해 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먼저 존경할 수 있는 이유는 존경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개인적 인격이나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자기 자신의 개성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 (4) 결국 성도를 향한 사랑은 '우애'와 '겸손'을 통하여 실천되어질 수 있다(참조, 빌2:3; 벧전2:17) 가족적인 친밀한 애정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겸손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덕목이다.

15. ㉠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도록 권면하고 있는가? (11절)

- ㉠ (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권면하고 있다.
- (2) 이처럼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근면성과 함께 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앙 생활의 나태를 경계하기 위함이다.

- (3) 보통 성도들은 처음 믿을 때에는 매우 열심이다가도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게 되면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고 영적인 타성(惰性)에 빠져 미지근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계2:4;3:15).
- (4)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항상 근면한 생활을 통하여 신앙의 공백기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적극적인 면에서는 성령 충만을 통한 뜨거운 심령으로 주를 섬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참조, 행18:25;20:19).

16. ㉠ '소망' 과 '인내' 와 '기도' 는 상호간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12절)

- ㉠ (1)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소망은(참조, 5:2,4,5;8:24,25;15:4,13) 성도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활을 하게 한다(살전5:16;벧전1:7,8).
- (2)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성도들은 현세적으로 슬한 환난과 핍박을 만나지만(마5:10;요16:33)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다. 말하자면 소망은 인내의 근거이며 모체(母體)인 것이다(참조, 5:2-5).
- (3) 그런데 비록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 (4) 그래서 바울은 소망과 인내를 이야기 한 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도록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다. 이 계속적인 기도가 없이는 소망과 인내하는 힘을 계속 유지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17. ㉠ 물질 생활에 있어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두 가지 덕목을 설명하라(13절)

- ㉠ (1) 그 두 가지 덕목은 ①성도들의 쓸것을 공급하는 것과 ②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 (2) 이 중에서 첫번째 덕목은 초대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의 풍습을 반영하고 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머지 궁핍한 성도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나눠 주었으며(행2:44,45) 재산의 사유권(私有權)마저도 굳이 고집하지 않았다(행4:32-35).
- (3) 그런가 하면 두번째 덕목인 손 대접(hospitality) 곧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된 유대 사회의 오랜 풍습이었다(창18:3;19:2;삿19:20,21;왕상17:10;왕하4:8;행16:14,15;히13:2). 이 덕목은 단지 하나의 풍습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성도의 선행(善行)으로서 실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4) 이러한 두 가지 덕목은 결국 영적인 의미에서 주를 섬기는 일로 귀결(歸結)되어진다(마25:35). 주를 섬기는 일에 힘쓰는 자는 주께로부터 현세와 내세에 있어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마25:34).

18. ㉠ 핍박받는 자를 축복하라는 권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4절)

- ㉠ (1)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의심할 여지없이 구전(口傳)을 통하여 바울에게까지 전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인하고 있다(마5:44;눅6:28).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실천되어졌고(마23:34)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도 실천되어졌다(행7:60).
- (2) 하지만 핍박하는 자를 용서해 주고 더 나아가서 축복까지 해준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으로 볼 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 (3)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우선 보복하려 하는 격정에 휩싸이게 된다. 비록 자제력을 발휘하여 이 격정을 극복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원수들에게 재난이나 손실이 어떤 방법으로든 임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원수에게 나쁜 일이 임하기를 바라지는 않더라도 그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백 명 중에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다'(J. Calvin).
- (4) 그러므로 사실상 핍박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 그대로는 실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 (5)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된다. 즉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2절)야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를 닮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6) 아 물론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윤리의 목표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참조,엡4:15).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늘 기도하는 영적 훈련에 힘씀으로써 우리의 성품이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엡4:22-24).

19. ㉠ 이웃과 더불어 동고 동락(同苦同樂) 하라는 권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5절)

- ㉠ (1)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바울의 권면은 개인 위주의 사고 방식을 버리고 이타주의적(利他主義的) 사고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한다.
- (2) 개인 위주, 즉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자는 결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할 수도,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도 없다. 그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을 때 오히려 질투할 것이며 우는 자가 있을 때 무관심하거나 혹은 기뻐할 것이다(참조,딤후3:3).
- (3)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타주의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는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진심으로 동고 동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4)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동고 동락의 범위이다. 사람들은 가족, 친척, 친구 등과 동고 동락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도 낯선 사람, 타국인, 원수와 동고 동락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원수들과도 동고 동락해야 한다. 이 말은 원수의 나쁜 행위에 동참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뜻이다. 사람의 생명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곧 그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참조, 창4:15;9:5,6)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참조,마5:44-48).

20. ㉠ 이웃을 사랑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16절)

- ㉠ (1)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서 겸손을 강조한 것처럼(10절)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2) 겸손한 마음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마음 상태로 정의한다.
- (3) 첫째,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심(合心)이라는 의미보다(참조, 고후13:11; 빌2:2;4:2; 뱀전3:8) 타인에 대하여 우월감을 갖지 말고 동등한 관계로서 타인과 교제하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만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이 있듯이 성도나 불신자는 다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이다.
- (4) 둘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것': 전향에서 언급된 마음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자신을 비하(卑下)함으로써 지극히 신분이 낮은 사람과도 동등한 관계로 교제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 (5) 셋째,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는 것': 모든 교만은 하나님과 타인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겸손하고 정중하게 처신하는 것 같은 사람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면 그는 이미 겸손의 선을 넘은 사람이다. 이 마지막 겸손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만을 지혜로운 분으로 믿는 신앙을 강조하는 것 같다(잠3:6,7;26:12;사5:21).

21. ㉠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말씀은 기독교 윤리의 어떤 원리를 제시해 주는가? (17절)

- Ⓐ (1) 일반 세속 사회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는 보복의 원리가 적용되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보복은 인과 응보(因果應報)라는 논리에서 정당시 되기도 한다.
- (2) 미국의 서부 영화나 중국의 무술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부모나 가족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람들은 끔찍한 살인마저도 불사(不辭)한다. 이러한 보복 행위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양상의 인간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계 제 1차 대전도 한 왕자의 피살에 대한 보복 행위로 말미암아 발발(勃發)된 전쟁이었다.
- (3) 하지만 보복 행위는 또 다른 보복을 야기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언가 다른 차원의 행동 원리가 요구된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용서와 사랑의 원리라고 말씀하셨다(마5:44;6:12,14;18:21,22,35).
- (5) 이 용서와 사랑의 윤리야말로 피차 허물 많은 인간들이 공존(共存)해야 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여러 사회적 공동체를 진정한 화평(和平)의 관계로 이끌어 주는 기독교 윤리의 요체(要諦)라고 할 수 있다.

22. ⓐ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17절)

- Ⓐ (1)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성도와 불신자 모두를 포함하지만 특별히 불신자 쪽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또한 '도모하라'(헬, 프로노에오)는 말은 문자적으로 '미리...에 대해 생각하다'란 뜻으로 준비성 있는 일의 시행을 가리키고 있다.
- (2) 따라서 이 말씀은 여러 사람 특히 불신자 앞에서 행할 때 주의를 기울여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귀절인 고후8:21('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도 같은 점을 강조한다.
- (3) 즉 이 말씀들은 성도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존경을 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천거'(고후4:2)한다고 했고 또한 감독의 조건으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딤후3:7) 할 것을 요구했다.
- (5) 진정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자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14:18).

23. ⓐ 화평과 관련된 성경의 교훈들을 열거하라(18절).

- Ⓐ (1)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한 본절의 말씀은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루게 말자'(창13:8),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좇으라'(히12:4),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화평하고'(약3:17) 등의 귀절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 (2) 이러한 화평에 대한 교훈들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 수훈(마5-7장)의 8복 중 일곱째 복으로 대표되어질 수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
- (3) 이외에도 성경에는 화평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 기독교 정신에서 차지하는 화평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해준다(마10:8;눅19:10;요3:12-15;고전14:33;엡6:15;살전5:23).
- (4) 사실 예수께서는 이 땅의 화평을 실현하기 위해 오셔서 친히 불화의 근본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참조, 요일4:10). 이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바로 화평이어야 한다.

24. ㉠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명령에 전제되어지는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18절)

- ㉠ (1) 그 두가지 조건은 본절 상반절에 기록된 ① ‘할 수 있거든’이란 말씀과 ② ‘너희로서는’이란 말씀을 통해서 설명되어진다.
- (2) 먼저 ‘할 수 있거든’이란 말씀은 때때로 평화를 유지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히12:14은 평화와 함께 거룩함, 즉 성결을 지키도록 촉구하고 있다(‘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런데 평화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인본주의자(humanist)는 될런지 몰라도 성도(聖徒)라고 불리우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진리와 신앙을 희생시켜야 한다면 그러한 평화는 차라리 포기해야만 한다(참조, 마10:34-36; 눅12:51-53).
- (3) 두번째로 ‘너희로서는’이란 말씀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평화를 유지해야 할 것을 가리킨다. 만일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의하여 평화가 깨졌을 경우 우리는 평화가 깨어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처할 수밖에 없다.
- (4) 이러한 평화의 조건은 개인적인 다툼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간의 전쟁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전쟁에 참여하여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5. ㉠ ‘내 사랑하는 자들아’란 호칭에 대하여 설명하라(19절).

- ㉠ (1) 이러한 호칭은 요한의 서신들에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 사도 요한의 전용어(專用語)처럼 되어 있는 반면(요일2:7;3:2,21;4:1,7,11;요이1:1;요삼1:2,5) 바울 서신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나오는 편이다(고전10:14;고후7:1;빌2:12).
- (2) 대신 본서에서 바울은 그의 전용어와도 같은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1절;7:1,4;8:12;10:1;11:25;15:14,30;16:17). 그런데 바울은 유독 본절에 이르러 본서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이다.
- (3) 물론 여기에 심각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호칭은 바울이 본절에 나타난 권면을 하게 된 동기와 그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4) 즉 바울은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권면함에 있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싶었을 것이다(5:10).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엡5:12).

26. ㉠ ‘진노하심에 말기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19절)

- ㉠ (1) 원수에 대한 성도의 대응책으로 제시된 이 말씀은 얼핏 생각하면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도록 기도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신 14절 말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합당치 않다.
- (2) 이 말씀은 단지 ① 악인을 심판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②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인간의 보복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는 것임을 밝히려 하는 말씀일 뿐이다.
- (3)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바울은 늘 하던 방식대로 구약의 한 귀절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호소하고 있다.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신32:35의 말씀으로(히브리 본문에는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로 되어 있음) 문맥에 비추어 볼 때(신32:20,34,36-43) 그 의미는 (2)와 일치한다.
- (4) 예수께서도 대적자들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받으실 때 그들을 보복하려 하시지 않고 다만 의롭게 판단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셨다(벧전2:23).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역시 악인의 득세(得勢)와 그들의 폭거(暴擧)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의로우신 재판장되시는 하나님(시7:11)께 모든 것을 탄원하고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참조, 시37:1-7).

27. **㉠** 성도는 원수에 대해 어떤 행동까지 할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20절)

- ㉠** (1) 성도는 원수가 주릴 때 먹여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줄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
- (2) 이처럼 원수에 대해 보복 대신 선행을 베푸는 행위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분명히 인정해 드리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는 일에 착수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
- (3) 위와 같은 선행은 다음 두 가지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첫째, 원수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는 효과. 둘째, 회개치 않은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변명할 여지를 없게 만드는 효과.
- (4) 원수가 당면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바울은 '숯불이 그 머리 위에 쌓여 있는 상태'라고 묘사한다. 여기서 숯불이란 피해자가 베푼 예상치 못한 호의로 인해 가해자가 느끼는 수치감과 불붙는 듯한 번민을 상징한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보복 대신 선행을 베푸는 것은 이런 효과를 거둔다.
- (5) 이러한 사상은 바울의 독단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미 잠25:21,22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며 구약의 여러 부분에 편만(遍滿)해 있는 사상이다(출23:4,5; 왕하6:22).
- (6) 여기에 보복과 범죄의 악순환을 정지시키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된다. 그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본장의 마지막 절에서 선언되고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이다(21절).

28. **㉠**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말씀의 뜻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라(21절).

- ㉠** (1) 먼저 악에게 진다는 것은 ①원수의 악한 행위로 번민하는 상태와 ②그 원수에 대해 악으로 보복함으로써 선한 입장을 떠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 (2)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적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3)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감으로써 이루어지는 독특한 생활, 즉 겸손(3,16절)과 봉사(6-8절) 그리고 화평(16절)을 특징으로 하는 생활을 가리킨다.
- (4) 다음으로는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주고 그에게 말과 행동으로써 호의와 선을 계속하여 베푸는 생활을 가리킨다.
- (5)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다.
- (6)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사실을 이론적으로 아는 데 그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배운 성도들은 이제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해야만 할 것이다.

연구자료

성령의 은사(恩賜)

바울은 본서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등과 같은 그의 서

신에서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다(6-8절; 고전12:4-11; 엡4:11, 12).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카리스마타>인데 교회의 덕(德)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고전12:7) 또는 교회의 직분을 받은 개인의 성도 자체(고전12:28)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진리를 가르치고 보존하는 일과 관련된 은사(6, 7절; 고전12:8, 10, 28-30; 요일4:1)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위한 봉사과 성도들간의 우애와 관련된 은사(8절; 고전12:9, 28, 30)도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성령의 은사가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참조, 본시리즈 4권 p.336 연구 자료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 광범위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주어진 때는 초대 기독교회 시대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시에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던 사도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한 성령의 은사(행2:1-4)는 이후 초대 교회의 일꾼 집사(행6:5-8; 8:7) 및 사도 바울(행14:8-10; 20:9-12) 그리고 온 교회의 성도들(고전12:28)에게 주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종 방언과 예언을 하며(행2:4-11; 11:28; 21:11) 병을 고치고(행3:1-10) 귀신을 쫓아내며(행8:7; 16:18) 죽은 자를 살리는(행9:40) 등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처럼 초대 교회에 집중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을 온 세계로 확산시키며 도처(到處)마다 교회를 설립하시려 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립에 기인한다(참조, 행1:8). 그러기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역사하는 곳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무수한 회심자들이 생겨 나게 되었으며(행2:41; 5:12; 8:5, 16; 13:33, 34; 28:23, 24) 그 결과 유대와 사마리아, 소아시아, 유럽 등지에 수많은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성령의 은사는 점차 시간이 경과하며 교회의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범위가 점차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교회 내의 가르치는 직분과 봉사하는 직분이 조직화되면서부터는 교회가 자생력(自生力)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교회 그 자체에 어떤 생명력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그 같은 생명력은 성령께서 교회를 감찰하시며 돌봐 주시는 것에서부터 기인한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방언과 신유, 그밖의 다른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낼 수는 있다. 하지만 초대 교회 시대와 비교해 볼 때 그 범위는 분명 현저하게 축소되어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그 같은 은사보다도 더욱더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는데 곧 믿음과 소망, 사랑이며(고전13장)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5:22, 23)인 것이다.

제 13 장 국가와 사회 생활의 윤리

단락구분 : 1-7 하나님께 허락하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 8-10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라 / 11-14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종말을 준비하든 정도의 생활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용하는 자니라

5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6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

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8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왔음이니라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말하라.

- ㉠ (1) 12장부터 기술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생활은 이제 본장에 이르러 성도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국가관 및 사회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핵심적인 윤리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 (2) 즉 본장에서 바울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1-7절).
- (3) 그 다음 바울은 성도들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권고한다(8-10절).
- (4) 끝으로 바울은 모든 불신앙적인 일을 멀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된 생활을 하라고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참된 자세를 강조하며 본장을 맺는다(11-14절).

2. ㉠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국가관에 관해 언급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설명하라.

- ㉠ (1) 바울이 이제 성도의 구체적인 사회 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국가관에 대해 부득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동기와 배경은 다음과 같다.

- (2) 첫째, 당시 로마 기독교회 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나 정치적인 독립을 얻기를 갈망하고 있었다(참조, 요6:14,15; 행5:36,37).
- (3) 둘째, 당시 로마 교회의 유대인 출신 기독교도들을 포함한 여러 기독교회 내에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자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많았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죄의 명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정치적, 육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요8:31-33).
- (4) 세째, 그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가 반(反) 로마주의 입장을 고수하는 유대교와 접촉하였으며, 따라서 유대주의의 혁명적이며 반역적인 기질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 (5) 바울은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국가관을 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선포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질서가 교회 내에 유지되도록 하였다(참조, 12:18).
- (6)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과 오늘날의 교회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본장에서 천명(闡明)한 국가관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바울이 제시한 국가관은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곧 복음의 선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마28:19,20).

3. ㉠ '권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1절)

- ㉠ (1) 흑자는 본질의 '권세'가 국가 권력의 배후에 보이지 않게 서 있는 '악한 천사들의 능력'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Oscar Cullmann).
- (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본질의 '권세'는 한 국가에서 '통치하는 권리와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3) 그 이유는 본질에 '권세'로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가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NIV, RSV, governing authorities).
- (4) 그러므로 본질의 '권세'는 바울 당시에는 본서신의 수신자들이 거주하던 로마의 통치자들을,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속해 있는 국가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 (5) 이상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이 정립해야 할 국가관은 바로 성도들이 국가의 관원(官員)들에 대해 어떠한 관제를 유지해야 하느냐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4. ㉠ 성도는 국가의 통치자들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1절)

- ㉠ (1) 바울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정당하게 권위를 행사하는 로마의 관원들에게 불순종하는 일을 피해야 함은 물론, 로마 정부를 전복(顛覆)시키려는 반(反)정부주의적인 행위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端正)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딤후 2:2-4).
- (3) 그리하여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국가의 통치자들에 대해 '굴복하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 (4) 여기서 '굴복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라스세스토>는 '순종하다'는 말보다 더 강한 의미를 지니는 말로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아래에 두는 것'을 뜻한다(참조, 고전16:16).
- (5) 이렇게 볼 때 본질의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표현은 성도가 국가의 통치자들의 권위에 기꺼이 순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한 것임에 틀림없다.

(6)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Westminster Confession)을 통하여 그와 같은 교훈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앙인들은 정부 관원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권위를 파괴할 수 없다. 교직자들도 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비록 교황이 정부 관원을 이단, 또는 위선자라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통치 행위나 사생활에 대해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

5. ㉠ '권세'의 기원(起源)은 무엇인가? (1절)

㉠ (1) 바울은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한다.

- (2) 이 말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권세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이다(참조, 행 17:24-28).
- (3)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포악한 권력자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
-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권력 행사를 허락하셨지만 권력을 남용하는 죄까지 허용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5)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나(삼상9:15-17),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공의(公義)를 저버리고 폭군의 길을 걸어갔을 때(삼상13:8-14; 15:1-9; 22:17-19) 이방 족속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역사(삼상31:1-6; 대상10:1-14)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입증해 준다.
- (6)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성도는 시민으로서 통치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울러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딤후2:1,2). 둘째, 통치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敬畏)함으로 섬기고'(시2:10,11)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야 한다(겔 45:9). 그래야만이 통치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단4:34-37).

6. ㉠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양심을 거스리는 불의한 통치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1절)

- ㉠ (1)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권세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복종은 무조건적이지요 맹목적인 것은 아니다.
- (2) 만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성도의 올바른 신앙을 거스린다면 성도들은 마땅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을 해야 한다(참조, 왕상18:1-46; 단3:13-18).
- (3) 즉 우상 숭배와 같이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의 불의한 행위를 묵인하고 그대로 굴종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거스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행위이다(잠15:9,10; 딤후3:7,8).
- (4)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통치자에 대해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로서 폭력적인 투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성도는 오히려 자신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박해를 가하는 사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참조, 삼상24:15; 마5:44).
- (5) 우리 나라는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이 된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 잃었던 국권을 되찾기까지 무려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 당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침략자 일본이 명하는 신사 참배(神社參拜)가 명백한 우상 숭배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 그 결과 그들의 대다수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며 옥(獄)에 갇히게 되었으나 오직 기도로써 그 삶을 일관하였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순교자적인 신앙의 선진(先進)들을 본받아 각자의 신앙을 일깨워야 할 것

이다(참조, 행5:29).

7. ㉠ 바울은 통치자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2-4절)

- ㉠ (1) 사도 바울은 통치자에 대해 선(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자(使者)’라고 비유적으로 말한다(4절).
- (2) 이것은 국가의 통치자가 악행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 그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참조, 12절).
- (3) 다시 말해 통치자(관원)가 범죄자에게 정당한 심판을 가할 때에, 그는 단지 하나의 사회악을 시정(是正)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公義)를 성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참조, 잠16:12;29:4).
- (4)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에는 국가의 통치자가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해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역설적인 원리도 내포하고 있다(참조, 대하19:6;느5:7).
- (5) 따라서 국가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악을 행할 때 우리 성도들은 그 통치 노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따라야 한다.
- (6) 즉 그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기 위한,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라는 목적 수행하기를 포기한 만큼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 경고를 해주어야 한다.
- (7) 비록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 통치자를 붙잡히 여기며 끊임없는 기도와 선지자적인 경고로 일깨워 주어야 한다(참조, 엡6:1).

8. ㉠ ‘관원들이 칼을 가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절)

- ㉠ (1) 본질의 ‘칼’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카이판>은 바울 당시 로마의 관원들이 차고 다녔던 칼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이 ‘칼’은 당시 관원들이 실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때 사용하였던 도구로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상징하였다.
- (3) 영어 역본 중에는(Living Bible)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질의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를 의역하여 ‘그가 너에게 형벌을 가할 것이니’(for he will have you punished)로 번역하였다.
- (4) 여기서 ‘형벌’은 ‘금고’(禁錮), ‘징역’, ‘신체적인 압박’ 뿐만 아니라 ‘사형’(死刑)까지 포함한다.
- (5)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칼’이란 단어가 흔히 형벌 집행의 기구로서 사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참조, 마26:52;눅21:24;행12:2;16:27;계13:10).
- (6) 이상에서 볼 때 관원, 곧 통치자들에게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정당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7) 즉 그 권한은 오직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하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이다. 그러므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권위자들은 자만하지 말아야 하며, 성도들도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범죄자가 올바르게 행해지도록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9. ㉠ 성도가 국가의 법에 순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바울은 성도가 국가의 법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2) 첫째는 사람이 법에 순응하지 않으면 ‘진노’(震, 오르계)의 위협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 호소는 개인적인 유익, 즉 자기 보존의 본능에 근거를 두고 있다.
- (3) 둘째는 ‘양심을 인하여’ 국가의 법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양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쉬네이데시스>는 ‘사람이 나쁜 일을 했을 때 받는 고통’이라는 일반적

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과 국가가 모두 그 궁극적인 바탕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고 있다는, 책임성에 근거한 지각’이란 뜻을 갖는다(Christian Maurer).

- (4) 성도는 이상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후자(後者), 곧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인하여 국가의 법에 순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 (5) 또한 사도 베드로도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制度)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벧전2:13)라고 말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였다.
- (6) 그러나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법에 의한 형벌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세운 제도가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경우이다(참조, 엠6:12).

10. ㉠ 성도는 국가에 지켜야 할 의무(義務)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6, 7절)

- ㉠ (1) 성도는 국가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2) 이 의무는 사람 및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과 조세를 가리키는 ‘공세’(헬, 포로스)와 상품에 대해 징수하는 ‘국세’(헬, 테로스)를 바치는 일 등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 영역 안에서 국민이 지켜야 할 모든 사항들을 포함한다.
- (3) 특히 7절은 이 의무 가운데에 국가의 관원들에 대해 경의의 태도를 가지는 일도 들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 (4)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세상 국가의 법을 무시하며 현실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법률과 관리들에 대한 실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22:21)하신 예수의 말씀과 같이 신앙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으로서의 현실 생활에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참조, 출22:28; 전8:2; 행23:5).

11. ㉠ 성도가 국가에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성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운영의 재원(財源)이 되는 세금을 바쳐야 한다.
- (2) 왜냐하면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정부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군’이기 때문이다(참조, 1절).
- (3) 여기서 ‘일군’에 해당하는 헬라어 <레이투르고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형태의 봉사를 제공하는 ‘사역자’(使役者)를 뜻한다(KJV, RSV, ministers).
- (4) 이러한 사실은 관원의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로써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관원의 직분을 무시하거나 과소 평가하여 납세와 같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 사항들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마22:18-21).

12. ㉠ 세금이 거두어지게 되는 목적과 그것이 쓰이는 용도는 무엇인가? (6절)

- ㉠ (1) 관원들은 국민으로부터 받는 모든 세금이 국가 재산이며, 결코 그들의 사적(私的)인 사치와 향락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John Calvin).
- (2) 그렇다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4절에 암시된 바와 같이 ‘선’을 이루기 위함이다.
- (3) 그러나 예수나 바울 당시의 세리들과 같이 많은 징수관들은 흔히 제도를 악용하여 착취를 일삼는 경우가 많다(참조, 마9:10,11; 눅3:12,13; 19:2). 이러한 행위는 나라를 파멸시키는 반역 행위이다(잠29:4).
- (4) 따라서 오늘날 법을 시행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관원들은 국민으로부터 거두어 들인 재산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국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한다(참조, 겔45:9).

13. ㉠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7절)

- Ⓐ (1) '두려움'(헬, 포보스)이란 말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경외(敬畏)의 두려움'을 가리킨다(참조, 3:18;행9:31;고후7:1;엡5:21).
- (2) 그러나 본절에서 이 말은 '관원들'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다(3,6절).
- (3)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본절의 '두려워하다'와 '존경하다'는 국가의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사용된 말임을 알 수 있다.
- (4) 즉 이 귀절의 '두려워함'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깊은 공경심'을 그리고 '존경'(헬, 티멘)은 '일반적으로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야 할 경의'를 의미한다(Liddon).
- (5) 그러나 그 '두려움'과 '존경'은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 올바른 권력 행사를 할 때에만 들릴 의무가 있으며 만약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남용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만을 따라야 한다.

14. Ⓒ 8-10절의 중심 내용을 말하라.

- Ⓐ (1) 8-10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 (2)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최고의 요구로서 사랑이 강조된 것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성도들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벧전2:24).
- (3) 즉 성도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에 빚진 자들'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마22:37-40).

15. Ⓒ 8절에 언급된 '사랑'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 Ⓐ (1) 바울은 본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한다.
- (2) 여기서의 '사랑'은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 피차 나타내어야 할 사랑을 가리키고 있음에 틀림없다(참조, 12:9,10).
- (3) 더 나아가 본절의 '사랑'은 성도들 상호 관계 뿐만 아니라 '이웃'이라는 보편적인 대상에게까지 적용되는 사랑이다(참조, 갈6:10;살전3:12).
- (4) 성도들은 이와 같이 포괄적이며 적극적인 '사랑'을 삶의 가장 귀중한 원리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이다(요13:34).

16. Ⓒ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8절)

- Ⓐ (1) 혹자는 이 말씀이 경제적인 실천 사항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빌리는 일을 죄악시하고, 실제 어떤 빛도 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Hudson Taylor, Charles Spurgeon).
- (2)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성경은 결코 돈 빌리는 일을 금하고 있지 않다. 성경이 금하는 것은 고금리를 매겨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과, 빚을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는 일이다(출22:25-27;느5:1-11;시37:21).
- (3) 또한 이와 관련하여 마25:27과 눅19:23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 (4)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본절의 전체적인 내용을 염두에 둘 때 이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대강령(大綱領)을 강조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참조, 마7:12).
- (5)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랑'의 본질에 관한 한 단면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은 그 본연의 성질상 다 갚아질 수 없는 하나의 의무라는 것이다.

- (6) 다시 말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성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어느 순간에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이와 달리 '이제 내가 사랑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Philippi).
- (7) 더우기 본질은 성도가 베풀 사랑이 자기의 의(義)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 것(참조, 요일4:10)임을 강조함으로써 겸손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귀절이다.

17. ㉠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 (1) 이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는 10절의 말씀과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
- (2) 즉 이 말씀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참조, 8:4).
- (3) 이러한 사실은 사랑이 순종을 복돋워 주며,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갈6:2의 말씀을 상기케 한다.
- (4)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 율법을 폐지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바울 사도도 율법이 곧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 (5)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지만(요13:34), 동시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다(마5:17).
- (6)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과소 평가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참조, 7:12; 시19:7; 마5:18).
- (7)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커다란 짐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본질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한다(요일4:8).

18. ㉠ 바울은 9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알고자 어떤 계명들을 실례로 들고 있는가?

- ㉠ (1) 전절(前節)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한 바울은 이제 본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그래서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연히 인간 관계에 관련되는 십계명의 일부분을 소개하고 있다.
- (3)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표면화되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바울은 먼저 가족의 신성함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 다음 사람의 생명은 불가침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또한 재산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계명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핵심 사상, 즉 우리의 욕망이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참조, 출20:13-17).
- (5) 한편 이상에서 언급된 바, 금지 형식을 띠는 계명들은 인간 관계에 적용되는 사랑의 영역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영역에 속한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 (6)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위에 언급된 율법의 요구들과 그 밖의 요구 사항들이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에 다 들어 있다는 바울 자신의 확인을 볼 때 부인(否認)된다.

19. ㉠ 9절에 언급된 계명들을 포함한 십계명의 내용이 대부분 금지 형식을 취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 Ⓐ (1) 십계명은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되는 바, 모든 율법의 요약(要約)이다.
 (2) 그런데 이 십계명 중에서 8계명이 부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른 두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와 '네 부모를 공경하라'이다. 그러나 심지어 이 두 계명 가운데 전자(前者)도 부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즉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그 뒤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부연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참조, 출20:3-17; 신 5:7-21).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 속에 있는 본성적인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다.
 (4) 즉 하나님의 율법은 간음, 살인, 도덕질, 탐내는 것 등을 죄로 규정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죄를 금(禁)하고 있다.
 (5) 한편 오늘날 윤리 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는 부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긍정적인 형태로 인간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6)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죄악을 은폐하거나 합리화하려는 독소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를 경계해야 한다(참조, 잠 14:12). 왜냐하면 복음은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이다(참조, 딤후1:15).

20. ⓐ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9절)

- Ⓐ (1) 이 말씀은 레19:18의 인용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율법의 대강령이다(마22:39).
 (2)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이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실천 명령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3)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웃', 곧 '나의 이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4)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눅10:25-37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다.
 (5) 그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불행을 당한 사람을 피해 갔으나, 사마리아 사람은 불행에 당한 사람의 훌륭한 이웃이 되어 주었다.
 (6) 우리는 여기서 나의 '이웃'은 바로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임을 알 수 있다.
 (7) 오늘날 우리는 '이웃'이란 말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혹은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은 '이웃'으로 여기고, 반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나와 관계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이던 아니면 어떠한 처지에 있던 일단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인 것이다(참조, 눅10:37).

21. ⓐ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9절)

- Ⓐ (1)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막12:30,31).
 (2)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본질의 '네 자신과 같이'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다.
 (3)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이기주의(利己主義)나 자기 중심주의(ego-tism)와 혼동하거나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기주의적이다. 그때 우리는 자신에게만 너무 집착

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게 된다(참조, 겔34:18; 합2:6; 슥7:6; 빌2:21; 딤후3:2).

- (4)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거나 특히 자신의 인격(人格)을 경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남을 더 좋게 평가하거나 혹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한다 하더라도(5:7; 요15:13),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 (5) 만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학대(虐待)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사랑해야 한다(참조, 엡5:28-30).

22.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을 간략하게 설명하라(11-14절).

- ㉠** (1)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창1:1-27)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마25:32; 행17:31; 계16:7).
- (2)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진다(요5:22,30).
- (3) 그때는 만물의 마지막 때인데 성도는 그때를 예비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11절; 마25:1-13).
- (4)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와 같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대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 (5) 끝으로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곧 성장하는 신앙 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14절).

23. **㉠** 11절에 기술된 바울의 종말론(終末論)을 설명하라.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장차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마24:1-51; 계3:11).
- (2) 이제 바울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신자는 마음을 놓고 열락(悅樂)에 빠져 잠자거나, 또는 주께서 오실 시기를 늦추고 계신다거나 혹은 영원히 재림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 (3) 그러나 바울은 주께서 나타나시는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에 관해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이에 관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마24:36).
- (4)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매일매일 한 순간 한 순간이 지나갈수록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그만큼 더 가까이가다오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참조, 엡5:14-17).
- (5) 따라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영적으로 자각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딤후2:11-14).

24. **㉠** '밤'과 '낮' 그리고 '어두움'과 '빛'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가? (12절)

- ㉠** (1) '밤'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선행하는 이 세상 역사의 전기간(全期間)으로서 무지와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 세대'를(12:2; 눅16:8; 고전1:20; 2:6-8; 고후4:4; 갈1:4; 딤후4:10), '낮'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장차 올 세대'를 상징한다(2:16; 마10:15; 12:26; 눅17:24,30; 요6:39; 14:48; 행17:31; 고전1:8; 5:5; 엡4:30; 빌1:6,10; 살전5:2; 살후2:2; 벧후3:7,10; 요일4:17).
- (2) 그리고 '어두움'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최악 가운데 있는 불신자의 도덕적인 상태를(고전4:5; 6:14; 엡5:8,11; 골1:13; 살전5:4,5), '빛'은 구원받은 신자의 선한 생활을 상징한다

(살전5:5).

- (3) 그런데 이상과 같은 비유는 성도가 이 세대에서 빛의 자녀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참조, 열6:12).
- (4) 즉 성도는 종말적인 순간으로서의 '낮'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낮에 속하여(살전5:8)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딤펴전6:11,12).
- (5) 그렇다면 성도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6) 어두움의 일, 곧 육신의 일을 벗어나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全身甲冑)로 무장해야 한다(고후6:7; 열6:11,12-17).

25. ㉠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 태도는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13절)

- ㉠ (1)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생활 태도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특징적인 대귀로 표현하고 있다.
- (2) 첫번째는 그들의 무절제한 행위, 곧 방탕(放蕩)과 술 취함을 강조했다. 그 다음은 성적(性的)인 불의, 곧 음란과 호색(好色)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쟁투와 시기를 기술하였다.
 - (3)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육신의 일'(10절) 가운데 첫번째 것은 나머지 둘의 발판이 되며, 마지막 것은 앞에 열거된 두 가지 죄악들의 결과이다(참조, 갈5:19-21).
 - (4)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 (5) 첫째로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것이다(약 1:15). 둘째로 죄는 인간의 영혼에 안정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의 흠을 잡음으로써 자신의 육적인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참조, 창3:12,13; 삼상15:15,21).

26. ㉠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14절)

- ㉠ (1) 이 비유적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의미이다(참조, 갈3:27).
- (2)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 있어서 그와 연합된다는 의미도 된다.
 - (3)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 그와 연합된 상태에 있게 된다(참조, 요15:4-10).
 - (4) 이상에서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성도가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알 수 있다(참조, 고후13:5).
 - (5)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한다. 그것은 스스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뜻에 대하여 산 자로서 판단받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6:10,11).
 - (6) 성도들은 일상 생활에 있어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만일 자신의 삶 속에 아직도 근심과 걱정, 불안과 실망 그리고 시기와 다툼 등이 계속 자리잡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법이다(참조, 갈5:22-24).

제 14 장 성도의 교회 생활

단락구분 1-4 음식 문제로 인해 서로 비판하지 말라 / 5-6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인해 서로 비판하지 말라 / 7-9 성도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 10-12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성도 / 13-15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라 / 19-23 믿음으로 덕을 세우라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4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씻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5 혹은 이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10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3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도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5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16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21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2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1. ㉠ 로마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를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들의 문제와 함께 간략하게 설명하라.

㉠ (1)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내적인 분열이다.

(2)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내란이나 가족 싸움이 종종 일어났으며(참조, 사20:29-48; 왕상12:16-24; 왕하10:1-24), 신약 시대 바울이 세운 대부분의 교회도 분열을 일으

켰다.

- (3) 즉 고린도 교인들은 인간 지도자로 인해 분열을 일으켰으며, 서로 고소를 하였다(고전 1:10-13;6:1-8).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서로 다투었다(갈1:6,7;5:15). 에베소와 콜로새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단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엡4:1-3;골2:1,2). 빌립보 교회에서는 두 여인이 서로 반목(反目)한 결과 교회가 분열되었다(빌4:1-3).
- (4) 그런데 본서신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도 특이한 식사법과 절기 문제로 인해 분열되어 있었다. 즉 그들 가운데 어떤 교인들은 고기를 먹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채소만을 먹었다(21절). 또한 다른 어떤 교인들은 유대의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였다(5,6절). 만일 이들 각 교인들이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지키는 것으로 그쳤다면 문제는 없었을 것이지만 이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내세우기에만 급급했으므로 마침내 로마 교회에 분열의 싹이 틔운 것이다(1,3,4,10,13절).
- (5)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성경에 분명히 정의(定義)되어 있지 않은 문제일수록 그 문제를 수습하기가 어렵다.
- (6)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장을 통하여 가치 판단의 기준이 불명료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권고를 제시함으로써 뜻을 같이하지 않는 교인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권고란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는 신앙 선언이다(23절).

2. ㉔ 로마 교회에 대두된 음식 문제에 관해 설명하라.

- ㉔ (1) 본장에는 음식 문제로 인해 서로 견해를 달리 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분열된 모습이 나타나 있다.
- (2) 즉 그들 중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채소만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였다(2, 21절). 그런데 그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모세 율법 중 성결 법전(레11-16장)에 나오는 식생활의 규례(참조, 레11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별하여 정결한 음식만을 먹게 되어 있다.
- (3) 그러나 율법이 규정한 정결한 음식 가운데에는 채소들 외에 고기류도 포함되어 있었다(참조, 창9:3; 레11:3,21,22). 더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다(행10:12-16; 고전8:8). 즉 음식 자체는 속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14절).
- (4) 따라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고기는 채소든 무엇이든지 먹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채소만 먹는 성도들을 업신여겼다(1,3절).
- (5) 바울은 이상과 같이 음식 문제로 인해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화평을 심어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6) 즉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다만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간직하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말 것이며, 반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실족(失足)하지 않기 위해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13,20-22절).
- (7) 바울 당시 로마 교회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 내에도 성도들간에 무어라 결정하기가 어려운 소소(小小)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성도들은 결코 자기 중심으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자기의 신앙 양심을 스스로 지키며 무엇보다도 교회의 화목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참조, 시13:1; 요13:34,35).

3. **㉠**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1절)

- ㉠** (1) 일반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참조:8:26).
- (2) 그러나 본질의 경우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엇을 먹으며, 언제 예배드려야 할 것인지에 관한 율법적 사항들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느끼는 성숙치 못한 성도들을 가리킨다(참조,2절).
- (3) 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자유와 평안을 얻지 못한다(참조,갈5:4).
- (4) 뿐만 아니라 이들은 스스로는 자기 힘든 율법에 의거(依據)하여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定罪)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3절).
- (5) 마찬가지로 우리들 중에는 자신이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어떤 율법적인 사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혹은 자기 자신이 율법의 규칙들을 지키지 못하므로 인해 몹시 고민하거나 좌절한다면 그는 믿음이 연약한 자임에 틀림없다.
- (6)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나 아직까지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한다(엡3:17-19;히5:11-6:2).

4. **㉠**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1-3절)

- ㉠** (1) 바울은 지나치게 세심한 신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완전한 자유를 지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3).
- (2)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어서 이러한 신자들은 교리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음식물을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관한 사소한 문제로 인해 고민하였다(참조,20,23절).
- (3) 이같이 연약한 요인을 지닌 신자들에 대해 믿음이 강한 신자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 (4)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먼저 '받아들이라'고 권고함으로써 답하고 있다(1절).
- (5) 그런데 여기서 '받아들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스람바노>는 '충심(衷心)으로 환영한다'는 의미이다(RSV, Living Bible, welcome).
- (6) 이와 같은 '받아들이'는 연약한 자를 비판하려는 성향이 있는 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신자는 연약한 자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3절). 비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참조,마7:1-5)
- (7) 모든 교회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강한 성도들이 있다. 강한 성도들은 영적인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다 이러한 정황(情況)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는 연약한 성도를 경멸하거나 구별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약4:11,12).

5. **㉠** 음식 문제에 관한 바울의 견해를 말하라(2절).

- ㉠** (1) 바울은 딤후전4:34에서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한다.
- (2) 이것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음식 문제에 관한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임을 보여 준다.

- (3) 그러나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 중 일부 사람들은 현대의 채식주의자나 금육주의자들과 같이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채소로 제한하였다.
- (4) 그들이 음식물에 대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 데에는 의도적으로 부정(不淨)한 음식을 피한다는 종교적인 이유(참조,레11장), 고기를 먹지 않으면 보다 건강하게 된다는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살아 있는 것을 먹기를 꺼려 하는 의식적(儀式的)인 이유 등이 있다.
- (5) 위에서 볼때 바울과 그밖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음식 문제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6) 그런데 바울은 이 같은 견해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어느 쪽도 편들지 아니하였다(참조,3절). 비록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취했지만, 이러한 문제는 교리화하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러한 작은 문제로 인해 성도들이 서로 불화(不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참조,19절). 이와 같이 성도들의 화목을 도모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본이다(참조,엡2:16;골1:20;히2:17).

6. **㉠** 믿음이 약한 성도가 믿음이 강한 성도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3, 4절)

- ㉠** (1) 믿음이 약한 성도는 믿음이 강한 성도를 시기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3절).
- (2)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역설(力說)하기 위해 하인과 그의 주인과의 관계를 설명한다(4절).
- (3) 즉 일상 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한 하인의 행동에 간섭하려 하는 것이 부적당하듯이 교회 내에서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다.
- (4)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판단하는 행위는 곧 그를 세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판단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 (5) 흔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어떤 성도들은 시기하거나 비판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주는 것과 같다.
- (6) 그러므로 누구든지 형제를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주(主)를 위하여 일하는데 바빠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의 생활을 평가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참조,벧전2:1-5).

7. **㉠** 5, 6절에 기록된 '날' (日)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 (1) 이 귀절들에서 '날'은 유대인들이 성일(聖日)로서 지키던 월삭과 같은 축제나,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특별한 '절기'(節期)들을 가리킨다(참조,출23:16;레23:5-8,34-44;민10:10;28:9-15;삼상20:5,6;느8:12).
- (2) 이와 같이 구약 시대부터 규례로서 준수되어 온 '날'은 본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예배의 날'로서 신약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성격을 지닌다(요7:37-39;골2:17).
- (3) 그러나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상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절기'의 본래적인 정신을 망각하고 절기 자체만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적인 경향으로 흘렀다(참조,갈4:10,11).
- (4) 즉 그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고후3:3-18)를 섬기기 보다는 형식화된 행사의 날로서 절기를 준수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 (5) 이러한 경향은 당시 로마 교회를 포함하여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내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율법적인 요소를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6) 그것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성도들이 '날'과 '달'과 '절기' 그리고 '할례' 등과 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고수한 나머지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강력히 그들을 권면한다(갈5:2-12).
- (7) 반면 본서신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주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는 경우에는 그들의 행위로 인해 교회의 덕과 화평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고한다(6:16-19절).
- (8)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성도라면 그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롬 8:28)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8. **㉠**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는 자'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5, 6절)

- ㉠** (1) 이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다만 채소를 음식물로 삼는 자처럼(12절), '절기'와 같은 유대인의 특별한 성일(聖日)을 굳게 지키려는 성도를 가리킨다(참조, **㉠** 3).
- (2) 이러한 성도는 모든 절기와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심으로써 '의문'(儀文)이 폐지되고, 그 대신 영적인 예배(12:1)를 드리므로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고후3:4-6)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이다(1절)
- (3) 반면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자'란 은혜의 언약에 따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자처럼(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갈2:16)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킨다.
- (4) 이상에서 언급한 성도의 모습은 오늘날의 성도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종 집회에 참석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과 참자유 안에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이나 초보적인 교리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다.
- (5)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다. 만일 자기 자신이 아직 전자(前者)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는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각성해야 할 것이다(참조, 히5:2-14).

9. **㉠**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5, 6절)

- ㉠** (1) 이 말씀은 먹거나 마시는 일 그리고 절기와 같은 각종의 교회 행사 등과 같이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행해야 할 문제에 대해 성도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를 교훈한 것이다.
- (2) 즉 성도는 어떤 날을 특별히 거룩히 지키거나, 교회에서 여러 행사를 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하듯 행하라는 것이다(참조, 갈1:10; 엡6:7; 골3:23).
- (3)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 행할 때 자기의 일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려 하거나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행동은 이미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을 대가로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 보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겠다(참조, 마6:1-4).

10. **㉠** 바울은 7, 8절에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 (1)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인(主人)이 되시기 때문이다(참조, 갈2:20).
- (2) 둘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다(8절).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主)로 인정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신자의 생활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함축(含蓄)하고 있다.

- (3) 그것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의 부활하심과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다(참조, 고전15:54; 고후5:4; 빌1:23).
- (4) 위에서 볼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종내는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후4:14; 살전4:16). 즉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종착역은 아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든지 살든지 그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나의 여부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관건(關鍵)임을 인식해야 한다(참조, 요6:68,69).

11. ㉠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主)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첫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속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산 자', 곧 살아 있는 성도들의 주가 되신다(참조, 요3:16).
- (2) 둘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곧 죽은 성도들의 주가 되신다(6:4,5).
- (3) 성도들은 이와 같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부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고전16:51,52).

12. ㉠ 성도들이 서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10, 11절)

- ㉠ (1) 사도 바울은 '양심의 문제'로 인해 서로 견해를 달리 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면을 하는데 첫째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 다음으로는 강한 자들에게이다.
- (2) 전자(前者)는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후자(後者)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심지어는 경멸하기까지 하는 경향이 있다(3절).
- (3) 이러한 양측의 태도는 사실상 서로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들은 모두 온당치 못한 판단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 (4) 이제 사도 바울은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경고한다. 그 이유는 장래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0절).
- (5) 즉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난한 과실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 상급을 얻지 못하게 된다(11절; 사4:23; 49:18).
- (6) 여기서 '심판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베마>인데 이는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서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장소에 있는 심판은 경기 도중에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즉시로 그들의 자격을 박탈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며 승리한 자에게는 상을 주었다(참조, 고전9:24-27).
- (7)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자를 반칙 선수로 간주하시며 그에게는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賞)을 위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음질해야 할 것이다(빌3:14).

13. ㉠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12절)

- ㉠ (1)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생활에 힘써야 할 것이다.
- (2)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늘 점검해 보고 진실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참조, 애3:40; 고후3:5)
- (3) 이와 같은 자기 성찰(自己省察)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며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

(定罪)하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참조,8:13).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장래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럽지 않게 만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눅12:41-48; 히13:17; 요일2:28).

14. **㉠** 바울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 특별히 무엇을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는가? (13절)

- ㉠** (1) 바울은 앞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연약한 형제들을 업신여기거나 경멸하지 말라고 경계한 바 있다(3,10절).
- (2) 이제 본절에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연약한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주의시키고 있다.
- (3) 여기서 '부딪힐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프로스콤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이 부딪쳐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KJV, RSV, stumbling block). 그리고 '거칠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칸달론>은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마련된 장애물을 뜻한다(NIV, obstacle).
- (4)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바울이 본절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행동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5) 즉 바울은 다른 형제들의 신앙 성장에 방해되거나 그를 넘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피해야 한다고 훈계하고 있다.
- (6) 이와 같은 바울의 훈계는 우리들의 어떤 행동이 다른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근심되게 할 수도 있으며 파멸시킬 수조차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한다면 내 형제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이다(참조,히3:13).

15. **㉠**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4절)

- ㉠** (1) 이 말씀은 특별히 음식물에 관한 바울의 입장을 알려 주고 있다.
- (2) 즉 바울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 (3) 그런데 바울은 본절에서 뿐만 아니라 딤후전4:4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확언함으로써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4) 우리는 바울의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위에 언급된 바울의 견해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조에 관한 말씀(창1:31)에 의거(依據)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의 그 같은 견해가 예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 (6) 즉 막7:15-23에서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는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 (7)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어떤 음식물을 깨끗치 않다고 그의 마음에 확신한다면(참조,레11장) 그에게 있어서 그 음식물은 깨끗치 않은 것이 된다('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8) 예수와 함께 지냈었고 직접 그의 가르침도 들었던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 얼마 동안 이 문제로 인해 고민한 사실(행10:9-15)은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한 실례가 된다.

16. ㉠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은 제한된 음식을 먹는 성도들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15, 16절)

- ㉠ (1) 음식을 먹는 일과 같은 사소한 문제로 다른 성도를 근심하게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할 사랑의 행위가 아니다.
- (2)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나에게만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임하였다(참조, 3, 4절). 즉 하나님께서는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들도 부르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8절; 사63:16).
- (3)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형제들도 또한 주(主)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6절).
- (4) 따라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믿고(막7:19)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은 제한된 음식을 먹는 다른 성도들 앞에서 이 같은 자유를 과시해서는 안 된다(고전8:8). 만일 이러한 자유가 과시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분노와 반감을 사게 된다면, 그때 이러한 자유는 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5)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남용된 자유는 교회 내에 분열과 불화만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 (6) 오늘날 우리는 교회 내에서 매우 사소한 문제로 인해 성도들이 갈라서며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본당의 어느 곳에 피아노를 둘 것인가, 그리고 주일 날에 식사 대접은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작은 문제를 놓고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참조, 눅17:3; 고전8:9; 10:12).

17. ㉠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우선적인 일들은 무엇인가? (17, 18절)

- ㉠ (1)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다(살전2:12). 그러므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제일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생(永生)과 구원에 관련되는 영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 (2)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도가 진정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영적(靈的)인 실체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 들고 있다.
- (3) 그것들은 '의'(義)와 '평강'(平康)과 '희락'(喜樂)으로서 모두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다(참조, 갈5:22, 23).
- (4) 여기서 '의'(헬, 디카이오쉬네)는 죄 사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올바른 행동을 가리키며(참조, 6:13, 16, 18), '평강'(헬, 에이레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상태이며(5:1; 빌4:7) 그리고 '희락'(헬, 카라)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신령한 기쁨이다(5:2).
- (5) 이와 같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의의 행동으로 덧입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18절).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자신을 성령의 뜻에 맡기고 거룩한 생활에 마음을 두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갈5:16).

18. ㉠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9-21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교회가 화평하며, 당신이 택하신 성도들이 서로 덕을 세우고 화목하기를 원하신다(참조, 15:5-7; 요13:34, 35).

- (2)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성도들은 각기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각성해야 한다(행20:35;벘전4:10).
- (3) 먼저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연약한 형제를 사랑과 인내의 태도로 대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갈6:2;엡5:2).
- (4) 반면 믿음이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는 자기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본받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에 참여하여야 한다(참조,엡4:12).
- (5)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형제들을 도와 주기는 커녕 도리어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 교리에 막 들어선 자들이 '스스로 선 줄로 생각하는'(고전10:12) 모습을 보게 된다. 성경은 이러한 행위들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행위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8:12;잠21:4).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일에든지 다름이나 허영(虛榮)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빌2:3,4).

19. **㉠** '만물이 다 정(淨)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20절)

- ㉠** (1) 모든 음식물은 근본적으로 깨끗한 것이다(막7:19). 따라서 사람이 건강에 좋은 것을 무엇이든지 찾아 먹는 그 자체는 그릇된 것이 아니다.
- (2) 만일 그릇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음식을 먹는 습관이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사람을 실족(失足)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 있다.
- (3)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먹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거리끼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그릇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 (4) 나아가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고기나 포도주를 먹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이 원리를 확대시켜 남에게 거리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삼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21절).
- (5) 바울의 이 같은 권고와 유사하게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금(禁)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성도들은 이러한 가르침이 성경적인 것임을 깨닫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여 교회와 이웃에게 덕을 끼쳐야 할 것이다(13:13;잠23:29-31;고전3:16, 17;엡5:18).

20. **㉠**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2절)

- ㉠** (1)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믿음의 근본이 되는 진리들과는 별도로 의견을 달리 해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 (2) 후자(後者)의 경우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은 각기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 (3) 그러나 이러한 판단 기준이 다른 성도들에게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설령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성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 (4) 이와 관련하여 본질 말씀은 양심의 문제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여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참조,벘전5:3).

21. **㉠** 바울은 양심의 문제를 실천적인 측면에 어떻게 결부시키고 있는가? (22, 23절)

- ㉠** (1)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믿는 대로 행동하며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22절).

- (2) 만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남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양심에 거스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참조,10절).
- (3) 이와 같은 사실은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실천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교훈한다(23절;약4:17).

연구자료

음식물에 관한 기독교의 견해

구약 성경에는 음식물과 관련된 각종 규제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고기를 그 피와 함께 먹는 것은 모세의 율법(레19:26;신12:16, 23-25;15:23)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창9:4)에 의해서 금지되었으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금지 사항으로 결정되었다(행15:20, 29). 그리고 부분적으로나마 이스라엘 족장 시대부터 나타났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제(창7:2, 8)는 모세 시대에 와서 아주 세세하게 율법으로 규정되었다(레11장;신14:3-20). 그러기에 이스라엘 인들은 천재 지변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양식이 필멸할 때(참조, 겔4:9-17;호9:3) 외에는 이 같은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규제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규제를 지켜 부정한 짐승 및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가? 이제 이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 보도록 하자.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5:17)께서는 친히 모든 음식물을 깨끗다 선언함으로써 음식물에 관한 율법적 금지 규제를 폐하셨다(막7:19). 왜냐하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히9:10)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들은 더 이상 음식물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 점은 사도 베드로가 보았던 부정한 짐승의 환상(행10:9-16)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시사되고 있는 바이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나와 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딤후4:4).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히13:9). 그런데 이상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조차 피를 멀리하라고 금한 근본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는만큼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데 있다(레17:11). 둘째, 음식물을 먹되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먹거나 자신이 음식물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게 되는 일은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13-23절).

제15장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

단락구분 1 악한 형제를 돌보아야 할 강한 성도 / 2 성도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생명을 해야 한다 / 3-7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포용하라 / 8-13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 14-21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역 / 22-24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 25-29 유대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의 구제 / 30-33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

1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니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8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9 이방인으로 그 공활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노라

함과 같으니라

10 또 가로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4 내 형제들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15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 직하게 하려 하시니라

17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19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20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불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2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24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 줌을 바라임이라

25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

램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열마를 동정하였음이라

27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명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29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3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 직하게 하고

32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3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제실지어다 아멘

1. ㉠ 본장에는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가?

- ㉠ (1) 12장부터 거론된 '성도의 생활'은 본장(本章)까지 계속 언급되는 주제이다.
 (2) 이제 본장은 전장(前章)에서 언급되었던 '성도의 교회 생활'에 관해 계속 언급함으로써 그 서두를 시작한다.
 (3) 즉 바울은 '양심의 문제'로 인해 서로 불화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돕고 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한다(1-7절).
 (4) 그 다음 바울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일을 회고한 후(8-21절) 앞으로 복음 사역을 위하여 로마 교회를 방문하리라는 계획과 아울러 이를 위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힘써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22-32절).
 (5) 우리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지닌 본장을 통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해산(解産)하는 수고'(갈4:19)를 아끼지 않은 바울의 뜨거운 선교열(宣敎熱)을 느낄 수 있다(참조, 행20:24).

2. ㉠ 바울은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믿음이 '강한 자'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1절)

- ㉠ (1)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교회의 화평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참조, 14:1).
 (2) 왜냐하면 그들이 단지 그들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으며, 약한 자는 강한 자를 계속 비판하게 되고 그들을 원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14:15,16).
 (3) 그러나 강한 자가 사랑으로 자신의 손을 먼저 약한 자에게 내민다면 이것이 둘 사이를 잇는 교량이 될 것이다.
 (4) 이러한 사실은 먼저 행동으로 나설 책임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음을 말해 준다.
 (5) 그러므로 바울은 본절에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말한다. 여기서 '마땅히'(헬, 오페일로멘)라는 말은 이러한 사항이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나타내며(KJV, RSV, ought), '담당하고'(헬, 바스타제인)는 짐 따위를 '진다'는 뜻이다(KJV, RSV, bear).
 (6) 따라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가진 성도는 이기적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추구한다. 그리고 자신보다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러한 자가 곧 '믿음이 강한 자'이며 교회의 화평을 가져올 자이다(참조, 갈6:2).

3. ㉠ 믿음이 강한 성도가 연약한 다른 형제를 도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1절)

- ㉠ (1) 믿음이 강한 성도는 연약한 형제의 짐을 함께 져야 한다.
 (2) 그러나 그 일을 마지못해 한다거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연약한 형제보다도 우월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 (3) 또한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도우려 한다면 그것도 그릇된 것이다.
- (4) 예를 들어 강한 형제가 연약한 형제 앞에서 공공연히 자기의 자유를 만끽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자기만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자기를 과시하는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슬프게 하고 몹시 화나게 할 뿐이다.
- (5) 그러므로 강한 성도가 연약한 형제의 짐을 담당할 때는 사랑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고전16:14;골3:14).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열쇠이다(참조, 13:8,10). 더우기 믿음이 강한 성도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듯이 연약한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4. **㉠**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2절).

- ㉠** (1)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의 기분을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시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참조, 갈1:10;엡6:6;살전2:4).
- (2) 또한 이 말씀은 '연약하게 남이 원하는 바를 맹목적(盲目的)으로 좇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Hodge).
- (3) 오히려 이 말씀은 타인의 영적인 각성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에든지 자기를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4) 성도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낸 바울 자신의 원칙을 생각해 해준다(고전9:19-23).
- (5) 이상에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접촉하는 모든 이웃에게도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다(참조, 빌1:27).

5. **㉠** 성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성도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헌신하기를 즐거워해야 한다.
- (2)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몸소 본을 보여 주셨기 때문이다.
- (3) 즉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요8:29). 비록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불러일으켜 자신에게 죽음이 초래되리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시69:9;요2:17) 주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 (4)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뜨거운 뜻을 품고 그것을 실행하다 보면 사람들의 비난과 박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형제와 동포에게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다고 경고할 때마다 심한 비난과 모욕과 핍박을 받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참조, 왕상19:2;22:27;대하16:10;24:21;렘15:15;20:2;32:2;단3:20;6:16).
- (5) 그러나 성도들은 비록 남의 오해와 중상(中傷)을 받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다 하더라도 갈보리 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에 비교될 수는 없을 것이다(참조, 엡5:2;벧전3:18).

6. **㉠**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무엇을 가리키며 그것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4-6절)

- ㉠** (1)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리킨다.

- (2) 성경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래의 모든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다(4절; 딤후 3:16).
- (3)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안위(安慰)를 얻게 하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커다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4절).
- (4) 그 외에도 성경은 그것을 듣고 보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마음 한뜻을 갖게 한다(5절).
- (5) 이와 같이 한마음 한뜻을 갖게 되어 굳게 단합된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6절).
- (6) 한편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기갈될 수밖에 없다(암8:11).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그로 인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얻으며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신8:3; 욥23:12; 렘15:16; 벧전2:2).

7. **㉠** 성도들이 서로 화합(和合)해야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7절)

- ㉠** (1) 성도들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서로 화합해야 한다.
- (2) 이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또한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참조, 1,2절).
- (3)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화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 (4)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 많은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사실에 그 근본적인 동기를 두고 있다(참조, 요17:4-11).
- (5) 성도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뜻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비록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얼마간의 손해가 되더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화합하여 일치된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 (6)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다름 만한 일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이웃에게 보이기 위하여 인내하고 관용하며 절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창13:8).

8. **㉠**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隨從者)'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며, 또 그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8, 9절)

- ㉠** (1) 그 말은 예수께서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나셨고 또 친히 그들과 같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계약 백성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참조, 마1:1-16; 눅2:21-24).
- (2)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종이 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3) 첫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참조, 창22:17,18)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견지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다(참조, 9:4,5). 즉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을 주어 그 자손 가운데서 결국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케 하신 것이다(8절; 갈3:16).
- (4)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열 두 제자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地上事役)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마10:5,6; 15:24; 눅22:27).
- (5) 둘째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9절; 창12:3).
- (6)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의 중풍병들린 하인과 가나안

여인의 귀신들린 딸을 고쳐 주신 일(마8:5-13; 15:21-28) 그리고 예수의 제자 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일(참조, 요4:22)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7) 그런데 이러한 예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이방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시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배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참조, 갈3:14).

9. **Q** 9-12절 내용의 요약적 배경과 그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A (1) 9-12절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事役)을 점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 그 내용을 순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9절: 시 18:49의 인용. 유대인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것은 특히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 바울이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참조, 1:8).
- ② 10절: 신 32:43의 인용.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더불어 기뻐한다. 이 귀절은 이방인들의 지위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참할 수 있을 만큼 높아진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참조, 행 15:1-29).
- ③ 11절: 시 117:1의 인용.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유대 전통의 간섭을 받지 않고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주를 찬송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오늘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해 준다.
- ④ 12절: 사 11:10의 인용.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진다. 본절은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참조, 행 10:43; 계 22:17).

(3) 이상에서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참조, 마 24:35).

(4)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죽어 버린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계시된 바에 의해 개인과 국가의 역사가 진행되는 인류의 과거·현재·미래사이라고 할 수 있다.

10. **Q** 예수 그리스도를 '이새의 뿌리'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A (1) 예수 그리스도는 흔히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된다(마 1:1). 그러나 본절에서는 예수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삼상 16:11-13; 17:12-24)의 '뿌리'라고 기록되었다.

(2)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육적(肉的)으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이새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의지가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요 1:12).

(3) 즉 그분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존재의 근원자이시며 창조자이시다. 그런 견지에서 우리는 그분의 즐기며 가지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출발점은 그분에게 있고 우리의 종착점도 바로 그분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다(참조, 11:36).

11. **Q** 성도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13절)

A (1)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다(참조, 시 31:24; 렘 17:7; 욥 3:16). 그러므로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2)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비로소 그 소망은 참되다

고 할 수 있다(참조, 벰전1:3;히6:19).

- (3) 또한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으며 내적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 (4) 그런데 이러한 소망은 사실상 믿음과 따로 떨어져서는 작용하지 않는다(갈5:5;벰전1:21).
- (5) 따라서 성도들은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기도에 힘써 구원의 소망을 견고케 해야 할 것이다(8:24;딤후1:2).

12. ㉠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훌륭한 면모를 간략하게 설명하라(14절).

- ㉠ (1)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음식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인해 약간의 불화가 있었지만(참조, 14장)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훌륭한 신앙인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참조, 1:8).
- (2) 첫째, 그들에게는 '선함'(헬, 아가도쉬네스)이 가득했다. 여기서 '선함'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삶의 현실 속에 작용하는 도덕적인 탁월함을 의미한다.
- (3) 둘째, 그들에게는 복음의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이 있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려면 진리의 말씀이 자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잠2:3-5;벰후3:18).
- (4) 셋째, 그들은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이었다. 아직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로마 교회에는 목회자들이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매일 피차 권면하여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참조, 골3:16;살전5:11).
- (5)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목자가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자의 권면을 좇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선하게 성장해야 할 것이다. 설령 목자가 없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이 피차 권면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할 것이다(히3:13;13:22).

13. ㉠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15절).

- ㉠ (1)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출생했다(행9:11;21:39;22:3).
- (2) 그의 가정은 상당한 재산과 지위를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그가 로마 시민으로 출생하였고(행16:37,38;22:25-29), 1세기의 가장 위대한 유대인 랍비 중 하나인 가말리엘 1세 문하에서 수학(受學)했기 때문이다(행22:3).
- (3) 그는 수학 과정에서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했으며 자기 조상들의 유전(遺傳)에 대하여 지극히 열렬하였다(갈1:14).
- (4) 이와 같이 바울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지만(고후11:22; 빌3:5) 기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다. 즉 그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교회 박해자로서 스테반의 순교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투옥한 일과, 안전을 위해 팔레스틴의 밖으로 도피했던 기독교 신자들을 귀환시키는 일의 주역(主役)을 맡았다(행7:58-8:3;9:1,2;고전15:9;빌3:6).
-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며 기독교 신자를 근절시키려 했던 바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 바울이 기독교 신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영광을 입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그것이다(행9장).
- (6) 즉 그는 그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진실로 인간의 죄를 속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행위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 (7)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했던 그를 불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일이다(1:5;고전15:8-11;

갈2:8).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감격적으로 고백하였다(엡3:8).

- (8)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바울과 같이 과거에는 예수를 모르고 그를 배척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벧진 자'라 할 수 있다(1:14). 그러므로 성도는 기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딤후4:2).

14. **㉠** 바울은 그 자신이 본서신을 쓰게 된 동기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15절)

- (A) (1) 로마 교회는 바울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던 이방인들에 의해 시작된 교회이다(참조, **㉠** 12).
- (2)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예수의 직계 제자들이나 그밖의 다른 권위있는 주의 종들을 지도자로 모시지 못하였다(참조, **㉠** 12).
- (3) 따라서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 본서신을 기록하여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한 진리와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증거한 일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라 하겠다. 이처럼 바울은 구원의 도리를 재확인시키기 위해 본서를 기록했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서신을 씌에 있어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다시 지루하게 되풀이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배려했다. '더욱 담대히 대강(大綱) 너희에게 썼노니'라는 귀절은 이러한 사실을 나타낸다.
- (5) 또한 바울은 그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본서신을 기록하여 보낸다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본서신을 쓴다고 말한다.
- (6)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본이다(참조, 고전9:16;엡3:7-9).

15. **㉠** 16절에서 바울은 그 자신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 (A) (1) 바울은 본절에서 그 자신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 (2) 다시 말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제사장 직무'로 보고 있다.
- (3) 아울러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종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희생 '제물'(헬, 프로스포라)이라고 말한다(참조, 사66:18-20).
- (4) 이상과 같은 바울의 선언은 우리로 하여금 '만인 제사장설'을 상기케 한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제사장적 질서의 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새 질서 속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직접 대하여 개인적으로 섬기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봉사의 생활을 해야 한다(벧전2:5).
- (5)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만인 제사장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설교나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단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웃에 대하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할 뿐이다.
- (6) 한편 우리는 복음 증거가 '제사장 직무'임을 말하고 있는 본절을 통해 영혼을 구하는 모든 사업이 매우 거룩한 직무를 깨달아야 한다. 전도 사업이나 선교 사업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등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에 관제되는 거룩한 직무이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직분을 맡고 있는 성도들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일해야 한다(참조, 말1:6-14).

16. **㉠** '말씀의 사역'에 삼위 일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략히 설명하라 (16절).
- ㉡** (1)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데 일생을 헌신한 바울은 본절에서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천명(闡明)한다. 이는 복음 증거를 위하여 12제자를 택하신 것과 같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일군을 택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암시한다(참조, 갈1:10).
- (2) 그 다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한다(참조, 행20:24). 이는 복음이란 결코 사람에게 의해 발견되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함으로써 인간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시사한다(참조, 고전4:1).
- (3) 또한 바울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드러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聖別)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히 거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 사역에 성령이 동참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참조, 고전6:11).
- (4) 위에서 볼 때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오늘날 말씀의 사역을 맡은 자들은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힘입어 말씀을 전하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1:7,17; 행6:4).
17. **㉠**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17절)
- ㉡** (1) 본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사역(事役)을 자랑하는 대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자랑으로 여겼다.
- (2) 그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봉사하며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심중에는 보다 높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참조, 갈6:13,14).
- (3)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셨다'는 바울의 고백(18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 (4)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같이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간주해야 한다(6:13; 고전10:31).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사명을 성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딤후1:12; 딤후4:17).
18. **㉠** 바울 사역의 특징은 무엇인가? (18절)
- ㉡** (1) 바울은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대상은 주로 이방인이었다(참조, 행13-21장).
- (2) 이러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성령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하셨으며, 표적(表蹟)과 기사(奇事)를 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점이다(참조, 행13:7-12; 16:16-18).
- (3) 여기서 '표적'(헬, 세메이온)은 인간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의미하며(KJV, RSV, signs), '기사'(헬, 테라스)는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나타나는 이적을 뜻한다(NIV, miracles).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행2:22)과 사도들의 사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듯이 복음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진리임을 믿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참조, 고후12:12).

- (5) 다시 말해 표적과 기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 내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었다(히2:1-4).
- (6) 그러나 이러한 기적들 그 자체만으로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참조, 행14:8-18). 즉 말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 (7)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이 둘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다. 즉 그의 말과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여기서 ‘말’(헬, 로고스)은 복음의 증거를, ‘일’(헬, 에르곤)은 복음의 증거를 뒷받침해 주는 이적과 행위를 가리킨다.
- (8) 오늘날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기적을 행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할 수는 있다(참조, 행1:8).

19. **㉠**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까지 자신이 행한 사역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19절)

- ㉠** (1)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군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와 지중해 북부 지역을 3차례나 두루 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였다(참조, 행13-21장).
- (2) 그는 그 지역들을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꽤 여러 해 동안에 걸쳐 여행할 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위대한 선교 실적을 쌓았지만, 그와 같은 활동에 대하여선 찰마하게 언급했다.
- (3) 즉 그는 자기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나 회심자의 수효, 또는 이러한 사역(事役)에 뒤따르는 고난 등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고 단지 자기가 수고한 경로를 표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르는 넓은 범위의 지역을 인용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여기서 ‘일루리곤’(Illyricum)은 아드리아 해의 동쪽 연안, 북쪽은 파노니아(Pannonia), 남쪽은 마케도냐에 접하는 로마의 속도(屬都) 일루리아(Illyria)를 가리키는 공식 명칭으로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 영토에 해당한다.
- (4)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되어(행13:1-4)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중 마지막 전도 여행 시, 고린도에 체류하는 동안 일루리곤 지역을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참조, 행20:1,2).
- (5) 어쨌든 우리는 본절을 통해 자신이 성취한 위대한 선교 사업을 겸손히 묘사하고 있는 바울의 훌륭한 인격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놀랍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참조, 마7:21-23).

20. **㉠**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遍滿)하게 전하였노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9절)

- ㉠** (1) 이 귀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드리아 해의 동쪽 연안에 있는 일루리곤까지의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 (2) 오히려 이 귀절은 바울이 그 연변의 큰 고장들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운 다음 그 지역의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그 교회를 맡겨 그 주변 지방들을 보다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음화시키도록 하였다는 뜻이다.
- (3) 이와 관련하여 고전3:5-11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신을 ‘십는 이’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복음의 사역(事役)을 수행하는 사람을 ‘물 주는 이’로 묘사하면서 아울러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한다.
- (4) 이것은 ‘십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다 ‘하나님의 일군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참조, 요4:35,36).
- (5) 이상에서 우리는 바울의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그 지역 신자들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선교 활동을 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교회를 세운 후 그 지역에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교하는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며' 그 후에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일이야말로 최선의 선교 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16:3, 21; 고후8:23).

21. ㉠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선교 정책은 무엇인가? (20, 21절)

- ㉠ (1) 바울은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철저한 신앙적 의미로 하는 말이다(참조, 고전5:11; 엡3:15).
- (2)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이미 다른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곳에서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신앙심 깊은 선교 정책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 (3) 이와 같이 바울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기를 싫어한 것은 무엇을 이룩한 것에 대한 공을 주장할 수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강한 자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겠다는 뜨거운 사명감(使命感)에서 비롯된 것이다(참조, 1:14).
- (4) 특별히 바울은 21절에서 장차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리라는 사 52:15을 인용함으로써 그와 같이 개척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새로운 영역에 복음을 가져 가려는 자신의 선교적 야망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됨을 보여 주고 있다.
- (5) 한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바울의 선교 방침은 오늘날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준다. 그것은 전도란 소위 '교인 뺏기 쟁탈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희생이 아무리 크더라도 '해산(解産)의 수고'(갈4:19)를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한다(고후10:16).

22. ㉠ 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새롭게 계획한 전도 여행에 대해 서술하라 (22-29절).

- ㉠ (1)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커다란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의 북부 연안 지역 및 소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었다.
- (2) 바울은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그 세계의 대부분 지역을 복음화시켰는데 아직 남은 곳은 서바나 곧 스페인 지방이었다(23절).
- (3) 그리하여 그는 서바나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서바나로 가기 전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그 교회의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방 기독교인들이 모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 했다(25, 26절).
- (4) 그런 다음 그는 로마 교회를 경유해 서바나로 갈 것을 계획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교회가 서바나를 복음화시키려는 자신의 전도 여행을 위하여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도움을 베풀어 줄 것을 바랐기 때문이다(24, 28절).
- (5) 우리는 이상과 같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다(참조, 행1:8).

23. ㉠ '서바나' 지방에 대한 바울의 선교를 간략하게 설명하라 (23, 24, 28절).

- ㉠ (1) 바울이 실제로 서바나 곧 오늘날의 스페인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의 사실에 대해서는 본서신을 비롯한 모든 바울 서신에 확실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단지 이 부분에서는 로마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는 바울의 계획만이 실려 있을 뿐이다(28절).
- (2)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바울이 로마 교회는 방문했으나 그가 스페인에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W. Wiersbe), 이는 타당하지 않다.

- (3) 오히려 우리는 상당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바울이 실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보아야 한다(John Murray, C. H. Dodd, J. B. Lightfoot).
- (4) 이러한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증거는 A.D.1세기 말에 살았던 교부(敎父)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of Rome)가 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The Epistle to the Corinthians)에서 찾을 수 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은 온 세계에 의를 가르쳤으며, 그가 서방의 끝에 도달했을 때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하여 이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서방의 끝'은 서바나를 가리키는 것이다(참조, 행19:21,22).
- (5) 한편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행1:8)는 주의 지상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서방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발이 닿을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한 바울의 선교적인 열정은 주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참조, 고전9:16).

24. ㉠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가? (25-27절)

- ㉠ (1) 바울은 그의 모(母)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그 자신이 세운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특별 구제 헌금을 거두어 들인 적이 있다(25,26절; 고전 16:1; 고후 8:1,2; 9:1,2; 갈 2:10).
- (2)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그 구제 헌금을 유대인 성도들에게 전해 주려 했다(28절).
- (3)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또 그것을 전달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그 헌금을 전달함으로써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이방인 성도들의 사랑을 나타내려 했다(27절).
 - ②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들을 도우려 했다(26절).
 - ③ 이 일을 통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밀접하게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랐다.
- (4) 이와 같이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 주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본이다(참조, 갈 6:9,10).

25. ㉠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한 구제 사업에 참여한 교회들을 말하라 (26절).

- ㉠ (1) 바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기근(饑饉)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피정복 국가의 백성들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였다(참조, 행 11:28).
- (2) 따라서 로마의 속국민 가운데 하나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매우 극심한 곤란을 겪고 있었다.
- (3)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에도 양식난(糧食難)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구제 사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 (4) 이러한 때에 바울은 소아시아 및 지중해 북부 지역을 두루 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는 한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사업에 이방인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 (5) 그 결과 고린도, 갈라디아, 마게도냐 등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힘껏 구제 헌금을 내게 되었다(행20:4;고전16:1;고후8:9장;갈2:10).

- (6) 그런데 본절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본서신을 쓸 때 아가야에 있었고, 최근에 마게도냐를 지나 왔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아가야’는 이탈리아 끝 오늘날 이탈리아의 동쪽 마게도냐의 남쪽에 인접해 있는 곳이었으며 ‘고린도’는 바로 ‘아가야’의 수도였다(참조, 행18:12;20:2).
- (7) 위에서 볼 때 바울 당시의 성도들은 개(個)교회주의를 초월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른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기를 아까와하지 않은 뜨거운 사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자기 교회만을 위한 개교회주의에 몰두어 있으며 믿는 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그리스도 교회는 자신만을 아는 이기주의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잠11:24,25;19:17).

26. ㉠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이방인 성도들이 낸 구제 헌금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27, 28절)

- ㉠ (1) 첫째, 바울은 이 헌금을 ‘빛을 갠 것’으로 보았다(27절). 왜냐하면 이방인 성도들은 주를 믿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다(참조, 요4:22).
- (2) 둘째, 바울은 이 헌금을 ‘열매’에 비유하였다(28절).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넓은 사랑으로 복음의 씨를 퍼뜨린 결과 이제 그 보답을 받게 된 것이니 그 구제 헌금이야말로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기꺼이 나누어 준 데 대한 열매라는 의미이다(참조, 사2:3;25:6).
- (3) 이와 같이 바울 당시 유대인 성도들을 통해 구원의 소식을 받은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에 대해 ‘빛진 자’(1:14)의 자세를 가지고 영적인 빛을 물질적으로 갠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자기를 전도하여 구원의 길을 걷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잊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참조, 갈4:14,15).

27. ㉠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할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29절)

- ㉠ (1)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할 때에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자신의 의도를 나타냈다.
- (2)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곳 성도들과 신령한 은혜를 나눌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24절).
- (3) 즉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길을 걷고 있었으나, 그들이 신령한 은사(恩賜)를 통해 더 큰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했다(1:11,12).
- (4) 실제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오래 전부터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였다(1:9,10).
- (5) 여기서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바울의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
- (6) 한편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본이다. 목회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참조, 히12:28).

28. ㉠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30절)

- ㉠ (1)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 (2) 여기서 ‘힘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운동 경기에서 한 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와 서로 만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는 말이다(참조, 골4:12).

- (3) 한편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부탁하는 가운데 모든 신자들이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고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자신의 부탁을 보다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다.
- (4)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사랑'은 성령이 신자에게 주신 서로간의 사랑이 아니라(갈5:22) 성령이 지니고 계신 사랑을 의미한다(참조, 5:5).
- (5) 이러한 사실은 '성령의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바울이 부탁한 기도를 실행할 수 있다는 함축적(含蓄的)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 (6) 어쨌든 우리는 본질을 통해 성도들이 그들의 목회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제회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수단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다(참조, 행12:5).

29. ㉠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31, 32절)

- ㉠ (1)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내용의 기도를 부탁했다.
- (2) 첫째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그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다(31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지만(행20:24;21:13),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의 무모한 살인적 음모에 의해 희생당하므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참조 행9:29,30).
- (3) 둘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마련한 이방 교회의 구제 헌금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기도하라는 것이다(31절). 바울이 이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비록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지만(행15:19-2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바리새적인(pharisaical)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과 이방인 교회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행15:5).
- (4) 셋째는 바울이 기쁨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그곳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다(29절).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르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32절).
- (5) 이상과 같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는 바울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전고케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6)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남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가 있다(참조, 약5:16).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0. ㉠ 33절의 축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바울은 그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고난을 당하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참조, 31절).
- (2) 그런데도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하고 있다.
- (3) 이와 같이 바울이 곧 닥쳐 올 장래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조금도 이에 개의(介意)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축원할 수 있었던 것은 갖은 고난과 시련을 거쳐 정금(精金)같이 연단된 그의 신앙 때문이었다(참조, 빌1:12-14).
- (4)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평강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이 방향지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는 법이다(참조, 신33:27;시90:1).

제16장 로마의 여러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인사

단락구분 1-2 바울이 뵈뵈를 천거하다 / 3-16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에 대한 바울의 문안 / 17-20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 21-23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동역자들의 문안 / 25-27 승영(頌榮)과 축도

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2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3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5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6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숙에게 문안하라

11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깃수의 권숙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 빌물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

와 율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16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7 형제들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18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밭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1 나의 동역자 디모테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2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3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4 (없음)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이제까지 구원에 관한 교리(1-11장)와 성도의 실천적인 생활(12-15장)에 관해 언급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본서신을 맺고 있다.
- (2) 먼저 바울은 자기를 대신하여 본서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할 뵈뵈를 소개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이 그녀를 잘 영접할 것을 부탁한다(1,2절).
- (3) 그 다음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동역자(同役者)들과 더불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3-16절), 송영과 축도를 함으로 본장을 끝맺는다(25-27절).
- (4) 한편 본장을 살펴보면 바울은 여기서 최소한 스물 여섯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로마의 성도들이 그들에게 문안할 것을 권면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는가?
- (5) 그것은 바울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친구로 삼는 사람이었음을 보여 준다. 바울은 결코 고립된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그의 복음 사역에도 도움을 주었다(고후8:23; 빌2:25; 몬1:24).
- (6)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그런 것이 아니다. 양들이 함께 떼를 이루며 살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사용하신 종들은 좋은 친구들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 친구들의 생애 가운데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참조, 시119:63; 133:1-3; 행2:42; 빌1:5; 요일1:7).

2. Ⓒ ‘겐그레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1절).

- Ⓐ (1) ‘겐그레아’(Cenchrea)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였다.
- (2) 이 도시는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의 중요한 동쪽 항구로서 교통의 요충지였다.
- (3) 바울은 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올 때 이곳에서 승선(乘船)했으며(행18:18) 또 제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여기서 승선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동쪽 유대인들의 살인 음모 때문에 육로로 바꾸어 마게도냐를 통과한 바 있다(행20:3).
- (4) 한편 본절에 나오는 ‘겐그레아 교회’는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 시 세워진 교회일 것으로 추측된다.
- (5) 즉 바울은 제 2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에 도착하여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더불어 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행18:1-18), 바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복음이 그 주변의 여러 도시로 전파되었고 그 결과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가 겐그레아 교회이다(참조, 고후1:1).

3. Ⓒ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천거(薦擧)한 ‘뵈뵈’는 어떠한 사람인가? (1, 2절)

- Ⓐ (1) ‘뵈뵈’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으로 불리어지고 있다(1절).
- (2) 그런데 여기서 ‘일군’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논>은 ‘집사’로 번역될 수 있다(RSV, Jerusalem Bible, deaconess).
- (3) 바울 당시 ‘집사’란 직분은 남자들로서 신앙이 매우 돈독하고 행실 면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빌1:1; 딤후전3:8-13).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뵈뵈’가 여자로서 ‘집사’로 불리어진 사실은 그녀가 남자에게 주어지는 집사의 직분을 훌륭하게 이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5)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그녀를 염두에 두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고 밝힌 것에서도 알 수 있다(2절).
- (6) 아마도 그녀는 상당한 재산과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바울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성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여인이었음에 틀림없다.

- (7)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는 특별히 여성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그들 가운데에는 직분을 가진 자들도 많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비비를 신앙의 모델로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비비 같은 여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더 한국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참조, 행9:36;16:14).
4. **㉠** 바울은 본서신을 비비 편에 보내면서 본서신을 받아 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1, 2절)
- ㉡** (1) 바울은 오래 전부터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하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이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쳤으므로 이를 실행하려 하였다.
- (2) 그러나 그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그의 모(母)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이방인 교회들이 마련한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만 했다(15:22-29).
- (3)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사실을 본서신에 기록하여 겐그레아 교회의 열심있는 일꾼인 비비 편에 띄우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그의 방문이 임박했음을 알려 주었다.
- (4) 아울러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본서신을 전달하는 비비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친절하게 영접하고 도와 줄 것을 부탁하였다(2절).
- (5) 한편 바울이 비비를 본서신의 전달자로 삼은 이유는 그녀가 마침 겐그레아에서 로마로 가던 도중 그 당시 바울이 머물면서 본서신을 기록한 고린도에 들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참조, 서론 ㉠3).
- (6) 이상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실한 모습을 보았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성취하는 데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8:2).
5. **㉠** 바울은 3-16절에 나오는 로마의 성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 ㉡** (1) 바울을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은 그가 결코 로마에 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로마의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알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 (2) 그러나 이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들을 만났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임에 틀림없다(참조, 1:8).
- (3) 이러한 사실은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이 매우 큰 도시들을 연결하는 훌륭한 도로망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항해할 수 있는 계절에는 해상 교통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여행하기가 용이했다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 (4) 이와 관련하여 윌리엄 램세이(William Ramsay)는 ‘현대의 이 나라들을 잘 알고 있는 여행자들이 초기 기독교 문서들을 접할 때 놀라게 되는 특징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광범위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는 일에 그렇게 쉽게 자신을 가졌었다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6. **㉠** 3-16절에 언급된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 ㉡** (1) 이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는 성도들이다. 즉 바울의 선교 사역과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다.
- (2)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主) 안에서’라는 말을 거듭 덧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드러난다(8-13절).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는 사람들은 주의 종이 증언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참조, 빌4:3).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쳐 주의 일에 힘쓰며, 주신 사명(使命)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람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엡4:1).

7. **㉠**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인가? (3, 4절)

- ㉠** (1)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와 동일인이다(행18:226;고전16:19;딤후4:19).
- (2) '브리스가'와 그녀의 남편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았으나 로마의 제 4대 황제 글라우디오(Claudius)의 유대인 추방 명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 상업 도시인 고린도에 살고 있었다(행18:2).
- (3) 그런데 바로 그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을 당시여서 그들 부부는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다(행18:1).
- (4) 더우기 그들은 마침 바울과 동일한 직업 곧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으므로 바울과 함께 자기들의 집에 거하면서 평상시에는 장막을 만들었으며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였다(행18:34).
- (5) 당시 바울은 그들로부터 친절한 대접을 받았으며 주의 사업에 커다란 협조를 얻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同役者)들'이라고 말하며(3절) 아울러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고 증거한 점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4절).
- (6) 즉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망함에 따라 로마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서에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바울이 거기서 사역(事役)하기 위한 기초를 닦았을 뿐만 아니라(행18:19,24-28) 바울이 그곳에서 3년간 목회 활동을 하던 중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협스러운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의 생명을 구하려고 극단적인 위험도 무릅썼던 것이다(행19:28-31;고전16:8,9,19).
- (7) 이와 같이 바울을 도우면서 복음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헌신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부의 아름다운 전형(典型)이 된다(참조, 고전9:5).

8. **㉠** '저의 교회'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5절)

- ㉠** (1) 이 말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34절).
- (2) 바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독립된 교회 건물보다는 성도들의 가정 집을 정규적인 회합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10,11,14,15절;고전16:19;골4:15;몬1:2).
- (3) 즉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한 도시에 몇 개의 가정 교회들이 모여 하나의 지역 교회를 형성했는데 마가의 다락방(행1:3),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행16:40),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몬1:2), 라오디게아에 있는 늬바의 집(골4:15) 등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가정 교회들이다.
- (4) 한편 초대 교회의 전형적인 가정 교회는 오늘날에도 존속하는데 가정 집에서 모이는 개척 교회나 한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구역 예배, 교구 예배 등이 그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
- (5) 특별히 오늘날의 성도들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가정 집에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신앙을 돈독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본받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사랑과 인정이 고갈되어 가는 이 시대에 가정 예배를 통해 서로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돕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참조, 행2:42;벧전4:10).

9. **㉠** '에베네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5절)

- ㉠** (1) '에베네도'는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 중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얻은 아시아 최초의 회심자(回心者)이다(참조, 행19, 20장).
- (2) 실제로 바울은 본절에서 그를 가리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고전16:15,16).

- (3) 이러한 사실은 본절의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에 해당하는 헬라이어 본문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으로 드리는 희생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드러난다(NIV, the first convert to Christ in the province of Asia).
- (4) 한편 바울은 에베네도에 대해 '사랑하는'(헬, 아가페톤)이란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베네도가 아시아의 첫 개심자로서 주의 사업에 대해 열심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 (5)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나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봉사함으로 목회자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성도는 참으로 복되다고 하겠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마19:30).

10. Q 6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 A (1) '마리아'란 이름은 신약에 나오는 여러 여자들이 가졌던 썸어로 된 이름이다(참조, 마 1:16; 19:25; 행 12:12).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들 마리아는 모두 한결같이 신앙이 훌륭한 여인들이었다.
- (2) 본절에 언급된 로마 교회 성도 마리아도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 (3) 비록 그녀가 성도들을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녀는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일했음이 틀림없다.
 - (4) 즉 바울이 그녀에 대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로마 교회의 초기 시절부터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 (5)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중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봉사한 성도들의 노고는 교회 성장에 큰 힘이 된다(참조, 스 2:68).

11. Q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헤로디온'에 대해 설명하라(7, 11절).

- A (1) 바울은 이 세 사람에 대해 자기의 '친척'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친척'에 해당하는 헬라이어 <성계네스>는 바울의 '동료' 이스라엘 사람을 뜻한다(참조, 9:3).
- (2) 실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 바 있으므로(빌 3:7) 여기에서 그가 친척이라고 언급한 세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그의 친척이 아니라 다만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임에 틀림없다(William Ramsay).
 - (3) 한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그리스도로 인해 바울과 함께 옥(獄)에 갇힌 적이 있으며(참조, 고후 6:5; 11:23), 자기들이 지닌 믿음과 봉사 때문에 사도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다(7절).
 - (4)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 앞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 지역에서 사도들의 무리와 연합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 (5) 또한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과 관계 있는 히브리계 그리스도인일 것으로 추정된다(J. C. Lightfoot).
 - (6) 바울은 주로 이방인을 위해 선교 활동을 폈지만 항상 그의 동포 중 상당수가 비록 현재는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11:1-6).
 - (7)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바울이 이 귀절들에 언급된 유대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으로 봉사하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했는지 능히 알 수 있다.
 - (8) 오늘날의 한국 교회 성도들도 믿지 않는 동포를 위해서 기도한 바울과 같이 이 나라에

아직도 주를 섬기지 않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와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다(참조, 삼상12:23).

12. ㉠ ‘암블리아’와 ‘우르바노’와 ‘스다구’ 그리고 ‘아벨레’에 대해 설명하라(8-10절).

- ㉠ (1) ‘암블리아’(Ampliatius)는 ‘큰’ 또는 ‘많은’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식 이름이다(8절). 그런데 바울은 그에 대해 매우 다정한 개인적 애정을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그와 바울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우정이 깊은 교제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참조, 5절).
- (2) 또한 ‘우르바노’(Urbanus)는 ‘세련된’ 혹은 ‘우아한’을 의미하는 라틴식 이름이다(9절). 바울이 그를 가리켜 ‘우리의 동역자’라고 말한 것은 그가 과거에 바울을 도와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고 주의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 주었음을 암시한다.
- (3) 그리고 ‘이삭’이란 뜻을 지닌 ‘스다구’(Stachys) 역시 ‘암블리아’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랑을 받은 로마의 성도이다(9절).
- (4) ‘아벨레’(Apelles)란 이름은 ‘흑색’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바울은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는 그가 자기에게 임한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교회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5) 이 아벨레와 같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에게 닥쳐 오는 시련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 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게 된다(참조, 딤후 2:15).

13. ㉠ ‘아리스도블로의 권속(眷屬)’, ‘나깃수의 권속’, ‘드루배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에 대해 설명하라(10-12절).

- ㉠ (1) ‘아리스도블로’는 로마에서 살다가 죽은 헤롯 대왕의 손자일 것으로 추정된다(Light foot). 바울은 그의 권속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리스도블로 아래 있었던 노예들과 일꾼들이었을 것이다(10절).
- (2) ‘나깃수’는 ‘아리스도블로’의 경우처럼 로마의 귀족으로서 특히 클라우디오(Claudius) 황제에게 큰 영향을 끼친 전제 세력 가운데 한 사람이다(Lightfoot). 그런데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나깃수의 권속’ 역시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처럼 나깃수에게 속한 노예들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11절).
- (3) 그리고 ‘드루배나’(Trypaena)와 ‘드루보사’(Tryphosa)라는 이름은 ‘화사하다’ 혹은 ‘우아하다’라는 뜻을 지니는데 이들 두 사람은 자매간이었을 것이다(12절). 그런데 그와 같은 이름은 귀족 계층에 어울리는 이름이니 그들은 귀족 집안의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들이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라는 칭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안일한 귀족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열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였음을 보여 준다.
- (4) 또한 ‘버시’(Persis)는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을 지닌다(12절). 그런데 그녀는 아마도 독신녀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수고를 하였으며 따라서 교회의 사랑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 (5) 한편 우리는 이 부분에 귀족과 노예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이 뒤섞여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6)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신분(身分)이나 성적(性的)인 구별 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 ‘너희는 종이냐 자주자(自主者)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3:28).

14. ㉠ ‘루포’에 대해 설명하라(13절).

- Ⓐ (1) ‘루포’(Rufus)는 마15:21에 언급되어 있는 루포와 동일 인물로서 잠시 예수의 십자가를 멘 바 있는 구네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다(Everett F. Harrison).
- (2) 본절에서 그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보통 의미의 ‘택하신 자’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다른 성도들에 비해 어떤 우월성이 그에게 있었음을 의미한다(RSV, eminent in the Lord).
- (3) 한편 바울은 루포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그의 어머니도 생각한다. 그녀의 이름이 본절에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그녀는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 (4)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자기 가족에게서 떠나온 후에(참조 빌3:8) 외로웠었는데 루포의 어머니가 그의 외로움을 알고 아들처럼 그를 돌보아 주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5) 따라서 그녀가 당시 로마에 있었다는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로마 방문을 고대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 (6) 위에서 볼 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후 고독한 길을 걸어왔으나 주께서는 그의 생애가 그렇게 외롭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7) 그러므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그 길이 어렵고 힘들며 박수 갈채가 없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참조, 막10:29,30).

15. ⓐ 14, 15절에 나오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해 설명하라.

- Ⓐ (1) 14,15절에는 두 무리의 신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으나 그들에 대한 설명이나 칭찬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 (2) 이러한 사실은 그들과 바울과의 유대(紐帶)가 앞에 언급된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덜 강했음을 시사한다(비교, 3-13절).
- (3) 한편 이 두 무리의 신자들과 관련하여 그들과 관계 있는 신자들에게까지 바울의 문안이 확대되어 있는데 이는 그 두 무리가 다 각각 가정 교회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참조, 5절).
- (4) 당시 로마는 제국의 중심부로서 커다란 도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각기 여러 구역에 신자들의 모임이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 (5) 이 부분에 나오는 무리들도 그중 하나로서 정기적으로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 (6)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곳곳마다 서 있다. 그 교회들은 비록 교파가 다르다 하더라도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이다(참조, 엡1:22,23).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 간에 그 교회 이외의 다른 교회들에 속한 성도들을 인정해 주고 그들과도 서로 사랑의 정을 나누어야 한다(요13:34,35).

16. ⓐ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말씀의 의미에 관해 설명하라(16절)

- Ⓐ (1) 이 말씀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로 서로 입맞추었던 습관과 관계가 있다(참조, 벧전5:14).
- (2) 즉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회를 마친 후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그리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서로 입을 맞추었다(고전16:20; 고후13:12; 살전5:26).
- (3)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습관을 절대로 호색적(好色的)이거나 감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입맞춤을 ‘거룩하게’(헬, 하기로) 하라고 명했기 때문이다.
- (4) 이상과 같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으로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날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즉 비록 그 형태에

있어서는 초대 교회 때와 다르다 할지라도 형제애의 표현으로서 성도들간에 다정한 인사를 보내는 습관이 각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참조, 행20:37).

17. ㉠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17, 18절)

- ㉠ (1) 첫째, '거짓 교사들'은 신앙의 기초적인 진리를 왜곡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남을 실족(失足)하게 한다(골2:48). 즉 그들은 복음의 진리보다는 자기 자신의 철학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불화의 씨를 심는 자들이다.
- (2) 둘째,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의 주(主)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자신을 섬긴다(18절). 이러한 삶의 양태는 세상적이지요 정욕적이지요 마귀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진다(약3:15).
- (3) 셋째, '거짓 교사들'은 공교(工巧)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감언 이설(甘言利說)로써 믿는 자들을 유혹하려고 한다(참조, 고후4:2; 엡4:14).
- (4) 바울은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파멸이라고 확언하면서(20절; 빌3:13,19) 성도들은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권고한다(17절).
- (5)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그릇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남을 오도(誤導)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들이 다른 성도들을 미혹할 틈을 주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참조, 갈1:6-9).

18. ㉠ 바울은 거짓 교사와 관련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19절)

- ㉠ (1) 로마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평강을 깨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17,18절).
- (2) 다시 말해 바울은 이제까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논쟁적인 언급을 유의해서 피하고 있었지만 본서신을 마무리짓는 단계에 이르자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경계하라는 각별한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Dodd).
- (3) 왜냐하면 그 당시 다른 모든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명성(名聲)이 나 있었고(19절; 1:8; 6:17,18) 또 이방인 교회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는 의심할 여지없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당부한다. 이것은 곧 선한 것을 따르는 데에는 지혜롭고 악에 이끌리는 데에는 우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참조, 마10:16).
- (5) 성도들은 바울의 이 같은 권면에 따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같이 악하고 그릇된 교훈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참조, 살전5:21,22).

19. ㉠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20절)

- ㉠ (1) 이 말씀은 17-19절에 기술된 거짓 교사들과 관련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 (2) 즉 바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복음의 진리를 거스려 어리석고 허탄(虛誕)한 교훈을 퍼뜨림으로 교회를 어지럽혔다(참조, 갈1:6-9; 2:4; 딤후3:8; 4:3,4).
- (3)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도들과 종들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하였는데, 바울은 본절을 통해 그와 같은 싸움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그들에게 역사(役事)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참조, 요일3:8; 계20:10).

- (4) 오늘날에도 이기적인 이유로 거짓 교리를 가르쳐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파하는 대신 속임수와 달변(達辯)으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한다.
- (5)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는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엡6:13).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단의 세력들을 패배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창3:15; 빌3:18,19).

20. ㉠ ‘디모데’와 ‘누기오’ 그리고 ‘야손’과 ‘소시바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21절).

- ㉠ (1) 먼저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한 믿음의 아들로서(딤후1:5;3:15)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 시, 마게도나와 아가야 전도 여행에 동행하였고(행17,18장)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도운 바 있다(고전4:17;16:10).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문안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그가 바울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었으며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음을 암시한다(참조, 빌1장 ㉠3).
- (2) ‘누기오’는 ‘야손’과 ‘소시바더’와 더불어 바울의 사랑을 받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다(참조, 7,11절). 그런데 여기 언급된 ‘누기오’는 ‘사랑을 받는 의원’인 ‘누가’(골4:14)와는 구별된다.
- (3) ‘야손’은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했을 때 바울과 바울의 동행인들을 대접한 사람이다(행17:5-7,9). 그러나 그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자 명단 가운데 들어 있지는 않았다(참조, 행20:4).
- (4) ‘소시바더’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동일인일 것으로 추정된다(행20:4). 이렇게 볼 때 그는 당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연보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참조, 15:25,26).
- (5) 이상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본서신을 기록할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同役者) 내지는 주(主)의 신실한 일꾼들이다.
- (6)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문안 인사를 한다는 것은 본서신을 받아 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며 격려가 될 것이었다.
- (7)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주의 종들로 하여금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하게 한 것은 그가 얼마나 자상(仔詳)했는지를 보여 준다.

21. ㉠ 본서신을 대서(代書) 한 사람은 누구인가? (22절)

- ㉠ (1) 그는 ‘더디오’이다. 그는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다만 본절에 바울의 대필자(代筆者)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보통 바울은 대필자들을 두었는데(고전16:21; 갈6:11; 골4:18; 살후3:17) 대필자의 이름이 그의 서신에 기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 (3) 한편 본서신의 대필자인 더디오가 본절의 문안을 스스로 쓴 것인지 아니면 바울의 제의로 쓴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바울이 그로 하여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은 틀림없다.
- (4) 그런데 우리는 더디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가 ‘주 안에서’ 문안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기록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 (5)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영적인 관심도 없이 글을 쓰는 일반 문필자들보다는 오히려 신자들을 자신의 선교 사업에 동참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바울과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무슨 사업을 할 때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고용하여 함께 일하며 좋은 것을 더불어 나눌 수 있어야 하겠다.
- (7) 더군다나 복음을 위하여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그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참조, 고후6:14,15).

22. ㉠ '가이오'와 '에라스도' 및 '구아도'에 관해 설명하라(23절).

- ㉠ (1) '가이오'는 행18:7의 '디도 유스도'와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정되는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인물이었다(고전1:4).
- (2) 본절에 의하면 그는 바울과 온 교회의 식주인(食主人)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의 집이 고린도에 거주하는 신자들의 집회 장소였음을 시사한다(참조, 5절).
- (3) 한편 '에라스도'는 고린도 시의 재무관으로 고린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음에 틀림없다(Oscar Broneer). 그러나 그를 성경의 다른 곳에 언급되어 있는 바울의 동역자 에라스도(행19:22; 딤후4:20)와 동일시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 (4)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구아도'는 본절 이외의 다른 곳에는 언급되지 않는 인물로서 다만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본절에 구아도가 '형제'라고 호칭(呼稱)되어 있는 것은 그가 본절에 나오는 에라스도나 22절에 언급된 더디오의 형제라기 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참조, 1:13; 고전1:1; 고후1:1; 갈1:2; 엡6:21; 빌1:12; 골1:1; 살전1:4; 살후1:3).
- (5) 위에서 볼 때 본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서 특별히 고린도 시에서 영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6) 이러한 사실은 '문벌(門閥)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는 고전1:26의 두드러진 예외를 보여 주는 한편, 복음은 신분의 고하(高下)를 초월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참조, 마24:14; 28:19).

23. ㉠ 24절이 성경 본문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 (1) 24절은 한글 개역 성경 본문에 실려 있지 않고 다만 난하주(欄下主)에 기록되어 있다(참조, RSV, NIV).
- (2)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다.
- (3) 그런데 이 귀절이 본문에서 빠진 이유는 체스터 벤티 파피루스 II(P⁴), 알렉산드리아 사본(Codex Alexandrinus), 시나이 사본(Codex Sinaiticus),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에브라임 수리아어 사본(Codex Ephraemi Syricirca) 등을 위시한 대표적인 사본들에 본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본절이 한글 개역 성경 난하주에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이 귀절이 베자 사본(Codex Bezae), 보엘네리안 사본(G) 등 몇 개의 사본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참조, KJV, Living Bible).

24. ㉠ 25-27절에 기록된 바울의 축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또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 ㉠ (1) 바울은 본서신의 끝 부분인 25-27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그가 전한 복음의 주제와 기원 및 목적에 관련된다.
- (2)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탁(委託)하심으로 전파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음을 말한다(25절).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바 있다(고전2:2; 갈6:14).
- (3) 그 다음 바울은 모든 민족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이 구약에 예표(豫表)되어 있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계시의 점진성을 설명함으로써 이방인에게 행한 그의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된 것임을 천명(闡明)한다(25,26절; 창12:3; 22:18).
- (4) 끝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비밀의 계시'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 (4) 오늘날에도 이기적인 이유로 거짓 교리를 가르쳐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파하는 대신 속임수와 달변(達辯)으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한다.
- (5)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는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엡6:13).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단의 세력들을 패배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창3:15; 빌3:18,19).

20. ㉠ ‘디모데’와 ‘누기오’ 그리고 ‘야손’과 ‘소시바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21절).

- ㉠ (1) 먼저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한 믿음의 아들로써(딤후1:5;3:15)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 시, 마게도나와 아가야 전도 여행에 동행하였고(행17,18장)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도운 바 있다(고전4:17;16:10).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문안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그가 바울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었으며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음을 암시한다(참조, 빌1장 ㉠3).
- (2) ‘누기오’는 ‘야손’과 ‘소시바더’와 더불어 바울의 사랑을 받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다(참조, 7,11절). 그런데 여기 언급된 ‘누기오’는 ‘사랑을 받는 의원’인 ‘누가’(골4:14)와는 구별된다.
- (3) ‘야손’은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했을 때 바울과 바울의 동행인들을 대접한 사람이다(행17:5-7,9). 그러나 그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자 명단 가운데 들어 있지는 않았다(참조, 행20:4).
- (4) ‘소시바더’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동일인일 것으로 추정된다(행20:4). 이렇게 볼 때 그는 당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연보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참조, 15:25,26).
- (5) 이상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본서신을 기록할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同役者) 내지는 주(主)의 신실한 일꾼들이다.
- (6)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문안 인사를 한다는 것은 본서신을 받아 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며 격려가 될 것이었다.
- (7)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주의 종들로 하여금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하게 한 것은 그가 얼마나 자상(仔詳)했는지를 보여 준다.

21. ㉠ 본서신을 대서(代書)한 사람은 누구인가? (22절)

- ㉠ (1) 그는 ‘더디오’이다. 그는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다만 본절에 바울의 대필자(代筆者)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보통 바울은 대필자들을 두었는데(고전16:21; 갈6:11; 골4:18; 살후3:17) 대필자의 이름이 그의 서신에 기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 (3) 한편 본서신의 대필자인 더디오가 본절의 문안을 스스로 쓴 것인지 아니면 바울의 계의로 쓴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바울이 그로 하여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은 틀림없다.
- (4) 그런데 우리는 더디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가 ‘주 안에서’ 문안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기록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 (5)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영적인 관심도 없이 글을 쓰는 일반 문필가들보다는 오히려 신자들을 자신의 선교 사업에 동참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바울과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무슨 사업을 할 때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고용하여 함께 일하며 좋은 것을 더불어 나눌 수 있어야 하겠다.
- (7) 더군다나 복음을 위하여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그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참조, 고후6:14,15).

22. ㉠ '가이오'와 '에라스도' 및 '구아도'에 관해 설명하라(23절).

- ㉠ (1) '가이오'는 행18:7의 '디도 유스도'와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인물이었다(고전1:4).
- (2) 본절에 의하면 그는 바울과 온 교회의 식주인(食主人)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의 집이 고린도에 거주하는 신자들의 집회 장소였음을 시사한다(참조, 5절).
- (3) 한편 '에라스도'는 고린도 시의 재무관으로 고린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음을 틀림없다(Oscar Broneer). 그러나 그를 성경의 다른 곳에 언급되어 있는 바울의 동역자 에라스도(행19:22; 딤후4:20)와 동일시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 (4)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구아도'는 본절 이외의 다른 곳에는 언급되지 않는 인물로서 다만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본절에 구아도가 '형제'라고 호칭(呼稱)되어 있는 것은 그가 본절에 나오는 에라스도나 22절에 언급된 더디오의 형제라기 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참조, 1:13; 고전1:1; 고후1:1; 갈1:2; 엡6:21; 빌1:12; 골1:1; 살전1:4; 살후1:3).
- (5) 위에서 볼 때 본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서 특별히 고린도 시에서 영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6) 이러한 사실은 '문벌(門閥)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는 고전1:26의 두드러진 예외를 보여 주는 한편, 복음은 신분의 고하(高下)를 초월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참조, 마24:14; 28:19).

23. ㉠ 24절이 성경 본문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 (1) 24절은 한글 개역 성경 본문에 실려 있지 않고 다만 난하주(欄下主)에 기록되어 있다(참조, RSV, NIV).
- (2)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다.
- (3) 그런데 이 귀절이 본문에서 빠진 이유는 체스터 벤티 파피루스 II(P⁴), 알렉산드리아 사본(Codex Alexandrinus), 시내 사본(Codex Sinaiticus),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에브라임 수리아어 사본(Codex Ephraemi Syriccirca) 등을 위시한 대표적인 사본들에 본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본절이 한글 개역 성경 난하주에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이 귀절이 베자 사본(Codex Bezae), 보엘네리안 사본(G) 등 몇 개의 사본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참조, KJV Living Bible).

24. ㉠ 25-27절에 기록된 바울의 축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또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 ㉠ (1) 바울은 본서신의 끝 부분인 25-27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그가 전한 복음의 주제와 기원 및 목적에 관련된다.
- (2)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탁(委託)하심으로 전파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음을 말한다(25절).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바 있다(고전2:2; 갈6:14).
- (3) 그 다음 바울은 모든 민족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이 구약에 예표(豫表)되어 있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계시의 점진성을 설명함으로써 이방인에게 행한 그의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된 것임을 천명(闡明)한다(25, 26절; 창12:3; 22:18).
- (4) 끝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비밀의 계시'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에게 드러내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고전2:6-13)께 영광을 돌림으로 본서신을 맺고 있다(27절). 이 같은 그의 언급은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음을 나타낸다(참조, 15:6; 시22:23; 뱀전4:11).

- (5) 이상과 같은 내용을 지니는 바울의 축도는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주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준다(참조, 11:33-36; 대상29:10-16; 마15:31; 행4:21; 계4:11; 7:10; 19:1).

화보자료

마메르티눔 감옥의 라틴어 명판(銘板). 명판에 새겨진 글은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이 옥에 갇혀 수난을 당하였다는 내용이며 아래의 화상은 두 사도의 모습을 새긴 것이다.



바울은 본서신을 통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밝혔던 것(1:13; 15:22, 28, 29)처럼 항상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였는데 그의 그 같은 바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졌었다(행28장). 그런데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였다는 기록을 끝으로 성경은 그의 말년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과 바울 서신에 나오는 단편적인 기록들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바울은 네로(Nero, 54-68) 황제의 기독교 박해 시에 체포되어 마메르티눔 감옥에 투옥되었다(참조, 딤후4:9-21)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근교에서 순교를 당하였다.

저자 소개

강병도 목사는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으며, 고려신학교(제 13회, 1959년)를 졸업한 후 30여 년 간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개혁주의적 목회의 일환으로 평신도 성경 공부에 관심을 쏟던 중 그간의 성경 연구 자료를 정리한「성경 문답식 강해」(1973년)를 펴내어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초기에 4권으로 시작되었던 이 책이 독자의 호응에 힘입어 3년 사이에 6권으로 불어났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바쁜 목회 생활 중에 기존 저술의 보완 작업을 쉬지 않던 그는 이제「QA시스템 성경 연구 시리즈」 전15권의 저술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현재 자신이 개척한 부산 동래 성일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지혜사 발행인으로서 저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성경 문답식 강해 증보판-

QA시스템 성경연구시리즈

13 사도행전-로마서

1999년 9월 10일 인쇄

1999년 9월 20일 발행

저 자/강 병 도
발행인/강 병 도
대 표/강 도 환
발행처/기 독 지 혜 사

등록/제 16-267호(89.7.21)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28

전화/568-8122, 1361~2

FAX/553-4830

정가 19,000원